

# MAXIM

KOREA

PLUS SIZE MODEL  
MAXIM CONTEST

공개한다. 세상을 뒤집을  
29명의 빅사이즈 미녀  
예매: maximkorea.net

NO. 241

## 'Kiss'

THEME of the month

- 첫 키스에 혀 넣어도 되는 여자, 안 되는 여자
-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근육, 혀
- 섹스보다 7배 더 흥분되는 키스의 과학
- 키스한 남녀가 섹스할 확률 몇 %일 것 같아?
- 실제로 키스하다 사망한 사람들의 처참한 기록
- 헛바닥이 긴 스포닝 멤버들의 충격적인 키스 썰
- 여자들은 말한다. 혀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 맥심에서 혀 제일 예쁜 김설화, 보면 알아

### COVER

직캠 천만 조회수의 떠오르는 대세

치어리더 김이서

### KING OR SLAVE

수컷 서열을 나누는 5계급  
나는 어떤 계급일까

# M<sup>K</sup>A X I M

KOREA

## HEALTH

키스가 몸에 이렇게 좋다고?  
자기야 이거 좀 읽어봐

## LAW & ORDER

맥심이 비동의 간음죄에  
반대하는 이유

## A.I. HELL GATE

맥심 최대의 존폐 위기  
가상 미녀의 물결 속에  
리얼은 필요 없어진 걸까

## COVER

직캠 조회수 천만  
눈을 뗄 수 없는 그녀

치어리더  
김이서

## MISS MAXIM 2023 CONTEST

미맥콘 비키니 대전  
매주 일요일 밤 8시  
5/28부터

NO. 241  
**'Kiss'**

**THEME**  
of the month

- 키스한 남녀가 섹스할 확률 몇 %?
- 명화 속 키스에 숨은 은밀한 이야기
- 사랑이 넘치면 왜 입이 먼저 나갈까
- 첫 키스에 혀 넣어도 돼, 안 돼?
- 키스를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유
- 몸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근육, 혀
- 야한 그녀들의 충격적인 키스 썰

# MAXIM

KOREA



## 2023 MISS MAXIM CONTEST

생존자 28명의 초호화 비키니 전지훈련  
5/28부터 매주 일요일 8시 본방 알람 설정!

## PLUS SIZE MODEL CONTEST

세상을 뒤집을 29명의 빅사이즈 미녀 공개  
7/8(토) 제3회 대회 직관 티켓 예매 시작

## COVER STORY

직캠 조회수 천만, 눈을 뗄 수 없는 그녀  
**치어리더 김이서**

NO. 241 s type

SUBSCRIBER ONLY LIMITED EDITION

## 'Kiss'

### THEME of the month

- 첫 키스에 혀 넣어도 되는 여자, 안 되는 여자
-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근육, 혀
- 섹스보다 7배 더 흥분되는 키스의 과학
- 키스한 남녀가 섹스할 확률 몇 %일 것 같아?
- 혀바닥 긴 스푸닝 멤버들의 충격적인 키스 썰
- 여자들은 말한다. 혀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 미스맥심 구강 사진전, 가장 키스하고픈 입술은?

---

**2023.7.8 Sat**

---



제3회 MAXIM  
**PLUS SIZE**  
**MODEL CONTEST**

---

Early Bird Ticket

예매처 [maximkorea.net](http://maximkorea.net)  
(5/31까지 얼리버드 할인)

---

# MAXIM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달콤하게 상쾌하게



VITASŌO  
[VITASOO VITAMIN STICK]

비타수S 자몽&민트 / 라임&민트 타르 0.0mg / 니코틴 0.00017ml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액상형 출시

# 한술대신 담배대신

**강력한 타격감**

**시원한 청량감**

**입냄새 Zero**

**풍부한 연무량**

QR코드 스캔하기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상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ITASOO | E-JUICE

비타수 액상 출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비타수S 액상 / 슈퍼멘솔&민트 청포도&민트 블루베리&민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COVER STORY

천만 조화수의  
직캠짤 주인공!  
요즘 대세  
치어리더 김이서의  
암도적인 피지컬



# Korea Vape Show

제4회 코리아베이프쇼

21 FRI - 23 SUN

July, 2023

KINTEX 2, 7 HALL

4th

The only Korea Vape event! Who is the best in East Asia?



부스참가 및  
사전등록



koreavapeshow\_kovas



031-697-8260

KOVAS  
KOREA VAPE SHOW



내 남자, 크림만 바꿨을 뿐인데…

# 단 2주로 피부의 흔적\*을 끝낸다!

\*트러블 및 기미/잡티/색소침착



##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 50ml

(미백 · 주름 개선 기능성)

- 여드름성피부 사용적합
- 붉은기 개선 28% 감소
- 색소침착 개선 7.14% 감소

\* 외부(물리적)자극에 대한 즉각적 자극진정 및 색소침착 개선효과에 대한 인체효능평가  
시험기간 : 2021.8.13~2021.9.3



여드름성 피부라면 지금 당장  
큐알코드를 찍어보세요!

기능성 그린뷰티, 이즈앤티리  
[www.isntree.com](http://www.isntre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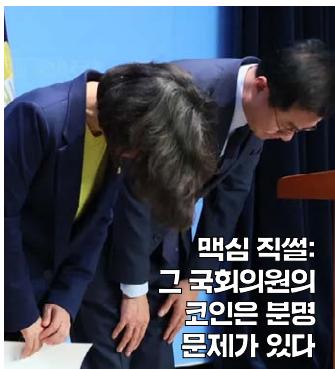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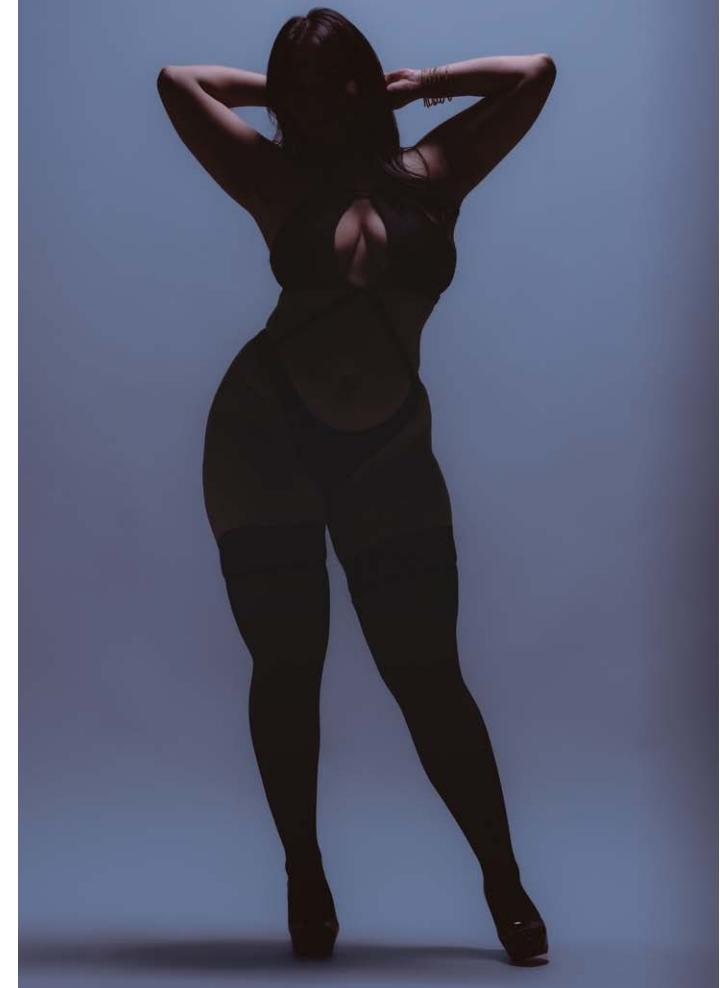
**우유의  
날이라  
미스맥심  
박별에게  
우유를  
부어봤다**



**여고생과 13살 연상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



**7월 8일, 큰 거 온다  
제3회 맥심 플러스사이즈  
모델 콘테스트 개최**



오빠,  
언제까지 숨길거야?



더이상 숨기지말고 뿌리면서 관리하자

# MAXIM

MAXIM KOREA / Editor in Chief  
편집장 이영비

## Editorial / 매거진 편집

에디터 채희진  
에디터 윤정도  
에디터 성문경  
에디터 박중우  
에디터 김한솔  
에디터 배주영  
디자이너 고복수<sup>1</sup>  
디자이너 전수진  
디자이너 이동림

## Video / 영상 제작

영상 PD 이준예  
영상 PD 조아라  
영상 PD 차재환  
영상 PD 홍은택  
영상 PD 김진석  
영상 PD 이원재

## External cooperation /

대외협력팀  
팀장 / 정권태 차장

## Entertainment / 엔터테인먼트팀

팀장 / 구경태 과장  
김동환 주임  
오동준 사원

##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팀  
팀장 / 하재인 차장  
방윤경 사원  
최준혁 사원

## F&B / 맥심1층카페

매니저 / 황준희 주임  
바리스타 연선오  
바리스타 이정훈

## Publisher / 발행인

CEO 유승민

## MISS MAXIM / 소속 모델

강선혜 강하빈 고아라 김나정  
김서아 김설화 김세화 김소희  
김수아 김아람 김은지 김은진  
김주연 김지연 김지예 김효연  
꾸 뿌 노지혜 도유리 뮤 아  
바비양 박근나 박 별 박수민  
박지연 박청아 벨 벳 보 라  
손예은 신새롬 썬비키 아승연  
안소영 양혜원 엄상미 여나비  
연 수 예 리 유 진 은 수  
은유화 이규영 이소윤 이수미  
이시현 이아영 이아윤 이예린  
이유진A 이유진B 이하니 장혜선  
전지은 정명현 정 은 정주희  
주 은 청 아 채 아 최세희  
최혜연 한나나 한수희 한지나  
혜 린

## Contact



독자 일반 문의

1800-5650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정기 구독·대량 구매 문의

1800-5650

[man@maximkorea.net](mailto:man@maximkorea.net)



모델·에디터 섭외

070-5173-0998

[manager@maximkorea.net](mailto:manager@maximkorea.net)



광고·제휴·사업 문의

070-5173-0984

[partner@maximkorea.net](mailto:partner@maximkorea.net)



섭외·기고·취재·협찬 문의

070-5173-0988

[press@maximkorea.net](mailto:press@maximkorea.net)

## Contributors

칼럼니스트 감동란  
스포츠동아 기자 강산  
게임 전문 미디어 게임메카  
일러스트레이터 미스맥심 고아라  
한성대학교 기업경영트랙 교수 권상집  
만화가 김성모  
헬스부 장관 김재섭  
풋볼리스트 기자 김정용  
칼럼니스트 김지은  
변호사 박상오  
팝 칼럼니스트 배순탁  
영상 제작 백스페이스  
칼럼니스트 삼도  
유튜브 채널 스풀닝  
전 〈레옹〉 편집장 까남 신동현  
유튜버 이순근  
일러스트레이터 이승훈  
이월뷰티하우스 이인선  
스타일리스트 미스맥심 장혜선  
칼럼니스트 정소담  
대학내일 조웅재  
시나리오 작가 지애  
피해의식, 남자훈련소 크로커다일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  
전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대변인 하현기  
과학 유튜버 SOD

발행처 (주)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22 MAXIM 빌딩 TEL. 1800-5650 / FAX. 02-6455-0193  
2023년 6월호 통권 제158호 (한국판 241권)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bläk BODY SHAVER



[www.blakshave.com](http://www.blakshave.com)

**더 이상 왁싱샵 다니지 말자!**

남자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최선의 선택  
제모전문가들이 만든 최고의 제품



# MAXIM

## Photography / 촬영

V1 STUDIO

박 을 실장      이진호 실장  
542 STUDIO      1984 studio  
스튜디오 체리픽

## Application / 앱 매거진

(주)비욘드테크  
디지스토리

##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이응관 대표  
(주)맥심도서유통

## Web & Mobile

토웬 / 서정민 팀장

## Printing / 인쇄·원색 분해

벽호 권준성 인쇄인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43번지

## MAXIM Worldwide

Chairman and CEO, Biglari Holdings Inc.

**Mr. Sardar Biglari**

##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Vice President, Operations **Kai Olderg**

Chief Financial Officer **Robert Price**

Chief of Staff **Steven Grover**

International Licensing & Publishing

Manager **Dana Lombardi**

Global Advertising **Paolo Cesana**

Senior Paralegal & Rights Manager

**Catherine Baxter**

## Maxim Inc.

A Biglari Holdings Company

## Beverly Hills

The Rolex Building 9420 Wilshire Blvd

Beverly Hills, CA 90212

## New York

268 West 44th Street New York, NY 10036

## Monte Carlo

5 bis Av. Princesse Alice Monte-Carlo,

98000 Monaco

## Media Network: MAXIM

### / Editor In Chief

AUSTRALIA / **Santi Pintado**

CZECH REPUBLIC / **Jan Štěpánek**

COLOMBIA / **Gabriel Guajardo**

INDONESIA / **Ronald Adrian Hutagalung**

MEXICO / **Gabriel Guajardo**

RUSSIA / **Sasha Malenkov**

SWITZERLAND / **Boris Etter**

SOUTH AFRICA / **Dirk Steenekamp**

SOUTH KOREA / **Young-bee Lee**

THAILAND / **Santhat Phothisa**

UKRAINE / **Sasha Malenkov**

UNITED STATES / **Sardar Biglari**

## MAXIM Social / 공식 온라인 채널



맥심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맥심 B컷 화보 서비스

[bcut.maximkorea.net](http://bcut.maximkorea.net)



맥심 유튜브 채널

[youtube.com/themaximkorea](http://youtube.com/themaximkorea)



미스맥심콘테스트 유튜브 채널

[youtube.com/missmaximcontest](http://youtube.com/missmaximcontest)



맥심 세로 TV 유튜브 채널

[youtube.com/맥심세로TV](http://youtube.com/맥심세로TV)



페이스북

[facebook.com/maximkorea](http://facebook.com/maximkore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maximmag\\_kr](http://instagram.com/maximmag_kr)



라이키 맥심 채널

[melikey.co/maximkorea](http://melikey.co/maximkorea)



멤버미 채널

[memberme.net/maxim](http://memberme.net/maxim)

맥심 매거진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맥심’ 또는 ‘MAXIM’을 검색하세요.

## Very Special Thanks to VIP

맥심 241호가 출간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anasonic  
(주)메디미플러스  
(주)엠도씨  
(주)준홀딩스  
(주)더페어스  
(주)이즈앤티리  
(주)원디렉션컴퍼니  
여수 블루망고 풀빌라&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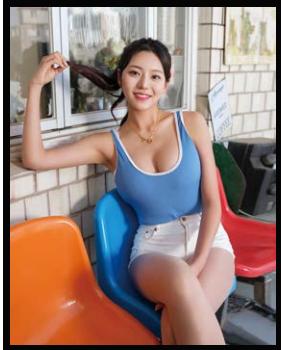
rance4  
jett  
paysan  
jh2her  
최홍관  
Drision  
사랑하세  
tanhzed  
Sirtim  
nobaes79  
tjdrhs6426

leessa  
kygbogo09  
fffff  
wsx1067  
CheBolu  
sayho  
Whitely  
redred13  
giahahn3121998  
MerSum  
hihi

푸른바다  
돼지고양이  
다루마  
무색무취무미  
현이님  
Jeremin  
탈퇴한회원  
뭐라하지않기  
이니드  
오져따리  
Fernando

※ 개인 특별 후원은 구독 서비스 멤버미와 라이키의 맥심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MAXIM KOREA  
JUNE 2023 issue



On the Cover  
표지모델 김이서  
사진 박율  
진행 김한솔



● 서점  
판매용



● 정기 구독  
한정판

Theme of the month

맥심 한국판 241호 '키스' 편

본 잡지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 월간지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Maxim Inc.는 한국의 (주)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  
잡지를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Maxim Inc., (주)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Maxim  
Inc.와 (주)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23 Maxim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Maxim Media Inc., and  
used under license by Y Media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Maxim Inc. 268 West 44th Street New  
York, NY 10036.

# 키스해!(짝)X2

지독한 오뉴월 감기에 걸려 마감하는 일주일 내내 콜록거린다. 이마다 폐가 튀어나오겠다. 입안은 이미 바짝 마른 사하라사막이다. 그 외에는 모니터에는 여수 럭셔리 리조트에서 찍어온 미맥콘 2R 비키니 사진 수천 장과 맥심에서 혀가 제일 예쁜 설화의 촉촉 키스 화보, 우유를 온몸으로 마시는 박별의 젖소(?) 화보 등이 지나갔다. 손만 대면 우유든 과즙이든 촉촉한 물기가 터질 듯한 싱그러운 화보가 유독 많은 6월호. 평소라면 ‘설화 입술 진짜 예쁘다’ 하고 넘어갔을 사진인데, 나도 모르게 수십 배 확대해 구강 내 물기를 확인한다(부립).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키스’는 이런 감기 같은 질병을 옮기는 위험한 접촉 중 하나다. 군이 득시글한 타인의 액체를 일부러 점막이 있는 입으로 받아니 말이다. 그런데도 왜 인간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키스할까? 학자들은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한다. 먼저, 성적(동물적)인 행동으로서의 키스는 얘가 뭘 먹었는지, 훈련한지, 기분은 어떤지, 아까 다른 년/놈이랑 붙어먹은 건지 등등의 생체 정보를 침과 냄새를 통해 확인하는 사전탐색 행위다. 즉, 입을 맞추는 행위는 남녀가 힘을 합쳐 애를 만들기 전에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는 일종의 ‘간이 키트’다. 후각이 발달한 동물은 이렇게까지 가까이 붙을 필요가 없지만, 인간은 후각이 후지니까 얼굴을 밀착하고 냄새를 맡거나 타액을 주고받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섹스가 단지 자손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듯, 키스 역시 다른 목적이 있다. 전설의 시청률을 찍은 레전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철조망 키스신 기억나지? 위험한 상황에서 철조망을 넘어 윤여옥의 머리통을 붙들고 뜻겁게 입을 맞추는 최대치. 키스가 단순 생존, 생식을 위한 행위라면 목숨을 건 키스는 정신 나간 짓이다(실제로 다음 장면에서 최대치는 키스하다 발각돼 얻어맞고 개처럼 질질 끌려간다). 하지만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키스를 갈기는 게 인간이다. 그렇다. 키스에는 종의 생존이나 번식 이상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색, 계>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 흔들리는 불알과 터럭만 남았을지 모르니 간단히 설명하겠다. 왕자즈(탕웨이 분)는 이모청(양조위 분)을 암살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이모청은 우리처럼 ‘얼씨구나!’ 넘어가지 않는다. 그는 주변 모든 이를 의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아래도리는 왕자즈를 너무나 강렬히 원한다. 그렇게 성사(?)된 <색, 계>의 첫 번째 베드신. 거기엔 키스가 ‘없다’. 심지어 이모청은 왕자즈가 고개를 들려 등 뒤의 자신을 보려 하자 그녀를 제압해 아예 얼굴도 못 보게 한다(꼴릿해). 둘의 키스는 이후 이모청이 왕자즈에게 마음을 조금씩 여는 시점에 나온다. 그는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믿을 건가요?”라며 투정 부리는 왕자즈에게 “믿어, 믿는다고 했잖아!”라면서 입술을 박력 있게 박아버린다. 입맞춤은 그가 마음을 열고 믿음을 품은 순간에 등장한다.

<색, 계>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작품에서도 섹스 신에서 달달 키스신을 배제하여, 둘의 관계가 (자금은) 드라이하고 일시적이며 신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매춘이나 원나잇 같은 남녀 관계를 그릴 때는 키스신이 없거나, 노골적으로 ‘나는 키스는 안 해요’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한다. 즉, 키스는 우리가 상대를 믿는다는 걸 보여주고 확인하는 사회적인 행동이다. 이 촉촉한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형성된다.

무리 지어 사는 사회적인 동물은 인간 말고도 많다.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꼭지가 돌아버린 사회적 동물은 인간뿐이다. 인간에게 ‘관계’란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자 외로운 ‘혼자’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생각하는 바가 놀라울 정도로 닳아서 끈끈한 동지가 될 수는 있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은 내가 될 수 없다. 나 외에 모두 ‘타인’이다. 관계를 갈망하는 혼자. 그게 우리다.

그 낯설고 외로운 타인이 모였다가 점점이 흩어졌다가 더 큰 집단을 이루길 반복한다. 외롭고 심심하기도 하고, 애를 낳고 가족을 이루거나 나라 세우고 전쟁하고 혁명하는 등의 무진장 빽센 대업을 이루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이 새끼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날 강간하고 죽이려는지, 내 뺨을 훔쳐 가려는지, 아니면 변치 않는 충성 맹세를 하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뜰뜰한 영장류는 뜬금없이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타인에게 내가 이롭거나 최소한 뒤통수는 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 키스는 믿음과 수용의 표현이다. 믿을 수 없는 타인인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출, 그것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키스다.

그럼 쭈웁쭈웁 입술이나 비비며 평화롭게 살면 될 텐데, 왜 점점 세상 사람들의 적개심은 커지는 것처럼 보일까? 요즘처럼 개인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대난장판에, 심지어 자기가 보는 것만 귀신같이 찾아 끊임없이 띄워주는 알고리즘 지역에서는 이 사회적 동물들이 너무 쉽게 끈끈해지곤 한다. 예를 들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에겐 지구 평면설 관련 콘텐츠만 계속 뜨고, 그 아래에선 대댓글을 달며 서로 끈끈하게 교류하잖아? 정보가 계속 그 안에서 돌고 돌아 점점 자신만의 생각이 강화되고, 생각이 다른 이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약해지거나 외롭지 않기 위해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타인을 어떻게든 찾아 서로 들려붙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거기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다. 종교, 국적, 성별, 지지 정당처럼 타인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 그은 정체성의 선들은, 다시 남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 점점 뚜렷하고 굵어져 고립주의와 갈등, 분쟁을 유발한다. 그리고 우린 그 정체성의 선 때문에 기꺼이 서로를 죽인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기는 고작 7.8%, 앨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지구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고작 3주”라고 말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존 레넌은 ‘Imagine’에서 “천국도 지옥도 없이 우리 위엔 하늘만 있고,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와 종교도 없는 평화로운 이상향”을 노래한다. 정체성의 경계를 뭉개 없애고 하나가 되면 싸울 일이 없을 거라며. 물론, 이건 몽상가의 노랫말일 뿐이다. 누가 뭐래도 남이 나보다 행복한 꿀을 못 보는 게 또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열렬히, 부지런히 키스해야 한다. 평화가 넘치는 곳에서 생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무한동력처럼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섹스러운 잡지 맥심! 그 맥심으로 이어진 우리의 사명은 키스를 통해 믿음과 인류애가 가득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당신의 키스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빨리 튀어 와서 입술 대. 그 얘기다.



# 미맥콘 모델 2023

**독자 참여형  
리얼 서바이벌 투표 예능  
미스맥심 콘테스트!**

**매주 12월호  
표지 모델이  
당신의 투표로  
결정된다!**

**언제 올라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어디서 보는데?  
유튜브 'MISS MAXIM  
CONTEST' 채널**

**어떻게 참여해?  
채널 구독 후  
<미맥콘 2023> 시리즈를  
정주행! 투표도 잊지 말고!**

MODEL

2023 미맥콘 TOP28 진출자  
헬스 트레이너 희야



# READER'S Letter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다.  
말이 돼?

독자가  
원한다면야

맥심 235호  
표지모델  
래퍼 정상수

Q. 다음 편 주제는 상남자 '알파 메일'이 좋을듯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hunte85 [홈페이지 일반회원] 😊

 **맥심 사장:** 표지 모델이 알파 메일이어도 좋다고? 독자를 대표해서 하는 말씀 맞죠?

 **PD 이원재:** 드디어 제가 표지 모델에 나설 때가 되었군요.(셔츠를 벗으며)

 **엔터테인먼트팀 오동준:** 원재 씨랑 동기인데 트윈 화보 가능한가요?

 **에디터 박중우:** 원재 씨, 빤스는 T백 불일감싸개 스타일로 갑시다.

 **에디터 배주영:** 왜들 그래? 다음달 주제 '하남자'편이야?

Q. (22년 12월 사연) 올해가 맥심이랑 보내는 마지막 10대 시절이네요.. 이젠 당당하게 맥심을 말할 수 있지만 맥심 뽀시래기 시절 몰래 때로는 숨기던 10대가 이제는 추억으로.. 모든 감정이 떠오르지만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 꽃 피는 봄, 땀나는 여름, 단풍 드는 가을, 보름달이 뜨는 추운 겨울 맥심과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은 10대를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학생독자133\* [APP사연]

 **에디터 박중우:** 이녀석... 중2병이 왜 지금 왔지? 이불킥 하라고 6개월 지난 지금 올려드립니다. 다시 읽어보니 어때?

 **편집장 이영비:** 촉촉한 글이네요. 10대에 “사랑” 비스무리한 것도 없어서 비뚤어지게 자란 우리 박중우 에디터를 이해해 주시길.

 **칼럼니스트 삼도:** 20대의 표어는 “섹스”로 장식합니다 학생. 맥심이 그 찬란한 꽃길의 반려가 되겠습니다.

Q. 유튜브에서 채희진 에디터의 실물을 보고, 캐리커처와의 놀라운 싱크로율에 경외감을, 그 풍채와 ‘산적적’인 수염에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희 산채에 입단하지 않겠습니까? 구름의흔 산적단 단주 운령[정기구독자] M

 **에디터 채희진:** 세전 연봉은 얼마죠? 도적질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는 있죠?

## READER'S LETTER



Q. 맥심에서 정기구독자에게만 주는 폰 배경 화면 저도 하고 싶긴 한데 그 뭐랄까.... 예쁜 여자의 몸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으로다가 혹시 얼굴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 만들어 주실 순 없을까요? 뭔가 대놓고 미스 맥심 ○○○!을 폰 배경으로 쓰기엔 눈치가 보인달까... 제가 아직 좀밥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미스맥심 폰 배경 보고 누군가와 눈 마주쳤을 때 적절한 행동 루틴이 있을까요? 편집구독자 [정기구독자] M

**맥심 사장:** 머리통이 없는 여자 취향이라... 취준 합니다. 자요. 머리 없는 썬비키.

**PD 이원재:** 참고로 제 배경 화면은 촉수에 휘감겨 옷이 다 찢어진 레무땅인데 회사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에디터 김한솔:** 뭐가 고민입니까? 강 알아서 머리 크롭하시거나 좀밥 탈출하십서.

**PD 이준예:** 눈이 마주치면요, 징긋 윙크하며 엄지를 들어 올리세요.

**엔터테인먼트팀 김동환:** 흑백으로 뽑아드릴까? 흑백만 해도 예술뽕 차오르는데...

Q. 친구들과 술 먹다 “여자는 가슴이다 vs. 골반이다”를 두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둘 다 좋으면 최고지만, 미스맥심 아니고서야 그런 여자는 많지 않잖아요? ‘가슴 몰빵에 일자허리 무골반 vs. 골반과 허리 곡선 몰빵’인데 트리플A 가슴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죠? 맥심 에디터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문제로다 [홈페이지 일반회원] M

**에디터 김한솔:** 평소에 잡거나 월 일이 가슴 쪽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닥치고 가슴 하겠습니다.

**에디터 윤정도:** ‘평소에 가슴을 잡거나 월 일이 많다’고? 요새 소젖 짜기 일바라도 하나?

**에디터 박종우:** 일단 골반 큰 여자를 사랑하고, 아쉬우면 가슴 수술을 권한다.

**에디터 배주영:** 여자에게 중요한 건 가슴도, 골반도 아닌 마음입니다... 저 우는 거 아닙니다.

**PD 이원재:** 백날 골라봐라...

Q. 독자 사연이 당첨돼서 사은품이 왔는데요... 제우스크림? 이라는 게 와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지만, 효능, 효과에 미백이 되고 보습감을 준다길래 ‘그냥 얼굴에 바르는 수분 크림인가보다’하고 지인에게 줬다가 매우 어색해 질뻔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남성 고추 커지는 크림이더군요. 제조사도 민망하셨는지 광고 페이지에도 크림의 기능을 애매하게 써놔서 한참을 스크롤하다 겨우 알았네용ㅋ.ㅋ

마사지1일차 [정기구독자] M

**편집장 이영비:** 지인의 얼굴은 어떻게 됐나요?  
두근두근

**엔터테인먼트팀 오동준:** 저는 필요 없는 크림이군요!^^

**엔터테인먼트팀 김동환:** 그렇네. 동준 씬 고추가 필요 없겠지?

**에디터 박종우:** 고추 미백이 대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고, 보습이라면 정기적으로 따뜻하고 촉촉한 곳에 담그는 것이 좋다고 아뢰오

**맥심 사장:** 너 이색기... 노콘으로 하는구나?

**에디터 배주영:** 찌찌에 발라도 커지려나?

### 독자 사연 응모

\*맥심 앱 [독자사연 응모]  
또는 맥심홈페이지 [독자  
사연 게시판]에서 바로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실린  
독자 모두에게 증정!

### 이달의 독자 사연 선물

사연이 잡지에 실린 독자  
모두에게 그날 맥심이 엄선한  
상품을 배송한다!

\*선물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제우스 아웃사이즈 크림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바로 ‘커지는’ 크림이다. 워긴 워야 네 고추지. 안전성은 확보됐고, 특히 성분으로 세포의 부피가 증가해서 굵어진다고. 독자사연 역사상 가장 굉장한 선물이 아닐까 한다. 이번 달에 하필 독자사연이 줄어들었는데... 설마 맥심 새끼들 독자 안 주고 지들이 쓰려고?



맥심 편집부 서버에 잠든 수십만 장의 미공개 화보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잡지는 빙산의 일각. 여기가 진짜.



## 2023 미맥콘 비키니 스페셜

풀랑 잡지 화보 2~3장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나?  
2라운드 진출자 28명의 미공개 비키니 컷 대방출!

+ Coming Soon...

역시 현역은 달라! 미스맥심들의 완성도 높은 초고화질 화보 B컷도 쭉쭉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독을 서두르세요!





# 김성모 화백의 근성 상담소

추진력을 얻기 위해 새롭게 변신해서 돌아왔다. 혈맹들의 고민이  
모조리 사라지는 그날까지! BY 근신(근성의 신) 김성모

**Q.**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 욕구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과도한 업무, 나만 일하고 상사들 다 처늘거나 쉬러 가고. 하아... 갈 곳은 없고. 퇴사 욕구 어케 참음? (도비이즈프리)



그냥 한번 때려치워 봐라! 그런 욕구가 계속 올라온다는 건 무수한 세월 동안 축적(?)된 감정 때문일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짚을 때는 한 번쯤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신을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려 보는 것도 앞으로의 삶을 사는 데 좋은 교훈이 된다.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으니까! 해봐라!!!

**Q.**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있지만, 정말 뜯금없이 문득 생각나는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 동창인데요. 살면서 본 여자 중 살냄새? 여성호르몬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친구였습니다. 뒤를 따라 걷거나 옆에 있으면 해도 쉽게 살내음이 났거든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그녀와 연락이 닿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살냄새를 발산하고 있길래 사실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헤어진 첫사랑의 친구이기도 해서 관계를 발전시키려니 죄책감이 들어 그날 이후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친에게선 나지 않는 그녀의 여성호르몬 살냄새를 다시 한번 맡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너무 변태 같나요? 맥심이니까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ㅋㅋㅋ (다시돌아갈수없는그시절)



**Q.**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지만 생각하는 동료들 덕분에 제 안에서 인류애가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싫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제 마스크도 벗어서 얼굴 전체를 보니 더 꽂 보기 싫어짐. (수송길울트라)



이럴 때 쓰는 명언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다른 인간들도 네가 싫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원래 인간들은 다 똑같다. 난 아닐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포용력과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지만 쟁기는 족속들이라는 걸 명심해라.

단연컨대 무조건 돌진해서, 반드시 따야(?) 하는 여자다!!! 평생 그런 여자는 한두 번 정도... 아니, 단 한 번도 만나기 힘든 여자다! 내 말 명심해라! 누구처럼 평생 후회하지 말고... ㅋ

**Q.** 요즘 자격증 취득목적으로 독서실을 다니는데요. 독서실 총무 여성분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만약 카페 알바생이었으면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 사가면서 눈도장이라도 찍었을 텐데 독서실에서는 각이 안 나오네요. 독서실에서 뭘 하면 그녀 머릿속에 저를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옥수수코털차)



웬만하면 자격증 취득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굳이 사연까지 보냈으니 답해준다. 매일 그녀에게 오천 원이나 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줘라. 왜 이런 걸 주냐고 묻거든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이라고 해라. 만약 돌려준다면 그 돈을 쓰지 말고 봉투에 따로 고이 보관해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큰돈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럼 돈으로 가득 찬 봉투를 그녀에게 줘라. 제 사랑이 어느덧 이렇게나 커져 버렸다고 하면서... 젊은 여자는 돈으로 잡고, 늙은 여자는 몸으로 잡는 법이다!

**Q.** 썸인지 뭔지 하는 동네 오빠가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는 사이인데요. 예전에는 섹스까지 하는 사이였는데, 이 오빠가 하면 딱! 10분만 해요. 더 하고 싶은데 오빠는 힘이 듦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10분이라도 더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박선영)



안타까운 얘기지만 남자들마다 성 능력에 분명 한계가 있다. 센 놈과 약한 놈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10분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면 다른 놈을 찾아봐라. 근데 잘한다고 뻥 치는 놈들이 하도 많아서... 차라리 그 오빠에게 전희 시간을 늘려서 30분만 채워달라고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 그 정도면 너도 만족하지 않을까?

### 김성모 PICK! 이달의 사연



**Q.** 34년 동안 모쏠 인생을 살았던 저(남자 이성애자)에게 연락하고 지내는 여성이 생겼습니다. 육체적 사랑을 나누기 전 콘돔, 여성청결제, 구강청결제, 향수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민승)

먼저 34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모쏠 탈출한 것을 축하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고 인내했을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잘 알겠다. 이제 그 여인과 역사적인 합방을 하게 될 텐데. 분위기를 띄우는 데에는 키스가 최고일 것이다.

하지만 34년 모쏠의 전적으로 스킬을 발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기본빵은 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겠다.

먼저 상대의 윗입술부터 빨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상대가 느끼기에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더 잘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상대의 혀를 찾아서 빨아라! 여인들은 자신의 혀가 남성에게 빨리는 순간부터 그 남자의 담배 냄새나 입 냄새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그전에 입안을 청결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참고로 구강청결제보단 치약이 좋고, 향수보다는 비누 향이 더 먹힐 것이다. 너무 강한 향은 독이 된다는 걸 명심해라! 그럼 너의 건승을 빈다! 파이팅!!!^^





## 두근두근 키스타임

어허, 초장부터 어디 혀를 불쑥! vs. 갈고닦은  
혀 놀림 스킬 대방출! 당신은 어떤 타입?

BY 일러스트레이터 이승훈



# 여심사냥 왁싱칼리버

## Panasonic ER-GY60 트리머



자기야, 나는 무모(無毛)한  
남자한테 끌려. BY 박종우

### Spec Check!

#### ER-GY60 트리머

가격: 129,000원

무게: 약 150g

충전 시간: 완충 2시간 /

최대 2시간 사용

구성품: 트리머 본체, 빗 키트 4종,

충전기, 청소솔, 청소액, 파우치

A/S책임자: 파나소닉코리아(주)

### 남자의 체모와 성적 매력의 상관관계

맥심 대표 사랑꾼으로서 그간 수많은 여자에게 이상형을 물어왔다. 성적 취향이라는 것이 워낙 추상적인 ‘느낌’의 영역인지라 매번 아리송한 답변들이 난무하지만, 그녀들이 내놓는 모든 대답을 관통하는 한 가지 치트키가 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남자’다. 남자 식으로 치환하자면 ‘밝고 순수한 여자(이거 싫은 분 계십니까?)’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키워드로, 우리는 그녀들의 이런 심리적 경향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여심을 후벼팔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제법 성실하게 관리하고 가꾼(것처럼 연출한) 깔끔한 외모는 대다수 여성에게 굉장히 섹슈얼한 한방이 된다는 소리다. 그리고 이 효과를 가장 쉽고 간편하게,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방법이 있다. 전신을 뒤덮은 시커먼 털들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 왁싱(제모)이다.

### 여심 슬레이어, 당신의 엑스칼리버 파나소닉 ER-GY60

만년 엑스트라 신세였던 털복숭이 바야바를 매끈하고 새끈한 루크 스카이워커로, 당신을 한 마리 영장류에서 세련된 현대인으로 바꿔줄 제모기 ‘파나소닉 ER-GY60 트리머’를 소개한다. 실컷 여심을 격파하네 마네 떠들더니 결국 광고였느냐고 열은 뺨지 마시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억센 수염부터 민감한 부위의 음모까지,

전신의 털을 사뿐사뿐 벌초하기에 이만한 제품이 없다.

자극 없이 미끄러지는 면도날의 SSS급 절삭력, 다양한 제모 각도에서 편하게 잡을 수 있게 돋는 인체공학적인 제품 디자인, 면도날 깊이를 20단계로 조절해가며 모든 체모를 원하는 길이로 조져버리는 빗살 캡까지 기본 옵션이다. 개인적으로는 수북한 다리털 숲을 가볍게 털어버리는 기능이 제일 좋았다. 흄을 끊자면 가격이 제법 된다는 건데, 남성용 제모기로써 갖춰야 할 알짜배기 기능은 싸그리 담은 데다 내구성도 빠지지 않아서 제값 이상의 값어치는 해낸다고 자부한다. 아래저래 복잡한 말 치우고, 수북한 털 때문에 고민하는 독자, 적은 투자로 댄디가이 타이틀을 꿰차고 싶은 독자라면 고민 없이 지갑을 펼려여도 후회가 없을 제품이다. 살포시 추천박고 이만 퇴근합니다. ☺

TONGUE



# 얼고놀리자



물고 빨고 훑고 맛보고 씨부리느라 365일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는 혀 이야기. BY 김한솔



## 혀란 무엇인가?

쫑알쫑알 낼름날름 쭈압쭈압 훑壑! 오늘도 열일하는 너 우리 몸에서 가장 유연하고 섹시한 근육! 내가 잘 때도 열일하는 성실한 녀석! 혀는 구강 바닥에서 입안으로 튀어나온 긴 근육성 기관으로, 길이는 보통 10cm다. 뿌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 주로 몸통만 움직이는데 전체 혀의 2/3 길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혀에는 맛을 느끼는 미뢰가 3천~1만 개 분포하며 미뢰의 수명은 약 2주로, 건조한 상태에선 맛을 못 느낀다. 오늘도 젖어버렷!

## 모든 인간의 혀 자국은 다르다

자기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맞춰볼까? 혀의 프린트, 즉 설문도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르다. 혀도 홍채나 지문인식 대신 쓸 수 있겠지만 그냥 더러우니까 안 하는 거.

## 조상이 혀 못 말면 너도 못 말아

나는 되는데, 너 되나?

세상에는 혀끝을 U자로 말 수 있는 사람과 못 마는 사람이 있다. 이건 유전자의 영향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 안 되는 사람도 부단히 연습하면 되거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연습해서 유전자 새끼한테 한방 먹여주자. 아, 딱히 쓸 데는 없어.

## 살 찌면 혀도 찐다?

키스 잘하려고 일부러 찌운 거야?

씹돼지가 되면 혀에도 지방이 붙어 살이 찐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 코를 많이 고는 것도 혀가 뚱뚱해서란다. 불어난 혀가 누워있을 때 목 방향으로 늘어지고, 이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노폐물이 쌓여 혀에 백태도 생긴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 우리 혀까지 찌우진 말자.

## 혀의 맛 지도(Tongue Map)의 실체

안쪽은 쓴맛, 끝은 단맛, 혀 양옆은 신맛?

1901년 독일 과학자 다비드 헤니히가 실험을 통해 ‘혀의 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 맛이 있다’라는 결론을 냈다. 이를 본 심리학자 에드워 보링이 ‘혀 맛지도’를 만들었는데, ‘맛이 덜 느껴진다’는 부분을 ‘특정 부위에서 특정 맛이 느껴진다’고 잘못 해석해버렸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그의 자료를 사람들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이 혀의 맛 지도가 널리 퍼졌는데, 실은 혀의 각 부분마다 맛을 받아들이는 정도 차이는 미미하다고.

## 슈퍼 테이스터(Super Tasters), 신의 혀

보통 사람은 못 느끼는 것까지 맛 볼 수 있는 민감한 신의 혀 전 세계인의 25% 정도라는 슈퍼 테이스터. 남성보다는 여성, 백인보다는 아시아인이 더 많다. 맛 느끼는 강도가 일반 사람 보다 3배 정도 세고, 특히 쓴맛에 민감한데 이는 ‘6-n-프로필티오우라실(6-n-propylthiouracil)’이라는 화학 물질에 민감해다. 때문에 쓴맛이 남보다 도드라지게 느껴져 슈퍼 테이스터 대부분이 채소를 싫어하는 편이라고. 편식쟁이를 위한 핑계 끝! 🍅

# THEME OF



빠. 빨간맛

궁금해 허니

이달의 테마

## 키스



우리는 어째서 서로의 주둥이를  
물고 빠는가? BY 박중우

1979년 10월, 동독 공산당 두목이 소련  
공산당 우두머리에게 사랑과 존경을 듬뿍 담아  
주둥이를 들이미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예정에 없던 습격이라 당황스러울 수 있었는데도  
글로벌 공산당의 우두머리는 기꺼이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두 수컷의 진한 딥키스 소식에 자유  
진영 언론에서는 얘네 뭐 하는 새끼들이냐며  
자지러졌지만, 이것은 소련이 동독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겠다는 리스펙트 더불어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화합의 의미가 담긴  
역사적인 키스였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수없이 다양한 형태와 의미, 목적이 담긴  
키스가 있다. 이를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동독 대표 호네커(오른쪽)의 철린지에 응하는 소련 대표 브레즈네프(왼쪽).



## 키스(Kiss)

상대의 신체 일부에 입을 맞추며  
우애나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표현

깨달았다. 편집장이 테마를 ‘키스’로 결정한 것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맥심을 함께 만들어 가는 에디터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기 위함이 확실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글을 마치면 뺨을 조나 맞겠지...? 그래. 건전하고 유익한 전체이용가 잡지라고 백날 어필해도 성인물로 오해받는 맥심 아니더냐. 맥심에 어울리는 키스의 사전적 의미가 하나 더 있다.

## 키스(Kiss)

입술과 입술을 맞추는 성애의 표현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는 이유가 뭘까? 아 정확히는, 키스를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할까? 플라톤은 필두로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섹스는 ‘육체적인 욕망을 위한 행위’라며 일축하더니, 키스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순간의 고귀한 경험’이네, ‘영혼과 이데아의 결합’이네 호들갑을 떨었다. 뭐야, 너네까지 왜 그래?

**Q1.** 영화 <귀여운 여인>에는 백만장자 사업가(♂)와 매춘부(♀)가 등장한다. 여자는 남자와 6일 동안 동거하며 몸을 팔기로 계약하면서 ‘입에는 키스하지 않는다’라는 스페셜 옵션을 내건다. 섹스는 괜찮은데 키스는 하지 말라니, 어째서일까?

**Q2.** 밀란 쿤데라의 소설집 <우스꽝스러운 사랑>에선 신나게 섹스하던 한 남자가 자신에게 키스하려는 여자를 밀치며 말한다. “어허! 키스는 사랑하는 여자하고만 한다고!” 그러셨구나. 키스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섹스보다 더 아끼는 걸까?

인간이 키스를 진실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유는, 키스가 육체적인 쾌락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교환하는 수단이기에 그렇다. 고로 위 두 질문 속 인물들은 너와 섹스는 하겠지만, 사랑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적당히 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섹스와

키스의 이런 차이는 모든 성적인 행동이 그렇듯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힘들이 서로 작용한 결과다.

## 키스의 기원

섹스와 무의식에 통달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그가 말하길, 어린 시절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힘차게 빨아 재끼던 어머니의 젖가슴을 향한 탐욕스러운 욕망이 바로 키스의 기원이라 했다. 쉽게 말해 엄마 가슴이 우리 첫사랑이고, 그걸 우리가 못 잊어서 계속 원기를 쭈쭈 빨고 싶어진다는 얘기다. 애들이 순에 잡히는 물건이라면 뭐든 입에 넣고 쫑 빨아보잖아? 이 또한 생존하고자 하는 충동, 어떤 물건을 알고자 하는 충동, 엄마 젖가슴을 대체할 어떤 것에 애착하려는 충동의 발현이다. 개소리처럼 들리는 거 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키스의 기원이 엄마의 유방이라는 프로이트의 이 주장만큼은 이미 후속 연구들에서 팩트라고 판결이 난 상태니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자.

자, 이 마마 불스 노스텔지아가 동물행동학으로 건너가면 한층 더 웃스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애기들은 생존을 위해 가까운 누군가(보통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이러한 성향을 ‘단향성(monotropy)’이라고 한다. 앞서 말했듯 ‘키스’는 그 기원이 엄마 젖을 향한 애기의 애착 활동의 파생물이라,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애착하는 특별한 대상에게만 키스하도록 스스로 제한하는 심리 경향이 있다. 이러한 키스의 단향성은 상대와의 애착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정리하자면, 키스는 오직 한 사람과의 깊은 유대를 위해 사용하는 필살기라는 소리다.

## 키스의 특별한 기능

동물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번식’이다. 근데 이 키스라는 것이 분명 성적 행위일진대, 번식은커녕 오직 키스 상대와 유대감을 쌓고 유지하는 것에만 기능하는 별종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키스가 유전정보교환의 1차 허브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키스하면서 상대와 MHC(주조직적합성복합체)라는 유전자 덩어리를 주고받는다. 이걸 갖다가 상대와 나의 유전자가 얼마나 똑같고, 얼마나 다른지 빠르게 스캔을 사라락 떠버리고, 유전자가 많이 겹치면 ‘이 새끼 나랑 근친 아니야?’ 라며 당장 토키라는 시그널을 쌌리고, 유전자가 달라서 조합했을 때 2세로 또 대박 날 것 같으면 일단 임신부터 끄리라는 시그널을 막 쏘는 기능이다.

심미적인 목적을 빼고 기능만 따지자면, 남자와 여자의 입술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키스하는 동안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존재로서 의사소통한다. 동시에 키스는 성(性)이 다른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은음으로 받아들이는 몸짓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지 않고, 같은 기관으로 같은 쾌락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성적 행위. 그것이 이번 달 맥심의 주제, 바로 키스다. ☺

주동이 스탑.

# THE MONTH

# 키스의 과학



이과 놈들이 키스를 파헤쳐서 얻어낸  
별의별 희한한 사실들. BY 성문경



## 키스할 때 눈 감는 이유

영국 로얄할로웨이 런던대 폴리 달튼 교수는 촉각과 시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실험을 진행했다. 대학생 16명의 손에 진동 기기를 부착하고, 눈으로는 낱말 찾기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모든 참가자가 진동이 강할 땐 낱말을 잘 찾지 못하고, 진동이 약할 땐 잘 찾는 모습을 보였다. 시각 자극을 완전히 없애면 촉각 자극이 높아지는 것. 어디 영화에서 분명히 서로가 눈 부셔서 눈 감는 거라던데, 결국 키스에 집중하려고 눈 감는 거였다. 이과 새끼들 내 감성 존나 깨부수네.

## 키스할 때 맛을... 느낀다고?

키스하면 섹스해야지 맛은 무슨 맛이냐고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여자는 안 그렇단다. 미국 뉴욕주립대 심리학자 고든 갤럽 교수팀이 대학생 1,041명을 인터뷰해서 얻은 결과다. 여자는 키스할 때 테스토스테론 맛과 페로몬 냄새에 포인트를 두는데, 그것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얻어 본인과 잘 맞을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한테는 테스토스테론 말고 트워스 같은 맛 나면 좋겠다. 트워스 개념맛.

**2**

## 키스는 분위기가 전부다

키스까지 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면 분위기가 구렸던 건 아닌가 떠올려 봐라. 미국 라파예트 대학 웬디 힐 교수는 15쌍의 커플이 키스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봤다. 그런데 성적으로 흥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남자만 올라갔다. 여성은 키스할 때 옥시토신이 나오려면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아니 근데 실험을 대체 어디서 한 거야 시발.



## 자주 빡칠 땐 키같이 해답

현대인에게 필수 항목이니까 주목해라. 스위스 취리히대학 비아트 딘 박사팀은 결혼을 앞둔 독일 커플 51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키스를 포함한 스킨십이 많은 커플이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을 발견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 각종 애정 어린 스킨십으로 수치를 내릴 수 있다고. 면접 때 본인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물으면 이제 “키스를 갈깁니다”라고 대답하자.



## 사탕 키스 말고 초콜릿 키스 ㅋㅋ

어쩌면 초콜릿이 최강의 치루 치료제가 될 수도 있겠다. 영국 석세스대학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가 남녀 12명과 진행한 실험으로 얻은 결론이다. 연구는 초콜릿을 먹었을 때와 키스를 할 때의 심박수, 그리고 두뇌 활동을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연구 결과 키스보다 초콜릿 먹을 때의 흥분도가 4배나 높았다. 그럼 초콜릿 먹으면서 하면 키스만 해도 싸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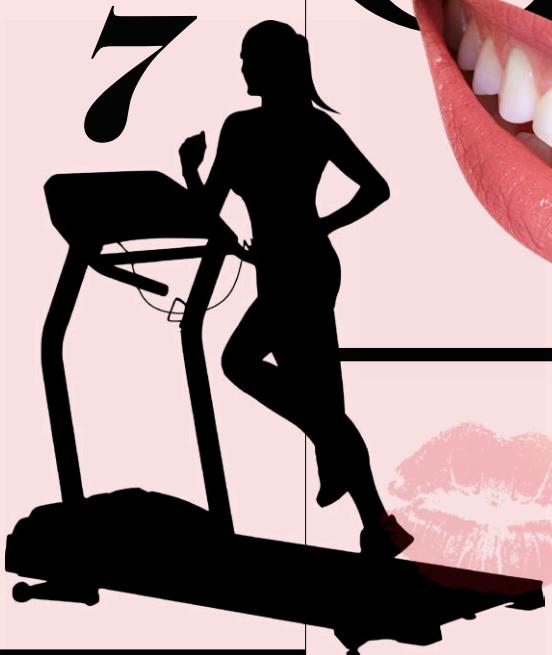


유산소 운동은  
키스로 조지자

언젠가부터 헬스로 몸 만드는 게 트렌드라지만, 아무리 운동이 트렌드라고 해도 유산소 운동만큼은 하기 싫은 게 현실. 미국 킨제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런닝머신에서 시속 6km로 걷는 게 분당 5kcal 정도 소비하는데 반해, 키스는 분당 6.4kcal를 소비한다고 한다. 만나서 깔끔하게 유산소 운동 한 시간 할 사람 구합니다. 더 해도 좋고 힘

## 키스와 건강의 상관관계

키스하면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은 곳에서 듣긴 했어도 어디가 어떻게 좋다는 건지는 기억 안 날 거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 렘코 코트 박사에 따르면 키스를 10초 하는 동안 서로 약 8,000만 개의 박테리아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덕분에 서로에게 없는 박테리아가 왕래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덕분인지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드러나기도 했다.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 연구원 아서 사스보가 했던 조사에서, 출근할 때마다 아내와 키스로 인사하는 남편이 그렇지 않은 남편들보다 수명이 평균 5년이나 높았다. 8,000만 박테리아가 제 역할을 한 셈이다. 섹스도 몸에 좋다던데 같이 그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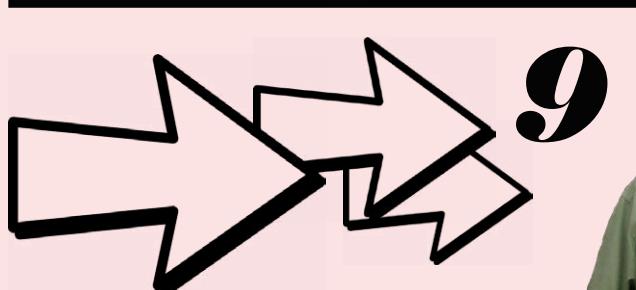
진정한 사랑의 증표, 충치

한국 인구보다 많은 박테리아를  
주고받는 게 전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렘코 코트 박사는  
키스하며 주고받는 8,000만  
박테리아 속에는 충치균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혹시 충치가 좀 있는데  
키스는 해야겠다면 에탄올로  
입안 소독 필수다. 요즘 존나  
한 거 같은데 어디 보자, 치과  
전화번호가...



안티에이징은 키스로

온갖 안티에이징 관련 뷰티 유품들이  
널렸지만 키스가 최고다. 키스할 땐  
근육이 30개나 동원되는데, 입, 턱,  
볼, 이마, 눈, 코 같은 부위의 안면  
근육도 함께 쓰인다. 잘 안 쓰던  
안면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덕에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단다. 게다가 볼 근육도 부피가  
늘어나서 동안 효과에도 탁월하다고.  
근데 근육도 운동 매일  
해야 커지는데 키스로  
안티에이징 하려면 키스  
PT 같은 거라도 좀  
해야겠다. 같이 하실?



**키스할 때 머리 방향은 오른쪽**

키스할 때 내가 머리를 어디로 돌리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걸 굳이 연구해 본 사람이 있었다. 독일 루르 대학 심리학자 오누르 권튀르肯은 미국, 독일, 터키에서 124쌍의 커플을 모집하여 키스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사람이 70%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 80%가 아이를 자신의 왼쪽으로 품고, 아이는 오른쪽을 보며 캐다라는 게 이유. 그래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다. 근데 연구 결과보다 124쌍이 키스하는 걸 지켜본 저 사람이 더 신기하네.



# 죽음의 키스

 내가 키스를 왜 안(못) 하는 줄 알아?  
무병장수의 꿈이 있어서야! BY 채희진



## 알약 키스를 시도했다간? 사망!

미국 테네시 주립 교도소에서 마약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슈아 브라운. 2022년 2월, 그를 면회하기 위해 레이첼 달라드가 찾아온다. 그녀는 면회 시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브라운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퍼부었다. 두 사람의 입에선 혀와 아밀라아제뿐만 아니라 알약이 담긴 작은 풍선이 뒤섞이는데... 정체는 약 14g의 마약. 브라운은 뚱으로 마약을 산 후 다시 삼킬 계획이었지만, 이는 실패하게 된다. 알약 풍선이 배속에서 그대로 터져버리고 만 것. 출소까지 7년을 남긴 브라운은 그날을 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 인사람시고 키스하면? 사망!

키스 때문에 8일밖에 살지 못한 아이가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아비게일의 딸로 태어난 알리사 로즈. 태어난 지 36시간이 지날 무렵, 로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의사의 진단명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발병하면 피부 둘집, 발진, 뇌염 등 치명적인 증상으로 이어진다. 이후 로즈는 몸에 수십 개의 링거 주삿바늘을 꽂았고, 점차 숨소리가 희미해지며 결국 세상과 이별해야 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지인으로부터 시작됐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란 걸 몰랐던 이의 반가운 인사는 마지막 안녕이었다고.



## 키스 마크 함부로 남기면? 사망!

2016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 17살 소년 훌리오 마르시아스 곤살레스는 여자 친구와 뜨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가 무르익던 찰나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그.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만다. 부검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키스 마크로 밝혀졌다. 여친이 키스 마크를 남기며 독이라도 심었던 걸까? 데이트 당시, 7살 연상인 여자 친구는 곤살레스의 목에 진하게 키스 마크를 남겼다. 이때 너무 강하게 뺨이들인 나머지, 피가 응고돼 혈전이 생겼다. 이는 차츰 뇌로 흘러 들어가 뇌경색을 일으켜 곤살레스를 세상과 작별시켰다.



## 숨 못 쉬며 키스하면? 사망!

2005년, 캐나다 퀘벡주에 사는 크리스티나가 1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데이트 9시간 전에 땅콩버터 과자를 먹었다는 그녀의 남자 친구. 그로 인해 크리스티나는 키스하는 중에 땅콩 알레르기가 호흡 곤란을 일으켜 죽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1년 뒤, 그녀가 뇌 산소 공급 부족으로 사망한 것이 밝혀진다. 평소 크리스티나는 천식도 앓고 있었다. 남친과 격정적으로 키스하자 호흡 곤란이 심해졌고, 뇌에 산소 공급량이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홍콩행을 기대한 키스는 무지개다리행 키스가 되어버렸다.



### 첫 키스 무작정하면? 사망!

2009년 4월, 당시 18세였던 젬마 벤자민은 웨일스 남부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필드하키와 수영 선수를 할 정도로 피지컬이 뛰어났지만 마음만큼은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인 소녀였다. 그런 그녀 곁을 항상 지킨 건 남자 친구 다니엘 로스였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두 사람은 집에서 연애 3개월 만에 첫 키스를 하게 된다. 뜨겁게 타올랐던 두 사람의 키스는 성냥처럼 재빨리 식어 버리고 마는데... 젬마가 갑자기 눈을 감으며, 거품을 물고는 쓰러져 버린 탓이었다. 다니엘은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오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인은 성인 돌연사 증후군. 당시 영국에선 해마다 500여 명이 성인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또 구급 대원이 키스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가벼이 여겨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도 그녀의 사망에 한몫했다고 밝혀졌다.



### 난간에서 껴안고 키스했다간? 사망!

새벽 1시에 폐루 쿠스코의 한 클럽에서 나온 헥터 비달과 메이베스 에스피노자 커플. 두 사람은 동네 명소인 베들레헴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키스를 시작했다.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이윽고 올라가 앉고, 남자 친구인 헥터의 허리를 다리로 감싸 안는 메이베스. 그리고 그 순간 논개처럼 서로의 몸을 끌어안은 채 다리 밑으로 추락하고 마는데... 2019년에 난간 키스 중에 발생한 이 사고로 커플은 15m 다리 아래 도로로 떨어져버렸다.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황급히 구급차에 태워 이송했지만 두 사람 모두 끝내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만다.



### 양치 안 하고 키스하면? 사망!

2012년, 캐나다에 사는 스무 살 미리암 두크레 르메이는 남자 친구와 파티를 다녀온 후 방 안에서 짠한 키스로 여운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키스가 지나치게 격했던 것일까. 르메이는 급격히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더니 쓰러지고 만다. 남자 친구는 신속하게 구급대에 연락 후 심폐소생술까지 시도했지만, 그녀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망 원인은 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가 고파서 파티장에 플레이팅 된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집어 먹은 남자 친구. 하나, 르메이는 평소 땅콩 알레르기를 심하게 앓고 있었고, 이날은 파티를 위해 응급약도 챙기지 않았다. 그의 입에 남은 땅콩이 그녀를 위협하고 만 것이었다. 땅콩을 먹고 양치를 하지 않은 채 키스한 것이 그녀를 뇌 산소 결핍증으로 인한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했다.



### 운전 중에 키스한다면? 사망!

2015년 영국 서머싯에서 새벽 2시까지 술자리를 즐기던 크레이그 첸트. 그는 자리가 파하자, 조수석에 여자 친구인 케이티 배그웰을 태운 뒤 음주 운전으로 귀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은 도로 위에서 쉼 없이 비틀거렸다. 그리고 이내 강을 향해 들진하고 만다. 단순 혈중 알코올 농도 때문은 아니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크레이그가 무작정 여친에게 키스 어택을 감행했고, 중심을 잃은 차가 그대로 강으로 미끄러져 버린 것이다. 그는 빠져나왔지만, 케이티는 물에 빠진 차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의사하고 말았다.

## WORLD RECORDS



#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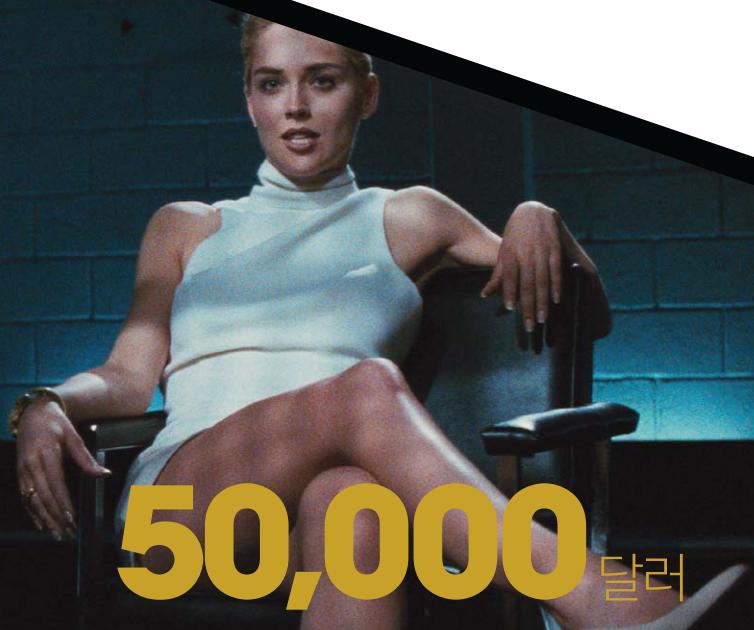
분  
초

### 숨 참고 LOVE DIVE

고작 4분 6초 키스해놓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커플이 있다.

그냥 키스는 아니었다. 2023년 2월 4일, 프리다이버 커플인 베스 닐과 마일즈 클루티에가 물속에 들어가 숨통 끊기기 직전까지 키스해서 4분 6초를

기록했다. 이날 3분 24초였던 종전 최고 기록이 13년 만에 깨졌다. 왓더... 일반인이 잠수로 프리다이버를 어떻게 이겨요!? 애네가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2주 동안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훈련까지 했단다. 아주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네.



# 50,000

달러

### 가장 사치스러운 키스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랑 키스하고 싶다면 돈 개같이 모아야겠다. 2003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에이즈 환자를 위한 자선 경매에서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과의 1회 키스권이 50,000달러(약 6,700만 원)에 팔렸거든.

이걸 누가 산느냐? 조니 림이란 미국 남성이다. 전설적인 섹스 심볼과 키스하기 위해 차 한 대 값을 쾌척하면서, 키스에 미친 놈으로 기네스북에 박제 당했다. 기부도 하고 여배우랑 키스도 하고 손해 볼 것 없는 장사이긴 하다만, 5만 달러짜리 키스 후기는 남기고 가셔야죠!!!

## 키네스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른 별의별 KISS...

BY 배주영

# 58 25 시간 58

분  
초

###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키스

이게 찐 사랑이지! 2013년 2월

14일, 태국 파타야의 한 박물관이 주최한 키스 대회에서 태국인 커플 에카치 티라나랏과 락사나 티라나랏이 58시간 25분 58초간 쉬지 않고 키스해 세계 최장 시간 키스 기록을 달성했다. 까짓거 나도 나가볼까? 라고 생각했다간 큰코다친다. 키스하는 내내 서

있어야만 하고, 잠시라도 입술을 떼면 탈락이거든. 이 양반들은 이를하고도 반나절 동안 물고 뻐느라 잠도 못 잔 건 물론이고, 화장실 갈 때도 입술을 맞대고 있었단다. 뚩 싸면서 키스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해야 하는 걸까?



# 131 번

## 짧고 강렬한 1분 키스

키스에 목말라 있다면 이 남자한테 도전장 내밀어 보는 것도 좋겠다. 2014년 10월 9일 일본 도쿄에서 구리하라 시코라는

양반이 1분 동안 131번의 키스를 받아 세계 신기록을 세웠거든. 1분에 131번이요? 적어도 1초에 2번 이상 키스한 셈인데 존나 부럽다...고 생각할 것 없다. 상대방도 다 같은 남자였으니까! 남자 여럿이서 순번 뽑고 번갈아 가며 츄릅츄릅, 쯔쯧... 어쩐지 키스 받는 사람치곤 표정이 안 좋더라. 상대가 여자였으면 더 좋은 기록 나왔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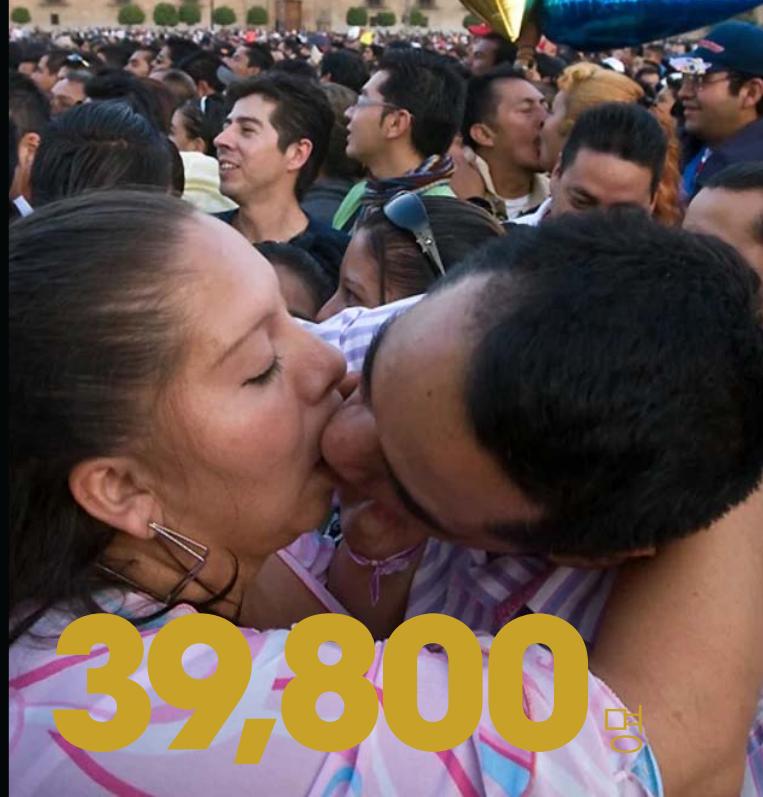
# 6 분

## 가족이랑 보지 마세요!

엄마 아빠랑 보면 어색해지는 영화 <키즈 인 아메리카>. 여기에 기네스 세계 기록까지 보유한 6분 44초짜리 최장 시간

# 44 초

키스신이 등장한다. 미국의 급식들이 자유와 권리로 되찾기 위해 씹선비 교장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물론 영화를 다 봐도 엔딩 크레딧에 주인공 커플이 6분 44초 동안 키스하는 것만 기억에 남을 거다. 하여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징일 물고 빨고 앉았으니, 교장이 씹선비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지. 떼窈!



# 39,800 명

## 역대급 동시다발적 키스

이때 솔로였던 사람들 기분 좋 같았겠다. 2009년 2월 14일 멕시코에서 벨린타인데이를 맞아 ‘동시 키스 행사’를 열었거든. 이날 무려 39,800명이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 모였는데 동시에 10초 이상 키스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단다.

동시에 이 분야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07년 영국의 32,000명 동시 키스 기록까지 박살을 내버렸다고. 아주 그냥 나만 빼고 별걸로 다 기록을 깨는구나 십팔?



# 현타와도 괜찮아! 셀프 키스법



그래... 할 사람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BY 김한솔 ILLUSTRATION BY 미스맥심 고아라



## 자가 구강 활용법

1. 자신의 두 입술을 입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
2. 윗니와 아랫니로 밀어 넣어진 입술을 살포시 문다.
3. 제 입술을 남 입술인 것처럼 생각하며 혀로 살며시 키스를 조진다.

\*후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모멸감은 물론이고, 타인과 키스하는 느낌도 별로 나지 않았다.

## 맥스봉 소시지 활용법

1. 맥스봉 소시지를 2개 구입한다. 비슷한 소시지도 가능.
2. 포장을 뜯고 소시지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게 만든다.
3. 두 개를 맞대어 입술처럼 만든다.

다음, 키스를 조진다.

\*후기: 말캉말캉한 질감이 제법 비슷하지만, 소시지 맛과 향이 너무 적나라한지라 물입이 잘 안된다. 맛있어.



CHU~

## 구강 및 손목 활용법

1. 자신의 손목을 다른 손으로 꽉 움켜쥔다.
2.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은 다음, 손목 안쪽에 도톰하게 살이 잡혀 올라오게 만든다.
3. 살이 잡힌 곳을 입술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스를 조진다.

\*후기: 의외로 입술과 비슷한 촉감이 난다. 하나, 악을 쓰고 팔목 안쪽을 쥐고 있는 내 모습을 거울로 보니 눈물이 났다.

## 트롤리 키스젤리 흡차법

1. 트롤리 키스젤리를 구입한다.
2. 포장을 뜯고 젤리를 깨낸다.
3. 젤리를 입 안에 넣고 천천히 굴리거나, 치아로 살짝 물고 혀를 대며 날름 날름하면서 키스를 조진다.

\*후기: 달달한 딸기 우유 맛. 생각보다 혀의 촉감과 비슷하다. 젤리 곁에 있는 설탕 알갱이 코팅이 녹으면, 진정한 극락으로 진입한다. 남의 입술 필요 없어, 하하!





맥심의 전역 인증 1년 무료 구독 혜택

## 현역 군 간부까지 확대

“당신의 복무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 중인 한 독자가  
맥심에 사연을 보냈다. 요지는 ‘왜 병사만 혜택을  
주느냐, 더 오래 복무하는 간부에게도 달라?’는 것.  
그래서 당장 시작한다. 이제 임관한 지 18개월 넘은  
부사관 및 장교도 무료 구독의 혜택을 누린다!

- **신청 자격:** 임관한 지 18개월 이상 된 현역 군 간부
- **혜택:** 1년 무료 구독 + 2년째부터 평생 40% 할인
- **신청 방법:** 임관 사령장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접수처:** 맥심 홈페이지([maximkorea.net](http://maximkorea.net)) 메뉴  
'게시판(BOARD)' ▶ '전역인증'에서 신청서 작성



# 키스의 과학

키스를 더 많이, 자주 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BY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권상진



요즘은 워낙 성에 빨리 눈을 뜨기에, 10대 학생조차  
키스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호기심만 없을 뿐, 여전히 키스는 젊은 남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다. 이번 6월호에선 우리가 어째서 더  
자주 키스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살펴보자.



## 키스는 건강에 좋다?

칼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살펴본 자료는 바로 국내 학술연구였다. 아쉽게도 국내 논문 중 키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단 한 편도 없었다. 여담이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늘 아쉽다. 아마도 어떤 학자가 자신의 관심 연구 주제를 ‘키스’라고 한다면 학계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연구할 주제나 영역이 없나?” 라며 싹안경을 끼고 비꼬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해외 학계가 국내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진척, 새로운 영역을 효과적으로 개척하는 이유는 위처럼 연구 주제 선정의 ‘금기’가 없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돌아오자. 그럼 해외에선 키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을까? 당연하게도 다양한 분야에서 키스의 긍정적 효과를 연구했다. 1993년 노인병에 관한 학술지에서는 키스가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언급했으며, 1990년 심리행동 학술지에선 키스가 육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효과적이라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키스는 면역력을 강화한다’, ‘키스는 기침을 예방한다’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 모두 1990~2000년대 해외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의 일부다.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좋고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특급 백신이 키스라면, 당연히 이를 권장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키스가 면역력에 좋으니 무조건 자주 하자’라고 졸라댄다면 험한 말을 듣기 쉽다. 키스의 효능을 팔아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시커먼 속내를 좋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키스의 순기능과는 별개로 어떤 사람이 키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좋아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키스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키스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무작정 조르면 곤란하다. 어떤 이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키스를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이는 여전히 정신적 사랑의 위대함을 더 중시할 수 있으니까. 해당 이슈와 관련, 2013년 성(性)적 행동 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던바(Robin Dunbar) 교수는 연인 관계에서 키스의 잠재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이들이 키스를 더 중시하는지 살펴봤다. 총 902명(남자: 308명, 여자: 59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첫째, 연인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키스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여자에 비해 키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이색적이었다. 즉, 매력적인 여자들은 연인 관계에서 키스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들은 함부로 하는 키스를 싫어한다.

둘째, 자주 키스할수록(빈도) 그리고 키스한 횟수가 많을수록(양) 남녀 모두 연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더욱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밀감이 형성된 이후 더 자주 키스할수록 연인 관계가 돈독해진다. 그러므로 정신적 사랑이 중요하다며 키스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녀)를 피해야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셋째, 교제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자는 키스의 의미와 중요도를 남자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연인을 바라보는 여자들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키스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한다. 상대의 애정을 확인하는 매개체로 키스를 인식하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키스와 달리 섹스한 횟수가 많다고 해서 연인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를 통해 키스의 빈도와 양이 늘록 연인 사이의 애정이 깊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섹스의 빈도와 양이 많다고 해서 연인에 대한 애정이 강해지는 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에선 키스가 섹스보다 우위에 있다.

“  
섹스보다  
키스를 더 많이,  
자주 했을 때  
연인과의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사랑에는  
키스가 섹스보다  
우위에 있다.”





## ‘순수한 동기’가 중요하다!

드라마, 영화를 보면 처음 본 남녀가 느닷없이 키스하고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현실에서도 허락이나 동의 없는 키스에 사랑의 감정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캐나다 뉴브론즈윅 대학의 심리학과 설리번(Sullivan) 교수도 이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130명의 남녀에게 설문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022년 성(性)에 관한 유명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도둑맞은 키스(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키스)’에 대해 남자와 여자는 각각 어떻게 인식할까?

연구 결과, 남자는 여자보다 도둑맞은 키스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인식’한 경우, 즉 ‘썸’ 타는 관계라면 선제적으로 키스한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논문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키스할 경우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혼자만의 사랑을 믿고 박력 있게 키스하면 경찰서에 갈지도 모른단 얘기다.

그리고 중요한 교훈 하나. 사람들은 키스할 때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동기를 접근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키스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한다. 누구나 상대가 나를 ‘욕구 충족의 대상’ 또는 ‘키스라는 성적 행위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키스를 시도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이다.

즉, 우리는 상대에게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동기가 느껴져야 입을 열고 다가선다. 그/그녀의 입을 여는 건 순수한 동기다.

## 키스 권하는 사회

앞서 말했듯 키스는 정신과 육체 모두의 건강에도 좋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타인과의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포옹, 키스를 갈망한다. 사랑하는 이와의 키스는 우리의 건강을 강화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면역력과 같다.

자주 키스할수록 연인과의 사랑이 돈독해진다. 누군가는 남녀 관계에서 키스보다 섹스가 더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섹스보다 키스가 더 큰 긍정적 심리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연구는 무수히 많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길거리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젊은 연인에게 인상을 구기고, 이런 행동에 색안경을 끼는 분위기가 조금씩 유연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키스도 순수한 동기와 진실한 애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리타분할지 모르지만,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키스라는 행위 자체보다 상대의 순수한 동기, 상대와의 신뢰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더 많이 키스해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예방의학이자 지름길이다. ☺



사람은 상대에게  
진실한 마음이  
느껴질 때  
마음을 연다.  
사랑하는 이의  
키스를 부르는 건  
당신의 순수한  
동기다. ☺

# 제3회 MAXIM PLUS SIZE MODEL CONTEST



“  
**육덕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다**  
”

공동 주최·주관사:

KMA(한국 모델 협회),

MAXIM KOREA

일정: 2023.7.8 오후 5시 (입장: 오후 4시 30분)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송파구 올림픽로 448)

## TICKETING FOR EARLY BIRD

맥심의 현직 모델들과 셀러브리티가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

- 정기구독자 우선 예매: 2023년 5월 10일(0시) ~ 5월 14일까지  
(정기구독자 등급 M 이상 회원만 가능, 최대 할인 적용)
- 일반 대상 얼리버드 할인 예매: 2023년 5월 15일 ~ 5월 31일까지  
(얼리버드 기간 중 전 좌석 매진될 경우, 6월에는 예매를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예매처: 맥심 홈페이지(maximkorea.net) '쇼핑' 메뉴 ▶ 티켓 예매

섹시함은 마른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건강함이 발산하는  
진정한 관능미에 관하여  
고정관념을 깨고 미의 기준을  
새로 쓰는 세 번째 걸음



**키스할 때 써먹지도 못하는 혀가  
긴 이유는 꿀 빨고 살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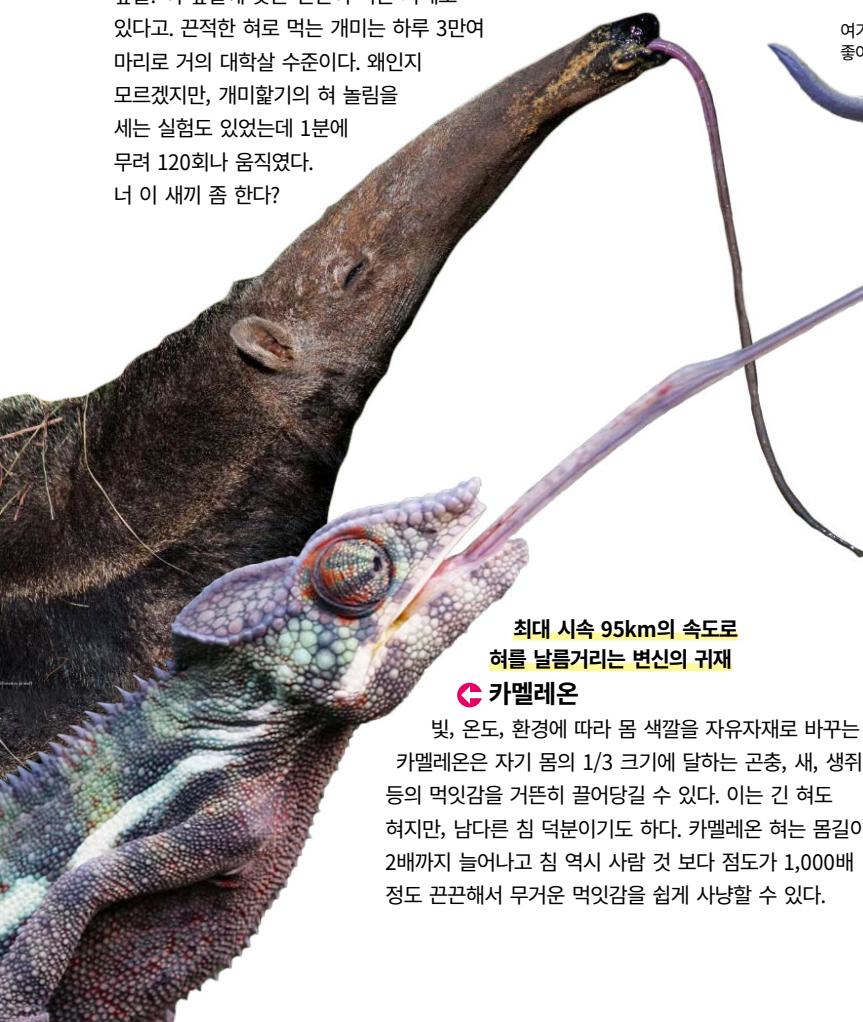
#### ◀ 박쥐

몸에 비해 혀가 약 1.5배 더 길다는 박쥐. 이런 혀바닥은 이성과 키스할 무렵 혼나 비비기 위해 그렇게 긴 건 아니고... 꽃의 안쪽까지 혀를 쑥 집어넣어 꿀을 쉽게 빨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온혈 동물인 박쥐는 곤충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식량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섭취해야 해서 혀가 그렇게 진화한 것.

**생긴 건 지밥 같지만  
약해 보이는 건 사실 연막!**

#### ◀ 개미핥기

'혀' 하면 생각나는 개미핥기. 멍청하게 생긴 외모로 혀를 쭉 빼 개미굴이나 들쑤시는 모습을 보통 떠올린다. 그 개미굴 부술 때 쓰는 강력한 앞발! 이 앞발에 맞은 인간이 죽은 사례도 있다고. 끈적한 혀로 먹는 개미는 하루 3만여 마리로 거의 대학살 수준이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개미핥기의 혀 놀림을 세는 실험도 있었는데 1분에 무려 120회나 움직였다. 너 이 새끼 좀 한다?



**최대 시속 95km의 속도로  
혀를 날름거리는 변신의 귀재**

#### ◀ 카멜레온

빛, 온도,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카멜레온은 자기 몸의 1/3 크기에 달하는 곤충, 새, 생쥐 등의 먹잇감을 거뜬히 끌어당길 수 있다. 이는 긴 혀도 혀지만, 남다른 침 덕분이기도 하다. 카멜레온 혀는 몸길이의 2배까지 늘어나고 침 역시 사람 것 보다 점도가 1,000배 정도 끈끈해서 무거운 먹잇감을 쉽게 사냥할 수 있다.



**기린+얼룩말=유니콘?**

#### ◀ 오카피

상하반신을 따로 떼어놓고 봐야 익숙한 동물 오카피.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마냥 상반신은 민무늬, 하반신은 얼룩무늬로 생긴 건 기린과 얼룩말이 통정하여 낳은 놈 같은데, 이종교배의 결과물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겼다. 나뭇잎, 과일, 풀 등을 주로 먹고, 높은 나뭇가지에 달린 이파리를 60cm가 넘는 혀를 활용해 따먹는다. 또한 이 긴 혀로 눈과 귀, 얼굴과 몸 곳곳을 핥으며 털을 정리한다. 독특한 외양은 물론이고 혀는 하필 또 보라색이라 더 신기한 모습인데, 덕분에 아프리카에서는 '유니콘'이라는 별명까지 있다. 혀에 피가 안 통하나?



**◀ 혀바닥이 길어서 키스까나  
잘할 거 같은 동물들 총집합.**

BY 김한솔

여기 느낌  
좋아?



**혀가 너무 길어서  
뇌까지 감싸고 있는  
새가 있다?**

#### ◀ 딱따구리

'딱따구리'하면 광음을 내며 나무 구멍을 뚫는 모습이 떠오를 텐데, 혀 놀림에도 무척 일가견이 있다. 나무 틈이나 작은 구멍 깊숙히 박힌 벌레를 잡아먹을 때 긴 혀를 쓰는데, 혀끝에는 돌기와 끈끈한 조직으로 덮여 있어 벌레를 찍어 먹을 수 있다. 특히 이 혀는 두개골 외부를 한 바퀴 감싸고 있을 정도로 그 길이가 길다. 또한 이 혀가 들어있는 '설골총'은 딱따구리가 나무를 쫓 때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고.

# MAXIM BOX

VIP독자를 위한 프리미엄 정기배송 서비스

700,000원 ↘

- **맥심박스 1년 구독료 : 308,000원** (선불 구독)
- **맥심박스 정기결제 : 월 33,000원** (매월 19일 자동 결제)

## VIP 독자를 위한 독자 해바라기 맥심 박스!

맥심 박스에는 매달 새로운 깜짝 선물이 들어있다. 기능성 화장품, 필수 영양제, 여심 저격 향수, 신박한 생활용품부터 맥심 달력 같은 한정판 굿즈, 미스맥심 화보를 인화한 사인본 사진까지! 맥심에서 센스 있게 선정한 아이템이 찾아간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특별하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지금부터 맥심이 여친처럼 아내처럼 쟁겨줄 테니 바쁜 당신은 그냥 달게 받아라.  
(1년 기준 70만 원 상당의 상품 구성)

## VIP면 VIP답게 투표하자!

매년 맥심의 새 얼굴을 결정하는 미액콘 투표. 맥심박스를 구독 중인 VIP 독자는 일반 독자보다 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방에 빙!

## VIP가 표지 고민을? 노노!

정기구독자 전용 한정판인 맥심 S타입과 일반 서점 판매용 맥심. VIP는 두 가지 표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는다. 맥심박스엔 두 가지 버전 잡지가 다 있다. 책 속 부록 브로마이드도 정기구독자 한정판과 일반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 S타입이 언제나 더 아찔한 건 다들 알고 있지?  
신청은 맥심홈페이지에서.  
[maximkorea.net](http://maximkorea.net)



MAXIM 6월호

정기구독자 전용 S타입  
일반 서점 판매용 B타입



### 멘톨로지 슈퍼쿨 바디미스트 (200ml)

몸에 뿌리는 쿨링 미스트가 왜 필요하냐고? 등드름 몸드름 있다면 일단 써봐. 그게 다 피부열 때문이라고. (30,000원)

미스맥심 박근나가  
인화한 원본  
아날로그 사진  
직접 찍은 듯한  
아날로그 감성  
옛날식으로 인화한  
4×6인치 사진  
+박근나 손글씨 사인

6월  
맥심 박스 상품 구성



### 엠도씨 블랙헤드 필 오프 팩 (100g)

자세히 보면 환공포증 생기는 흉칙한 너의 코... 이제 여자랑 얼굴 초근접해도 자신감 넘치게 해주마. (15,000원)



### 이즈앤팩트리 어니언 뉴페어 젤 크림 (50ml)

여드름이나 트리블 잘 나는 피부라면, 트리블 흔적까지 없애준다. 특별히 토너패드도 2장 즐겨. (32,000원)

# 애들의 키갈 이유



인간만 갈기란 법 있나?

BY 배주영



키스해서  
잠금 해제  
프레리도그

남아메리카 등지에  
사는 프레리도그는  
집 밖에서 마주치면 일단  
키스부터 갈기고 본다. 서로 앞니를 맞대면  
자기 구성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려는 프레리도그가 있으면  
냅다 입술 박치기부터 한 다음 신분을 확인하는  
식이다. 만약 자기 팜이 아닐 경우, 입 떼자마자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다고. 그래도 키스까지 한  
사이면서 너무 야박하네!

입 벌려! 토사물 들어간다

개미

개미는 입이 심심하고 허기질 때마다 키스한다. '사회위'라는 기관에 자신이 먹은 음식물 일부를 쟁여두었다가, 배고픈 개미를 마주쳤을 때 입을 맞대고 우욱... 육, 우웩! 하면서 동료의 허기를 달래 주거든. 자들끼리 토하고 또 그걸 먹는 기괴한 행위를 '영양교환'이라고 하는데, 사회성 곤충은 이런 식으로 상부상조하며 지낸다고. 사회성만큼 비워도 참 좋은 녀석들이다. 가끔 딱정벌레 같은 녀석들이 폐로몬으로 개미를 속여 토사물을 얻어먹기도 한다. 곤충 로맨스 스캠?!



코끼리 아저씨 코가 성감대래  
코끼리

코끼리는 과자도 코로 받지만, 키스도 코로 받는다. 키스에 방해되는 큰 코와 상아 때문에 입 대신 코를 감거나 비비면서 육체적인 교감을 대신해야 하거든. 4만 개의 근육과 15만 개의 근섬유로 이루어진 코끼리 코는 다른 부위에 비해 훨씬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웬만한 건 코로 다 해결한다. 상대 입속에 허 대신 자기 코를 쑤셔 넣는 방식으로 프렌치 키스도 하고, 코로 딸까지 친다니까?



사실은 키싱 다구리

### 키싱구라미

이름부터 키싱구라미다. 앤 마주쳤다 하면 키스부터 갈기고 본다. 마냥 예쁘고 귀엽다고 해서 관상어로 키울 생각이었다면 그 생각 고이 접어 날리는 걸 추천한다. 격하게 마중 나온 주동이를 맞대는 행위가 애정 표현이 아닌 수컷들이 서로 견제하는 행위란다. 이 새끼들은 놔가 키스에 절인 수준이라 종을 가리지 않고 입술 박치기를 시도하는데, 물고 빠는 과정에서 다른 개체의 심신에 다양한 해를 끼친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님? 모르는 새끼한테 키갈 당하고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



키스 없는 섹스는 없다

### 달팽이

자웅동체인 주제에도 할 건 다 하는 달팽이. 애석하게도 거시기가 얼굴에 붙어있어서 키스하는 체위로만 교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넨 섹스가 곧 키스요, 키스가 곧 섹스인 셈.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숨어있던 성기가 발기하면서 서로의 구멍을 찾아 밀어 넣기 시작하는데, 평소에는 암수 구분 없이 잘만 지내다가 이때만 성별을 정한다고. ‘내가 정자 뿐일 테니까 너가 알 낳으셈 ○ㅋ?’라는 암묵적 합의 끝에 한바탕 거사를 치르면 다시 자웅동체로 돌아간다. 하루는 수컷, 하루는 암컷으로 해볼 수 있다니.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사네.



온순한 성격의 비결이 키스?

### 보노보

모든 동물 중 유일하게 키스를 진짜 ‘키스’ 목적으로 한다는 보노보. 인간과 DNA가 98.7% 일치하는 보노보는 존나게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한다. 프렌치 키스는 물론이고 90분에 1번씩 섹스할 정도로 인생이 양 섹스다. 떡잎부터 다른 새끼 보노보들은 서로 구강성교를 주고받으면서 극락 보내주는 게 일상일 정도. 화해할 땐 사과 대신 상대의 페니스를 잡고 문질문질하며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래서인지 보노보가 영장류 중에서 가장 온순하다. 역시 화해에는 섹스만 한 게 없지!



## LONG-TONGUE CONTEST

## 샛바닥 배치고사

**브론즈**  
(20cm 이하)



## ↑ 라트렐 &lt;화이트 칙스&gt;

여기 괴물들 사이에서나 쪼렙이지 인간계에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큰 혀를 가진 라트렐 스펜서. 백인 미녀로 분장한 두 흑인 남자에게 폭 빠진 그는, 자신의 크고 두툼한 혀에 모든 여자들이 환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라트렐이 아니라 테리 크루즈(배우) 혀가 사기인 거 아냐?

**실버**  
(20cm~50cm)



## ↑ 자레드 &lt;블레이드2&gt;

본래 뱀파이어는 인간의 피만 먹고 사는 범인데, 유전자 실험으로 만들어진 돌연변이 자레드 노막은 인간은 물론 뱀파이어의 피도 빨아먹는 피먹방계의 쪽양이다. 평소에는 그냥 건성 피부의 빽빽이 아저씨로 보이지만, 분노하여 흡혈 공격을 할 때는 개구리를 끈 듯 입이 양쪽으로 찢어지며 개불처럼 생긴 혀를 꺼낸다.

**골드**  
(50cm~1m)



## ↑ 베놈 &lt;베놈&gt;

어디서 혀 좀 내밀어 봤다~ 하는 캐릭터 중 현시점 최고의 인싸. 외계 생명체 심비오토가 인간을 잠식해 만들어진 베놈은 턱뼈가 없는 듯 크게 벌어지는 입과 수많은 이빨, 그리고 긴 혀가 트레이드 마크다. 다른 괴물들은 보통 혀를 주공격수단으로 삼는데, 얘는 존재 자체가 사기라 혀는 그냥 간지용인 듯.

## ◆ 세스 &lt;플라이&gt;

과학자 세스 브런들은 생명체를 텔레포트 시킬 수 있는 기계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딸려 들어간 파리와 유전자가 섞여버린다. 처음엔 운동 능력이 하이로급으로 강해져 좋아하지만, 점차 생김새도 파리로 변해가는 바람에 이성을 잃고 여친마저 공격하는 빌런으로 변모한다. 시팔, 거미랑 섞인 놈은 멀쩡하드만!!



## ◆ 베텔게우스 &lt;비틀쥬스&gt;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승에서 놀고먹는 짬킹 지박령. 하도 오래 살아서(?) 인자 범유령들은 엄두도 못 내는 기상천외한 초능력을 다양히 갖고 있다. 수십 갈래의 혀를 내밀어 겁을 주는 건 기본이고, 아예 괴물 뱀으로 변해 인간 여자를 납치하려 들기도 한다. 하여간 사내새끼들은 뛰쳐도 똑같어.



## ◆ 바이올레이터 &lt;스폰&gt;

염라대왕의 오른팔인 바이올레이터는 사실 히드라리스크를 닮은 거대 괴물이지만, 이승에서는 살찐 타노스를 닮은 광대로 위장해 살아간다. 배트맨의 조커와 마찬가지로 항상 유쾌하고 수다스러운가, 그렇기에 더욱 섬뜩하다는 점 또한 흡사하다. 근데 변신 능력도 있는 놈이 왜 하필 저따위로 위장한 거야?



그만 혀~



혀가 가장 긴 영화 캐릭터는 누구일까? 기준은 에디터의 눈썰미다. 츄릅. BY 윤정도

## 마스터 (1m~20m)



### ↑ 토드 <엑스맨>

베놈이 떡상하기 전까지 마블 영화에서 '혀' 하면 이 형이었다. 개굴개굴 열매를 먹은 듯 두꺼비의 능력을 탑재한 토드는 길고 강력한 혀와 끈적한 점액을 이용해 전투한다. 엑스맨 멤버 전체와 호각으로 싸우고 유사시엔 헬기 조종까지 하는 등 극 중 최대 능력자이지만... 스톰의 번개 한 방에 두꺼비 튀김이 되고 만다.

## 그랜드마스터 (20m 이상)



### ↑ 말콤 <굴리스>

악마를 숭배하던 말콤 그레이브스. 세월 앞에 오타쿠 없는지라 요절했는데, 애비 닮아 오컬트에 환장하는 효자 조나단이 말콤을 무덤에서 되살려낸다. 얼레? 한번 죽고 살아나니 겁나 긴 혀와 함께 여자로 변신하는 능력도 생겼네? 사기캐로 부활한 말콤은 아들 포함 아들 친구들을 모조리 제물로 바쳐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 측정 불가 (??????)



### ↑ 아귀 <타짜>

"시발 천하의 아귀가 혀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인생 단맛 쓴맛 뚱맛까지 다 먹어본 주인공 고니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일단 보통 혀가 아닌 건 확실해 보인다. 다만 제작비의 문제인지 원지는 몰라도 극 중에서는 그의 전체 혀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날 밤, 과연 고니는 무엇을 본 것일까.



### ↑ 캔디 <킬러 텅>

한 마을에 해성이 떨어지고, 우연히 외계 파편이 여주의 밤상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 여주는 독립 자아가 있는 졸라 긴 혀를 갖게 되고, 그녀의 강아지 네 마리는 트랜스젠더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스토리다. 애매하게 짜치면 쌍욕 박고 잊겠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본격적으로 짜쳐버리니 오히려 매력적이야.



### ↑ 나무요괴 <천녀유혼>

이 바닥 최고의 혀바닥은 뭐니 뭐니 해도 나무요괴님이시다. 다른 놈들의 혀는 시간, 거리, 속도를 고려해(사실 이것도 못함) 어림짐작이라도 하겠는데, 나무요괴의 백태 가득한 혀는 벽을 뚫고 나무를 감고 땅으로 꺼지고 하늘로 치솟는지라 사실상 무한에 가깝다. 담배 떨어졌을 때 편의점 갈 필요 없음. 개꿀.



# 키스할 사람 모여라!



아직 첫 키스 못 해본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드세요.  
입술이 즐거운 여행지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BY 채희진



## 단돈 1달러! 개랑 키스할 마지막 찬스!

2014년 8월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이색 부스가 마련됐다. 단돈 1달러만 내면 키스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개다. 평소 개를 키우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됐던 이들을 위해 침 칠칠 흘리는 개가 스윗하게 헛바닥을 굴리며 키스해 준다. 개 키스 이벤트는 유기견 입양 인식 제고와 기금 모금을 위해 동물보호 단체와 인디애나주립대가 준비한 것이라고. 참여한 개는 어찌나 헛바닥 드리블이 좋은지 건성 피부도 극지성이 될 정도로 침을 발라준다. 저도 술만 마시면 개가 된다는 소리 듣는데, 저랑 키스하실 분 없나요? 1달러 제가 받... 아니, 드릴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주우면 키스해 드려요

키 170cm에 슬렌더 몸매, 긴 생머리, 뽀얀 피부의 미녀가 공짜 키스를 해단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쓰레기를 주워 올 것. 이 이벤트는 2010년 중국 쓰촨성 청두시 쇼핑 거리에서 실시됐다. 주최자는 대학 3학년인 리 사오허. “태연하게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보고 이해할 수 없어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주워 온 사람에게 키스해 드립니다’라는 팻말을 든 그녀는 두 시간 동안 공짜 키스로 보답했다. 예쁜데 심성까지 곱네. 워 아이 니!



## 키스 오래 하면 상금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태국에서는 해마다 키스 오래 하기 행사가 유행했다. 주로 벨런타인데이 이벤트로 진행되는 이 행사를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해진 구역 안에서 그저 선 상태로 키스를 하면 된다. 안거나 누우면 안 된다. 올라타는 것도 당연히 금지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똥 싸러 화장실 갈 때도 입술이 떨어지면 탈락이다. 만약 이 미션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우승 상금으로 한화 약 360만 원과 한 쌍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다. 이쯤 되면 경품과 키스할 생각에 군침을 흘리며 다음 행사가 언제인지 궁금해지겠지. 참고로 마지막 대회였던 2013년의 기록은 58시간 35분 58초다. 난 포기한다. 할 여자 없어서 그런 거 아님.





### 총성 대신 추루魯참참 키스 시위합시다

2011년 칠레 산티아고 한 성당 앞에 100여 명의 고등학생·대학생이 모였다. 그리고는 두 사람씩 짹을 지어 서서는 키스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플래시몹 같은 이 행사에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 박수를 보냈다. 혹시 부러워서...? 이 키스 퍼포먼스는 칠레 정부에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의 연장선이었다. 경찰의 폭력과 탄압으로 얼룩져 가는 학생 시위에서 화끈한 키스를 수단으로 한 평화적인 농성 대응을 벌인 것. 정치, 사회, 경제 등 무엇이든 불만 있으신 분께 결으로 오세요. 입으로 떠들지만 말고 우리 같이 키스하며 논쟁에 뜨겁게 불을 지펴봅시다.



### 겨우 프리 허그? 우린 프리 키스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설적인 키스 행사가 있었다. 그것도 명동 한복판에서! 2007년, 한 속옷 브랜드가 6월 14일 키스데이를 맞이해 이벤트를 진행한 것. 레이싱걸과 남자 모델은 각각 하트 모양의 'FREE KISS'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 된다. 이 행사는 속옷 홍보와 더불어 한 명의 키스당 100원씩 적립해 불우 이웃 돋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2시간 동안 여성 모델에게는 60여 명의 남성이, 남성 모델에게는 15명의 여성만이 다가와 키스했다. 당시 관계자는 "원래는 속옷만 입은 모델을 등장시키려고 했다"라고 전했다고. 사장님, 맥심도 이런 행사 열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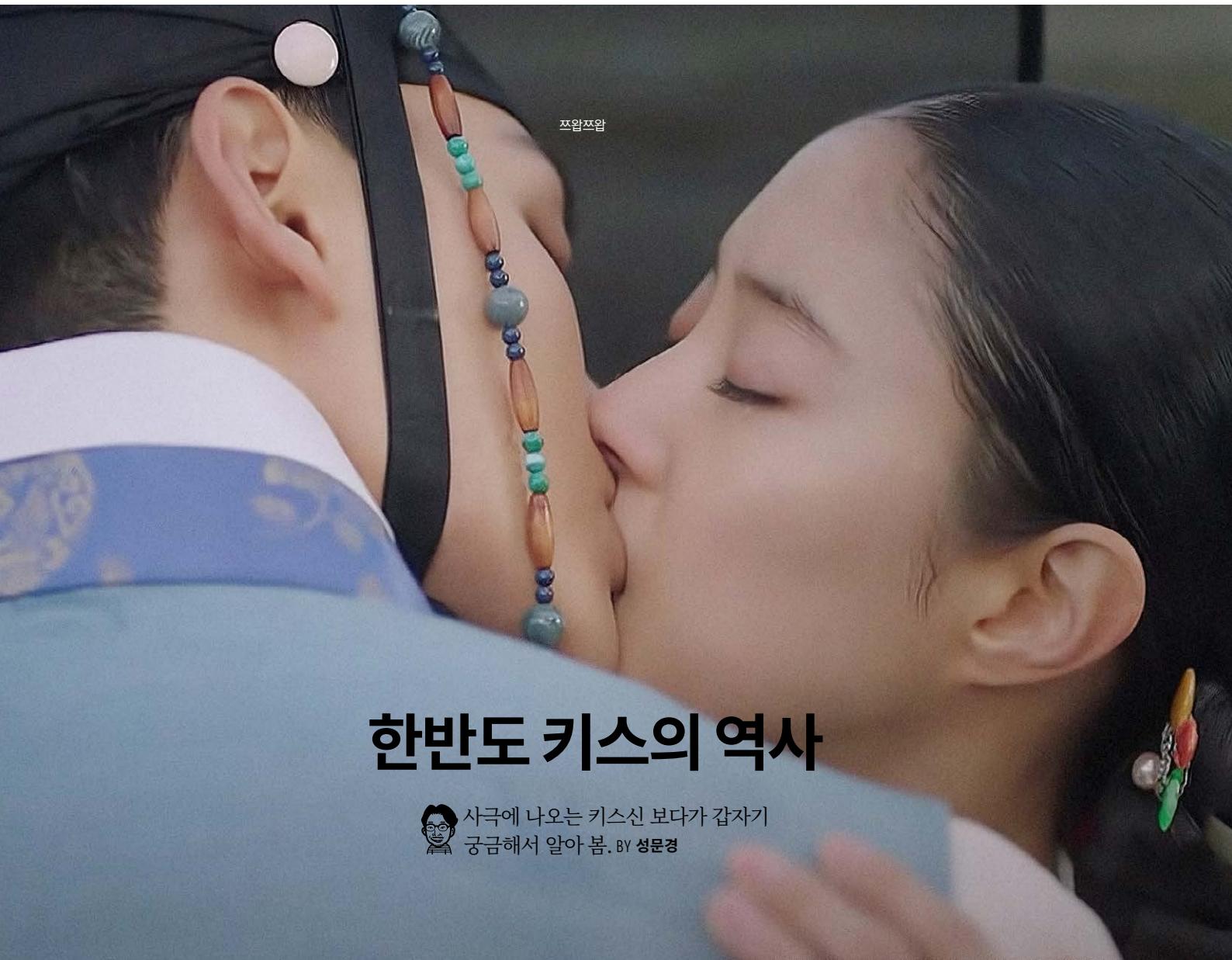
### 아이들이 해주는 이색 키스 받을 사람?

K-아이들이 우주 제페를 해나가고 있지만, 성진국 아이돌 팬 서비스를 따라가긴 이르다. 2011년 일본 대표 아이돌 AKB48은 악수회와 사진회, 포옹회 등의 이벤트와 함께 유닛 그룹의 싱글 앨범 '밸런타인 키스' 발매에 맞춰 손에 키스하는 행사까지 했었다. 성진국치고는 암전한 편이지. 그래서 걸그룹 '바나나 몽키즈'를 준비했다. 이들은 팬과 만나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키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놀랍게도 멤버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는데, 가장 어린 멤버는 겨우 14세였다. 이들의 팬 서비스가 극에 달했던 것은 상의 탈의 양치질이다. 아동에서 불법한 매직 미러 버스에서 상의를 탈의한 팬이 누우면 멤버들이 모여 양치질을 해주는 서비스다. 성진국 아이돌은 역시 클라쓰가 달라.



### 키스하고 싶으면 일단 모이고 봅시다!

2007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북동부에 있는 도시 투즐라에 무려 7,000여 쌍의 커플이 모였다. 밤 11시가 되자 도심 곳곳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되며, 종이 가루와 풍선들이 휘날리는 상황. 그리고 시작된 키스 타임. 약 10초간 진행된 이 이벤트에 참여한 커플 수는 총 6,980쌍. 이전까지 헝가리에서 6,400쌍이 동시 키스로 세웠던 기네스 세계 기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증오가 아닌 사랑의 철학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투즐라의 시장은 "연애 혁명을 시작하자"라며 못 솔로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고. 이번 휴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다. 가자! 키스... 아니, 혁명하라!



한국 드라마는 장르가 의학 드라마든 스릴러든 대부분 로맨스가 등장하는 탓에 싫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쨌든 로맨스가 이어지면 반드시 키스신으로 방점을 찍기 마련. 이런 양상은 사극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나 같은 역사 덕후는 사극을 볼 때 고증이 더럽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과연 저 옛날에도 키스가 있긴 했을까?’라는 별 쓸데없는 의문까지 품고 말았다. 한 번 궁금하기 시작하니 사후세계보다 더 알고 싶어져서 낱낱이 파헤쳐 봤다. 만약 이게 구라면 이제 사극에서 죽은 아이언맨도 되살려도 된다는 소리 아니냐?

### 그 시절 키스의 이름

키스라는 게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그 시절에 키스를 뜻하는 명칭이 있는지부터 알아 봐야 한다. 한자로 대동단결했던 동아시아 3국(중국, 한국, 일본)은 모두 공통적으로 키스를 뜻하는 한자어가 있었다. 입술을 맞댄다는 뜻의 ‘접문(接吻)’, 입을 합한다는 뜻의 ‘합구(合口)’, 입을 들이 마신다는 ‘구흡(口吸)’ 등이다. 심지어 얼굴을 짚는다는 뜻을 가진 ‘철면(織面)’이라는 말도 있었던 걸 보면 입술을 물고 빨았던 게 확실히 있었던 거 같긴 하다.

얼굴을 짚고 입을 들이마신다는 단어까지 있을 만큼 문란하기 짹이 없지만, 갓-한반도 조상님들은 감성부터 달랐다. ‘심알을 잇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마음의 노른자위를 나눈다는 속뜻을 가진 키스의 순우리말이다. 심장을 꺼내어 줄 수는 없으니 입술로 대신한다는 것 같긴 해도 이 얼마나 가륵한 표현인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멋있는 척한다고 ‘우리 합문할까요’나 ‘심알을 이어 볼까요’ 같은 개소리는 제발하지 마라.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잊자.

## 첫 키스 기록하고는...

한반도 역사에서 키스가 언급된 건 고조선부터 시작해 5,000년에 달하는 한반도 역사에서 조선왕조실록이 처음이었다. 고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삼국시대나 신라,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에 비하면 기록이 통장 잔고처럼 부족해서 키스 따위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이상하긴 하다.

어쨌든 한반도 역사에서 키스가 기록으로 처음 등장한 건 세종대왕 시절이다. 세종 18년, 아들 문종이 세자 시절 세자빈으로 들어온 봉 씨가 문종에게 사랑을 못 받는 바람에 괜한 궁녀와 놀아나고 밀았다. 그게 세종에게 걸려 문초를 받게 되자, 봉 씨는 “내가 아니라 개가 다른 애랑 자면서 목을 맞대고 혀바닥 뺄았대요. 나는 진짜 아니에요!”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 조상님들의 키스 흔적

키스가 언급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도 있긴 하다. 먼저 여자 그리는 데 진심이었던 신윤복의 ‘월야밀회’라는 그림. 애심한 밤 담벼락 밑에서 밀회를 나누는 남녀가 입을 맞대는 모습에서 그 시절에도 키스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남자 표정이 오만상이라 애매하긴 해도 키스의 흔적으로 볼만한 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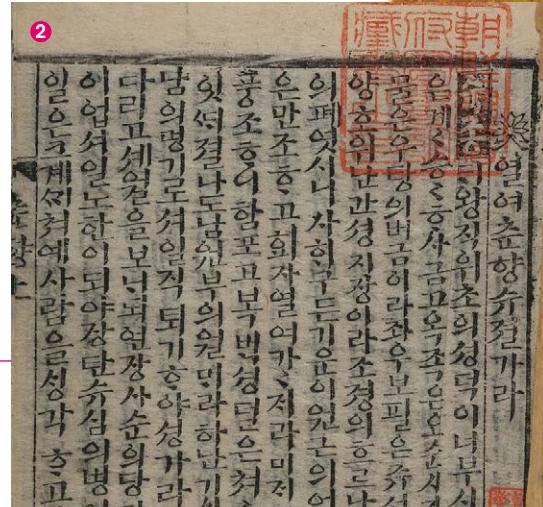
‘춘향전’에도 키스로 보이는 ‘춘향 입 내 입이 마주 닿았으니 범중 려(呂) 자가 아니냐’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려(呂)가 ‘입 구(口)’를 두 개 붙여 만들어진 글자니 이것을 비유한 거다. 원문은 이것보다 활潑 하드해서 딸감으로 좋다...

조선 때 있던 ‘고금소총(古今笑叢)’이라는 애설집에도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합구(合口)’라는 표현이 한 챕터 제목에서 나오고, ‘입과 입이 만나 려(呂) 자가 되었다’라는 춘향전과 비슷한 표현도 실려있다.

## 결국 사극은 구라

춘향전에 언급된 키스는 이몽룡과 성춘향이 섹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섹드립이고, 고금소총에 나온 키스도 다른 집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섹스로 알려주는 장면이라 로맨틱한 장면이 전혀 아니다. 키스가 처음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봉 씨가 궁녀를 데리고

세종은 “님이 안 했다면서 왜 그렇게 자세히 앓?”이라며 봉 씨를 폐출시켰다. 중요한 건 ‘혀바닥을 뺄았다’라는 언급. 전혀 로맨틱해 보이진 않아도 키스 관련 이야기가 등장한 건 이게 처음이었다. 혹시 조상님들의 혀바닥 빼는 모습이 궁금하면 영화 〈성화점〉 강추한다. 남자끼리라서 문제지...



- 1 한반도 최초의 키스 기록이 남아 있는 세종실록.
- 2 훈민정음으로 쓰인 열녀춘향수절가.
- 3 신윤복의 〈월야밀회〉.



## 뽀뽀의 탄생

뽀뽀가 처음 등장한 건 소설가 김유정의 소설 속에서다(경춘선 김유정역 그 김유정 맞다). 뽀뽀는 1933년 작품 〈산골나그네〉에 ‘입이나 좀 맞추고 뽀! 뽀! 뽀!’라는 의성어로 시작해 1939년 〈애기〉라는 작품에서 ‘문태고 뽀뽀도 하고 할 수 있는’에서 세상의 빛을 본다. 그리고 이 뽀뽀는 1961년 이희승이 편찬한 〈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공식적인 단어로 인정받았다.

SPORT

# KCC PRO BASKETBALL CLUB

KCC PRO BASKETBALL CLUB

## 농구대잔치의 영광 다시 올 날이 있을까?

관객들이 돌아왔다. 올 시즌 프로농구 10개 구단 총 입장 수익은 사상 최고액을 찍었다. 챔프전은 6경기 연속 매진에 매 경기가 뜨거운 명승부였다. 한국 농구의 인기가 다시 회복 중이다. 과연 이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BY 강산 스포츠동아 스포츠부 기자



### ▶ 농구대잔치로 시작된 한국 농구의 황금기

때는 바야흐로 1993년, 필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다. 일찍부터 프로야구에 열광했던 필자는 TV에 나오는 또 다른 스포츠에도 매료됐다. 바로 농구. 대회명도 ‘농구대잔치’란다. 농구장 관중석은 매 경기 팬들로 가득했고,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가 맞붙는 날이면 그 열기는 실로 엄청났다. ‘농구장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랐지만, “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농구대잔치에 출전했던 멤버들을 한번 돌아보자. 연예인보다 더 인기였던 연세대 서장훈, 문경은, 우지원, 이상민, 고려대 전희철, 김병철, 양희승, 삼성전자 故 김현준, 기아자동차 허재 등 슈퍼스타들이 출비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주인공들이 농구대잔치를 수놓았다. 1997년 프로화와 함께 외국인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을 때까지, 농구대잔치는 농구팬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하나의 대명사였다. 오죽하면 당시에 “야, 농구 몇 대 몇 이냐”라는 질문에 “농구 대 잔치”라고 대답하는 넌센스 퀴즈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프로농구 출범 이후에도 농구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양동근, 김승현 등 프로화 이후 입단한

슈퍼스타들도 농구 인기에 한몫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도 회자되는 제럴드 워커, 조니 맥도웰, 단테 존스, 피트 마이클 등 외국 선수들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화려한 플레이로 팬들을 매료시켰다. 그러나 이는 당연스럽게도 외국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한국 농구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도 연결됐다. 농구 팬들은 농구대잔치 시절을 그리워하다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다.

### ▶ 코로나 악재, 위기의 한국 농구

농구의 인기는 점점 식었다. 2012 런던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쓰는 등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여자배구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프로농구연맹(KBL)은 2016년부터 12월 31일 밤 10시에 경기를 치르고 새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는 ‘농구 영신 매치’를 기획해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거기에 허재의 아들인 허웅(KCC), 허훈(KT)이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등 나름의 흥행 요소가 있었지만, 관중동원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19~2020 시즌이 조기 종료되는 바람에 관심도 자체가 뚝 떨어졌다. 4대 프로 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프로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의 비율은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구대잔치 시절부터 한 번도 농구를 놓은 적이 없는 농구 골수팬인 내 친구는 이렇게 토로했다. “프로농구 출범 초기에는 한 학년, 각 반에 ‘맥도웰’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한 명씩은 있었다. 농구는 몰라도 맥도웰은 유명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상민과 맥도웰이 버틴 현대 다이내트는 전국구 인기구단이었다. 천재 가드 김승현과 미친 탄력을 자랑한 마르코스 힉스를 앞세운 동양 오리온스의 인기도 엄청났다. 그런데, 코미디 같은 외국인 선수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예를 들면, 외국인 선수 2명의 키가 도합 4m를 넘을 수 없고, 단신 외국인 선수를 무조건 선발해야 하는 식이다. 그는 이것이 국내 포워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며, “팬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주기보다 오로지 승리에 집착하는 농구를 했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거기에 월드컵(축구), WBC(야구) 등 볼만한 국제 대회가 늘었고, 스포츠 말고도 볼 게 너무 많아졌다. 농구대잔치 시절 스타들은 은퇴했고, 후속 스타는 없고 국제경쟁력은 약화됐다.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고, 전국의バスケット보이들을 피끓게 만든 농구의 인기가 암흑기에 들어섰다.



## 농구 인기 부흥의 포문 열리나

다행히 2022~2023 시즌을 통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바꾼 모양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총 입장 관중은 68만 7,303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이전인 2018~2019시즌의 86만 8,567명의 80%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10개 구단의 총 입장 수입이 86억 4,000만 원에 달해 2018~2019시즌의 종전 최고액(72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비결은 정규리그 내내 이어진 치열한 순위 싸움과 소위 ‘역대급’ 치열함을 자랑했던 안양 KGC와 서울 SK의 챔피언 결정전 경기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 스포츠의 챔피언 결정전(챔프전)은 늘 엄청난 열기를 띤다. 올 시즌 챔프전은 팬들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 통합우승에 도전하는 KGC 김상식 감독은 55세의 베테랑 사령탑이지만 프로 감독 경력이 짧았고, 감독 2년 차인 SK 전희철 감독은 지난 시즌 부임하자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인물이다. 특히 전희철 감독은 농구대잔치 시절 인기를 주도했던 인물로 감독이 된 뒤에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SK는 2020 시즌까지 농구대잔치 시절 연세대 에이스 문경은이 감독, 고려대 에이스

전희철이 수석코치로 호흡을 맞추며 강팀의 반열에 올려놓은 흐름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KBL 최고 인기구단 중 하나다.

그렇다 보니 올 시즌 챔프전은 2차전부터 7차전까지 6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고, 시리즈 누적 관중만 무려 3만 7,059명에 달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승팀이 결정되는 7차전에는 올 시즌 최다 관중 5,905명이 운집했다.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KGC)과 자밀 워너 (SK)가 팬들의 시선을 끄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라는 점도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매 경기 명승부가 이어졌고, 성격을 존중하면서도 조직적인 수비를 중시하는 두 감독의 지략 대결도 시리즈 내내 찬사를 받았다. 마지막 7차전도 연장전을 치르고 나서야 KGC의 승리로 마무리됐으나 시리즈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 농구대잔치만큼 뜰 수 있을까?

특히 이번 챔프전을 통해 농구의 매력에 흠뻑 빠진 신규 팬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다. 이는 농구 인기 부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KBL도 농구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나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2020~2021 시즌부터 국내 프로 스포츠 최초로 도입한 통합마케팅 플랫폼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시즌에만 12만 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해 현재 28만 명의 회원을 보유 중이다. 통합 마케팅 플랫폼 도입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바로 입장 수입의 상승이다. 농구라는 콘텐츠에 매력을 느낀다면 팬들은 아낌없이 돈을 쓴다. 좋은 예로 리그 최고 인기스타인 허웅의 소속팀 KCC 경기에는 관중이 구름처럼 몰린다. 여러 콘텐츠를 활용해 ‘스타 마케팅’에 성공한 케이스다.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프로농구를 적극적으로 알린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KBL은 팬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며 유료 관중 비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객단가 또한 1만 2,566원으로 올라갔다. 유료 관중이 늘어나면 관심도 자체가 올라간다. 여기에 경기력 향상까지 동반되면 과거의 인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챔프전으로 인기에 불을 지폈으니 이제는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에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된다. 농구는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접근성 높은 프로 스포츠이자 한때 전국민이 열광할 만큼 재미있는 콘텐츠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농구인의 숙제다.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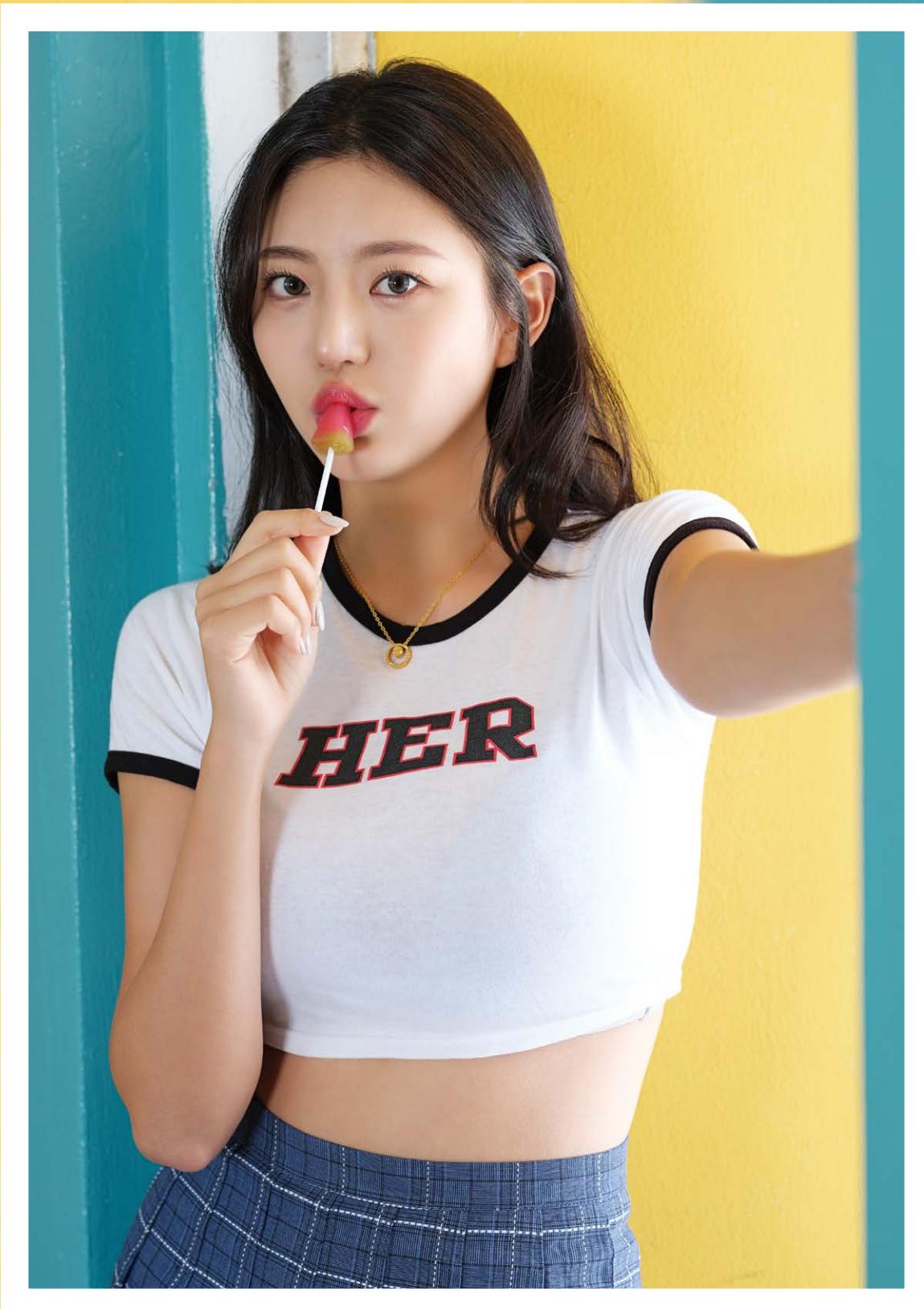
*kiss kiss*

당신은 이미 그녀를 수백만, 천만 조회수의 직캠 영상과  
커뮤니티 움짤로 본 적이 있을 거다. 우월한 피지컬에,  
화제성과 스타성까지 겸비한 '대세' 치어리더 김이서.  
풋풋한 첫 키스처럼 상큼한 그녀의 매력 속으로!

BY 김한솔 PHOTOGRAPH BY 박율



**COVER STORY**





### 김이서

직업: 치어리더  
생년월일: 2000년 9월 9일  
키: 174cm  
인스타그램: 2e2\_seo

## COVER STORY



전부터 알고리즘에 계속 뜨기 시작하더니, 맥심 표지까지 찍게 됐다. 내가 일찌감치 편집장 역할 잡고 김이서는 꼭 잡아야 한다고 얼마나 줄랐는지! 일단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올 시즌 LG트윈스 치어리더로 새롭게 합류하게 된, 요즘 대세 김이서라고 합니다.

이번호 주제가 ‘키스’인 거 알지. 다짜고짜 초면에 좀 그렇지만 썰 좀 풀 거 없나? 뭐 첫 키스라던가, 마지막 키스라던가. 키스는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제가 처음이었더라... 최근에는 엄마, 아빠랑 뽀뽀한 거밖에 없네요.

효녀로구나! 나도 어서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러 가야겠다. 지금 당신의 인기를 실감하나? 요즘에는 경기장 말고 다른 곳에서도 꽤 알아봐 주셔서 그럴 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진이나 직캠 찍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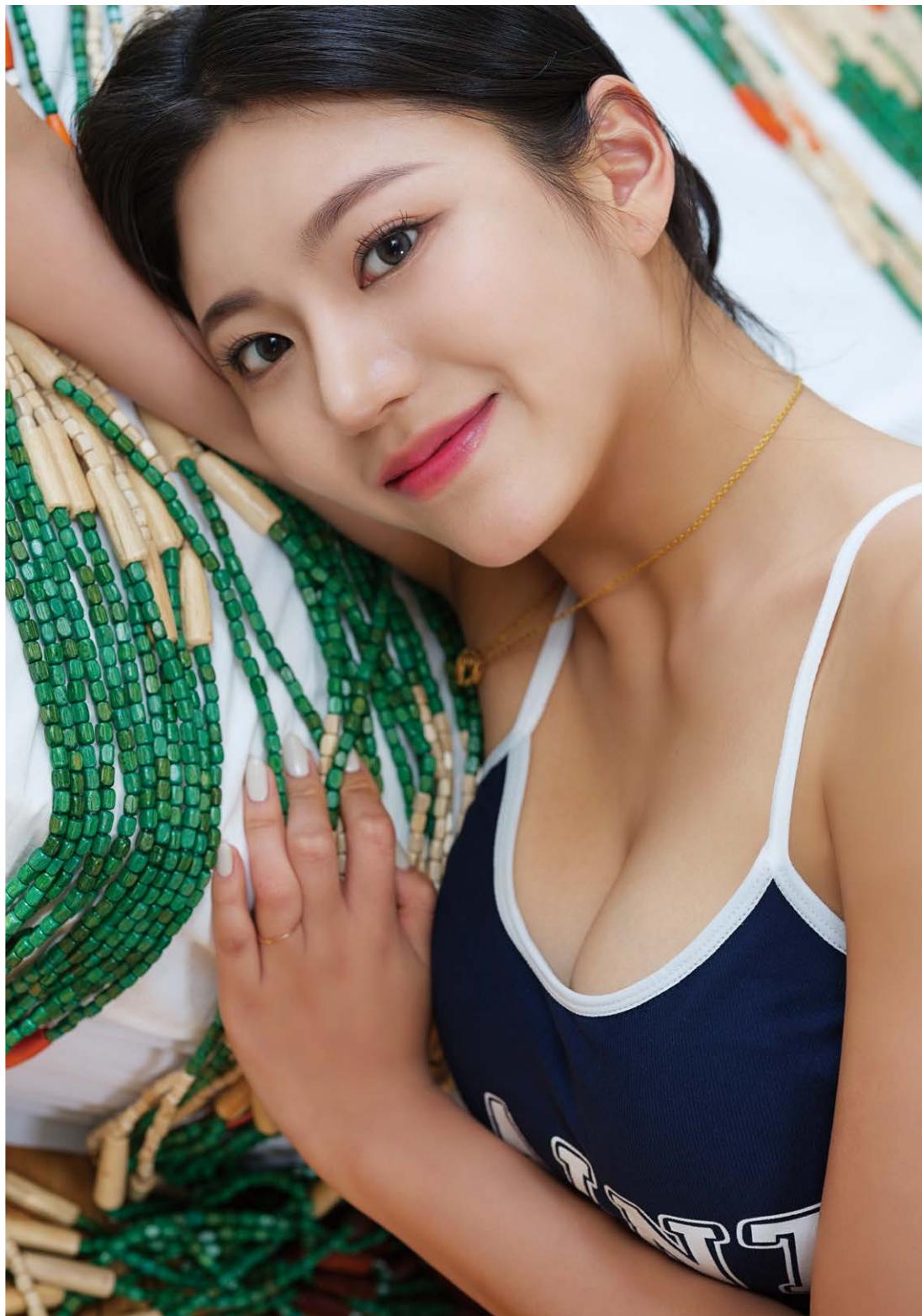
김이서 본인피셜, 자신이 대세 치어리더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타이밍이 좋지 않았나 싶어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마스크도 벗게 되고 경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직캠도 조회수가 터지고. 그런 게 다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겸손 빼고 말해보자. 김이서의 인기 비결은? 제가 키가 커서 팔다리도 길거든요. 골반도 넓은 편이고. 춤을 엄청 잘 추지는 못하는데, 동작이 시원시원해서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키가 174cm라고. 키 때문에 생긴 별명도 많다지?

저는 ‘김광수’라는 별명을 제일 좋아해요. 런닝맨 광수 님처럼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쭉한데 약간 개그캐다’라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쁘다는 말보다 웃기다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맞다. 예쁜 게 웃긴 거다.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웃긴 여자다. 그러니까 맥심 표지까지 찍게 됐지. 처음에 맥심에서 섭외가 왔다고 들었을 때는 ‘엥? 왜? 나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일 한 사람들은 찍는다는 맥심을 제가 찍는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인기가 많아지길 했나 보다’ 싶었어요. 당연히 설레고 기쁘긴 한데 막상 촬영할 생각을 하니 좀 무서웠어요.



## COVER STORY

“ ”

키가 커서 팔다리도 길고  
골반도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춤을 엄청 잘 추지는  
못하는데, 동작이 시원시원해서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



**지금은 맥심 표지를 씹어먹는 대세 치어리더지만,  
중학생 때는 농구 선수였다면서?**

부모님 권유로 농구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보다는 운동이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중학생 때 코치님이 저를 캐스팅했고, 부모님이 이때다 싶어서 저를 기숙사에 넣으신 거죠. 한 3년 정도 농구를 했는데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운동도 힘들고.

**농구 그만두고 치어리더는 어떻게 하게 된 거야?**

**10대 때 데뷔했잖아?**

농구를 그만뒀는데, 막상 공부는 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뭐 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날 교탁 앞에서 춤추는 친구들을 보고 '나도 춤을 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후로 댄스 학원을 등록했는데 거기가 치어리더 아카데미였던 거죠. 당시 프로농구 치어리더팀 언니들도 있었는데, 같이 연습하면서 치어리더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피자컬이 좋기도 했고.



**COVER STORY**



“

요즘에는 경기장 말고  
다른 곳에서도 꽤 알아보셔요.  
그럴 때 인기가 실감 나요.  
사진이나 직캠 찍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



## COVER STORY

관심이 많아지면 그만큼 악풀도 달리겠어.

제가 예전에 성형한 사실을 밝혔어요. 굳이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과거 사진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인조인간이다', '쟤는 모든 게 다 가짜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것만 보려고 해도 안 좋은 게 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치어리더 활동을 못했을 때는 뭘 하고 지냈어?**

시즌 중반이 되면서 코로나가 금방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PC방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인터뷰도 했고요.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화제가 됐어요. '아, 그때 그 PC방작가 김이서였구나'하면서.

**최근에는 LG트윈스에 합류했다. 'LG트윈스 벌써 우승했다', '응원팀 바꾼다' 등 반응이 뜨겁더라. 게다가 원래부터 좋아하는 팀이었다고?**

친구 따라서 LG트윈스 직관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때는 다른 것보다 응원가 때문에 LG트윈스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LG트윈스 팀 자체에도 관심이 생기게 됐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팀에 가서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LG트윈스 면접을 보고 불게 됐습니다.

**최애 팀 치어리더가 된 만큼 각오도 남다를 것 같다. 몸이 부서지도록 응원하겠다며?**

제가 지금 막 갑자기 인지도가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반짝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꾸준하게 인기 있고 사랑받는 치어리더가 되고 싶거든요. 막 스몰아홉 살까지만?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김이서 치어리더 은퇴 선언! 맥심을 통해 최초 공개?**

제일 예쁘고 체력도 좋고 반짝반짝 빛나는 20대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서른 살이 되면...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때 되어봐야 알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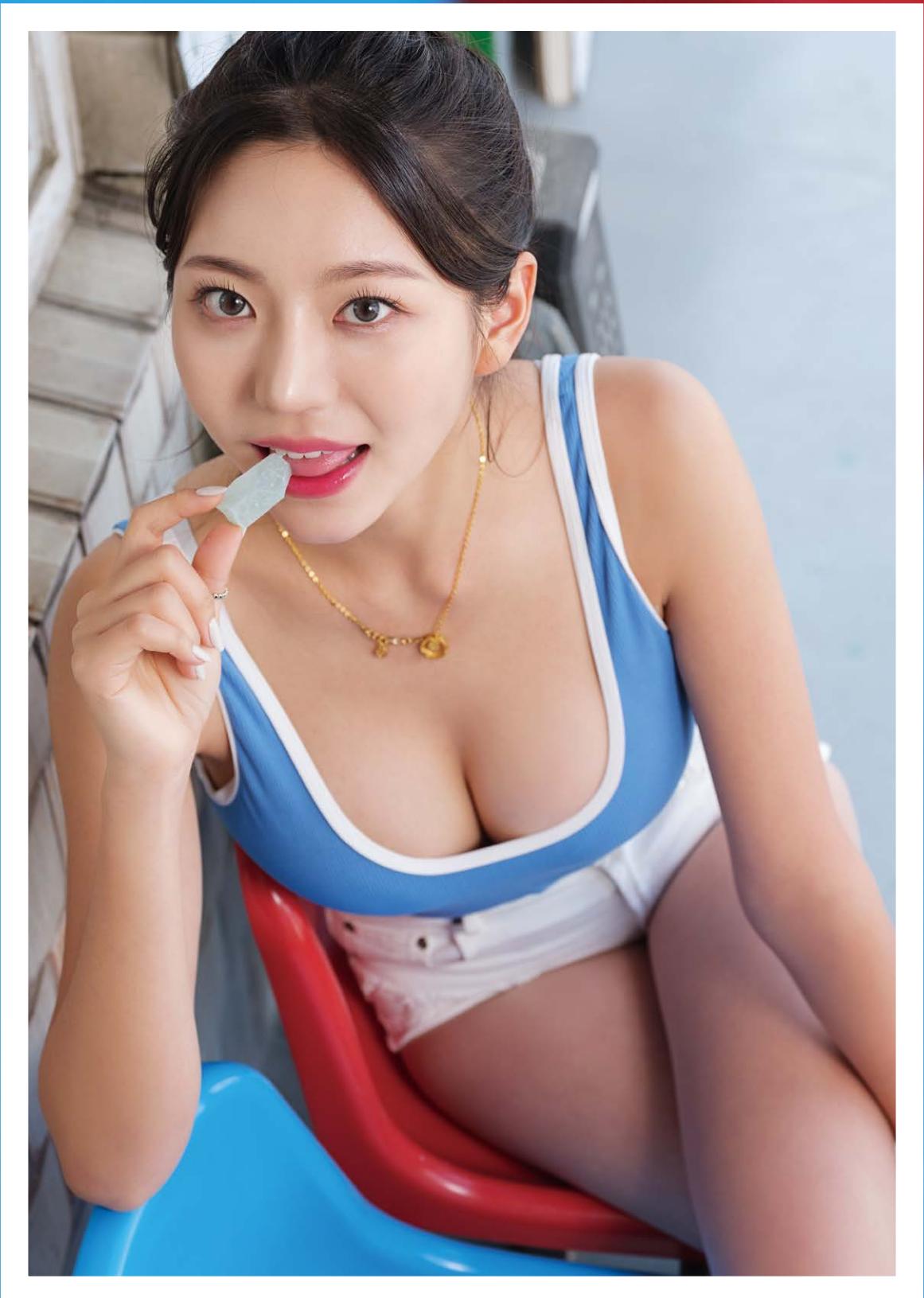
**그래 마음 아픈 소리 이제 그만하고, 영원히 대세 치어리더로 남아줘!**

너무 고맙게도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초심 잊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치어리더가 되고 싶어요. '쟤 인기 있어지고 나더니 머리 컸네' 그런 소리 듣지 않고, '김이서 참 밝다', '치어리더답다' 이런 말들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COVER STORY**



“

저는 반짝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꾸준하게 인기 있고  
사랑받는 치어리더가  
되고 싶어요.”

”



# 레디? 쪽! 싸움보다 키스

 주며 대신 입술로 상대를 제압한 파이터들.  
BY 윤정도



요시히로가 헤링의 입에 냉큼 뾰뽀를 갈긴다. 입술을 내어준 헤링은 반사적으로 라이트훅을 날렸고, 턱이 완전히 돌아간 요시히로는 역사상 최초로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실신한 파이터가 되고 말았다. 긴 눈의 끝에 충분히 때릴 만했다고 판단한 주최 측은 결국 경기 무효를 선언했고, 이날을 계기로 히스 헤링의 별명은 '키스 헤링'이 된다. 아니, 왜 피해자 쪽에 별명을 붙이냐고!

 FROM 나카오 요시히로  
TO 히스 헤링

## 키스가 불러온 참사

격투기 역사상 제일 유명한 시그니처 키스 사건. 바야흐로 2005년, K-1 경기를 앞두고 링에 오른 헤링과 요시히로는 심판의 를 설명을 들으며 기싸움을 하던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FROM 앤더슨 실바

TO 크리스 와이드먼

## 입술 치워... / 니가 치워...

앤더슨 실바가 미들급을 씹어먹던 시절, 11번째 도전자로 살아있는 캡틴 아메리카라 불리는 크리스 와이드먼이 확정되었다. 아무리 실바가 무적이라지만 산만 한 덩치에 스킬도 뛰어난 와이드먼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았던 터라,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실바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 내다봤다(실제로 그리되었다). 자존심이 구겨진 실바는 계체량 검사 후 와이드먼을 노려보며 뚜벅뚜벅 다가갔고, 이에 질세라 와이드먼도 실바를 쏘이하였다. 문제는 두 사람의 키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결코 물러서지 않는 두 상남자의 입술이 수줍게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FROM 크레이그 화이트

TO 디에고 산체스

## 키스 마이 애스홀

'나이트메어'라는 닉네임처럼 만나는 상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진흙탕 전문 파이터 디에고 산체스. UFC에서만 서른 경기 가까이 출전한 백전노장의 대결 상대로, UFC에 입성한 지 반년도 안된 크레이그 화이트가 잡혔다. 산체스 입장에선 이겨도 본전인 판이라 안 그래도 짭짭하던 차에, 계체량 현장에서 난생처음 보는 생짜 피래미가 갑자기 코에 뾰뽀를 하네? 제대로 빽친 산체스는 경기 내내 상대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UFC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틈만 나면 상대의 입술 위에 앉으려고 하는 거 같던데... 기분 탓이겠지?



FROM 요엘 로메로

TO 루크 락홀드

###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입술은 무엇

산전수전 다 겪으며 강자들 때려잡고 챔피언이 된 다음, 지나가던 아저씨 비스핑한테 럭키 펀치를 맞고 벨트를 헌납한 락홀드. 그의 불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절치부심하여 타이틀전에 다시 도전했으나, 경기를 한 달 남기고 챔피언이 다치는 바람에 비스핑보다 더 늙은 아저씨 로메로와 붙게 된다. 락홀드는 결국 이날도 로메로의 회춘 연타를 맞고 실신하고 말았는데, 패배보다 더 굴욕적인 건 실신 후 헤롱헤롱 정신을 차리는 과정에서 로메로에게 의문의 뿌뽀 세례까지 당했다는 것. ‘뭐지... 이 따끔따끔한 느낌과 고소한 담배 냄새는...?’



FROM 개리 오설리반

TO 크리스 유뱅크 주니어

### 복싱 대신 키싱

키스 공격은 MMA에서만 먹히는 기술이 아니었다. 레전드 복서 크리스 유뱅크의 아들이라 전 WBO 챔피언 유뱅크 주니어도 갑작스러운 키스 카운터에 뒤통 당한 적이 있었다. 황태자의 입술을 훔친 대도는 바로 아일랜드 출신의 ‘스파이크’ 오설리반. 사건 장소는 역시 입술 도둑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계체량 현장이었다.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역사적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던 중, 오설리반이 밑도 끝도 없이 유뱅크의 입술 위에 츄 공격을 날렸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깜짝 키스라니 매너 존나 없네. 미리 말해줬으면 립밤이라도 발랐을 거 아냐.



FROM 티토 오티즈

TO 데이나 화이트

### 티 과장, 이게 무슨 짓인가!

키스 공격이 선수 간에만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UFC 제2대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이자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티토 오티즈는 지난 2009년 UFC 101 대회 현장에서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를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화이트 대표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그의 얼굴을 감싸 안고 뜨거운 딥키스를 조져버렸다. 키스 후 얼이 빠진 화이트 대표는 그저 허허 웃었으나, 그날을 기점으로 베테랑 티토 오티즈의 커리어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며 뒤틀린 충성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다(농담이고 그냥 늙어서임). 휴... 맥심 대표한테 키스 안 하길 잘했네.

살짝  
설렜어 난



# ART THE *of* KISS

## 입맞춤의 미술사

암수가 서로의 입술을 탐하는 성(性)스러운 키스를 묘사한  
미술 작품, 끈적하게 즐겨보시렵니까? BY 박종우



1859

〈THE KISS〉 / 프란체스코 히에즈

뜨거운 저항의 입맞춤

미술사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강렬한 키스’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시작해 보자. 살색에 절은 맥심 에디터 눈깔로는 당최 건전하기 그지없는 이 그림이 어째서 선봉장일까? 코쟁이들이 올림푸스 만세를 울부짖던 고대부터 예수 짱짱맨을 외치던 중세까지 서양 미술사에서 인간 남녀가 입술을 도킹하는 촉촉한 키스는 일종의 ‘음란하고 저급한 행위’였다(신끼리 물고 빠는 모습은 눈치 봐가면서 가끔 그림). 아름답다고 여겨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미(美)술의 대상이 될 수 없었겠지?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서 오직 종교, 순수한 이성만이 아름답다며 틀나를 딱딱대던 곤대들에게 “시발 저기요, 인간끼리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는 감정도 아름답다니까요?” 뺨따귀를 후리며 탄생한 예술 사조가 바로 ‘낭만주의’다. 인간 주제에 감히 입술을 노빠꾸로 부딪거리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시절 틀딱들 꼭지를 돌려버린 야桀이자, 낭만주의의 대표작이라는 말씀. 동시에 당시 유럽을 혼나 패던 담당 일진 오스트리아 (뒤쪽 골목, 그림자로 등장)랑 맞짱 뜨겠다며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었던 역사적 사실을 전쟁터로 떠나는 이탈리아 군인과 프랑스 여친의 키스로 빗대버린 은유까지 담겨있으니, 이 정도면 엄지 세울만 하지?

1882

〈THE KISS〉 / 오귀스트 로댕  
황홀한 금기의 입맞춤

지옥을 묘사한 소설 단테의 〈신곡: 지옥〉에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라는 유명한 커플이 등장한다. 이른바 형수와 도련님의 근친 & 불륜 콩가루 스토리로, 단 한 번의 격렬한 키스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결국 남편한테 들켜 목이 잘린 뒤 지옥에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당시로선 매우 파격적인 내용에 ‘지옥’이라는 훌리 무지개 방패까지 걸들인 획기적인 미술 소재가 아닐 수 없었고, 한창 〈지옥의 문〉을 조각하던 로댕 또한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탄생한 이 조각상이 바로 로댕이 해석한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의 키스다. 키스라면 2D 짤에도 발작 버튼이 눌리던 시절이었는데,

발가벗은 두 남녀가 주동이를 도킹한 3.3톤짜리 3D 피규어에 게거품을 무는 것이 당연하잖아? 덕분에 당시에는 ‘이 무슨 망측한 것’으로 저평가된 작품이지만, 오늘날에는 키스의 순간 황홀한 육체의 떨림을 묘사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재미있는 건 단테의 원작에서는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주동이를 밀어 넣었다는데, 로댕은 여자가 적극적으로 앵겨 붙는 모양새로 표현한 점이다. 이를 두고 여성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네, 욕망의 움짓을 씌워 여성을 왜곡했네 말이 많지만, 나로서는 로댕이 24살 어린 미녀(aka. 클로델)를 와이프로 삼고서도, 쉴 새 없이 달려드는 여자들을 고추로 혼내주던 상남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는 거라고 여자가 지한테 달려드는 것뿐인데, 어떻게 남자가 들이대는 걸 예술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하겠냐 이겁니다. 아니면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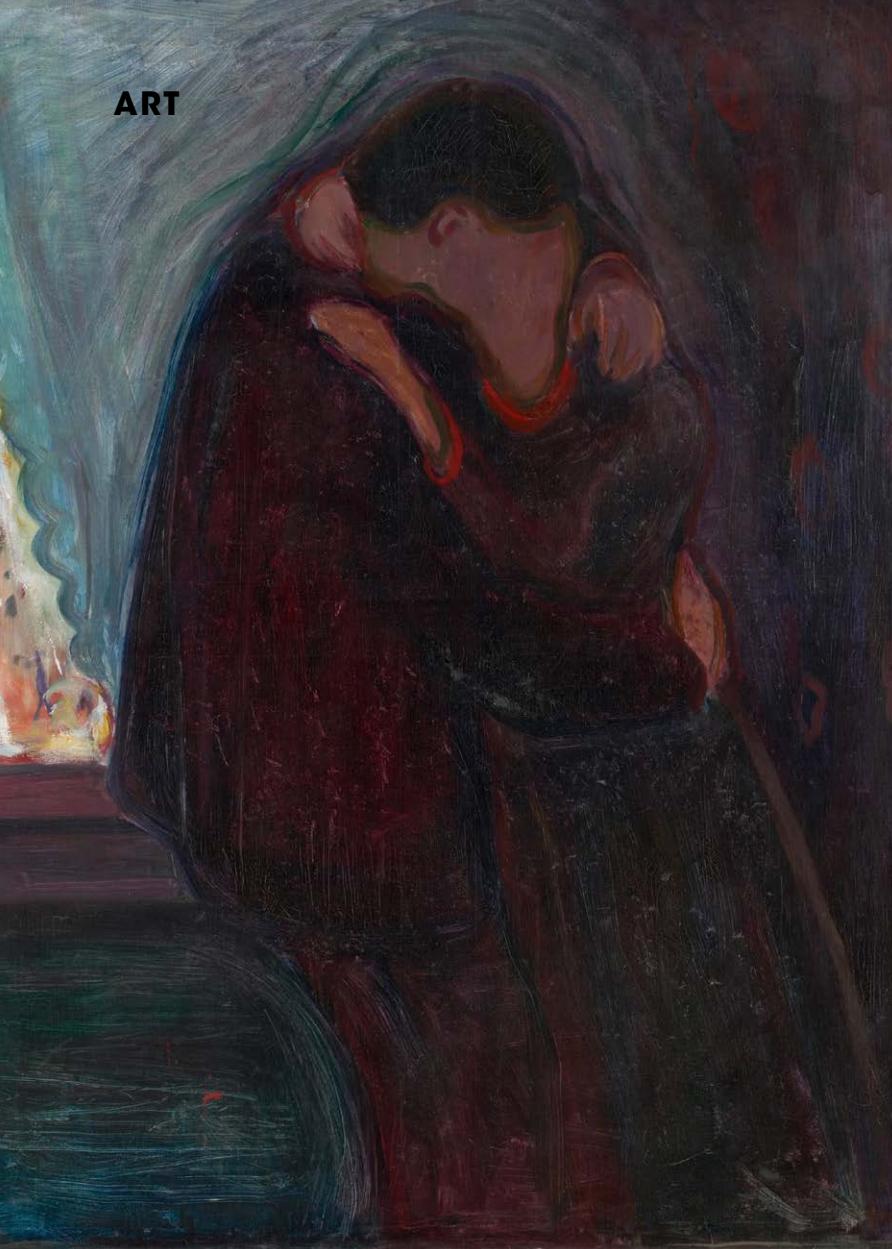
1892

〈THE KISS〉 /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  
진실한 쾌락의 입맞춤

글로벌한 유흥 명소이자 향락의 도시였던 세기말 파리. 그곳의 매음굴과 솔집을 쏘다니며 매춘부와 뒹굴던 난봉꾼이자, 쾌락의 거리에서 꿈틀대는 여성들을 날것 그대로 그려낸 부잣집 도련님이 있었다. 작가 로트레크는 어릴 적 사고로 다리의 성장이 멈춰버린 연약한 장애인이었고, 그런 자신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해주던 화류계 여성들을 자신의 안식처로 여겼다. 36세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할 때까지, 짧은 인생의 여로에서 그가 남긴 그림 속, 침대에서 키스를 나누는 여자들이 어딘지 편안하고 아늑해 보이는 이유다. 그는 현실을 몽롱한 색채로 덧씌우던 인상파 시대 화가였지만, 유행은 죽이나 까라는 듯 쾌락에 젖은 인간 군상과 아름답지 않은 현실을 담백하게 그려내던 반골이었다. 오늘날 로트레크가 고흐, 고갱, 세잔과 함께 탈 인상주의 반골 크루의 멤버로 불리며 존경받는 이유다.



## ART



1897

### 〈THE KISS〉 / 에드바르트 뭉크 파괴적인 불안의 입맞춤

뭉크의 키스를 마음으로 느끼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뭉크가 ‘내 그림은 나의 일기다!’라고 주장할 만큼 아주 사적이고 격렬한 감정을 그림에 쏟아내던 표현주의의 빅 대디라는 점, 동시에 여자를 얻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는 구제 불능 여미사 찐따였다는 점이다. 그의 인생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죽음이나 허무에 가까운 개념으로 시작한다. 뭉크의 어머니는 그를 낳은 직후 바로 죽었고, 함께 자란 누이마저 병사한 뒤부터 눈깔이 살짝 들었으니까. 잃어버린 모성의 빈자리를 채운답시고 어린 남자와 섹스하길 밝히던 유부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다 개같이 벼름받은 것이 첫 실패요, 간신히 마음 추스르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여사친을 사랑하게 됐는데, 너는 나의 뮤즈라며 세레나데를 두성으로 뽑아올렸지만 믿었던 동료가 슬쩍 채가더니 임신시켜 버린 사건이 두 번째 실패다. 여자만 얹혔다 하면 파국으로 치닫는 초능력은 멈추지 않았고, 말년에는 정신 나간 미친년에게 총까지 맞는다. 뭉크에게 여자는 언제나 순정을 짓밟고 심장을 찢어놓는 괴물이었다.

뭉크가 그린 연인에겐 얼굴이 없다. 홀로는 버틸 수 없어 입을 맞대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침범하고 집어삼켜 ‘나’라는 정체성까지 사라지는 모양새다. 나를 살게 하는 여자가 끝내 나를 배신하고 파괴한다는 두려움, 불안의 굴레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은 그야말로 참된 여미새가 아닐까.

1907

### 〈THE KISS〉 / 콘스탄틴 브랑쿠시 승고한 합일의 입맞춤

오래전 인류는 암수가 한 몸인 자웅동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창조주랑 누가 더 세지, 맞다이 깨자고 덤볐다가 몸이 둘로 찢어졌고, 이때부터 인류는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는 형벌을 받았다. 플라톤의 대화집 〈향연〉에 등장하는 ‘사랑의 원형’에 관한 이야기로, 대충 ‘원래 하나였던 상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뜻이다. 자, 이제 현대 조각의 거장 브랑쿠시가 해석한 키스를 구경해 보자. 돌덩어리 하나를 심플하게 깎아서, 대충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예쁘게 키스시떼. 뭐를 더 자세히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단순하고 미니멀하게 ‘키스! 원바디!’라는 사랑의 본질을 표현해 놨지.

감상은 이 정도였는데, 비평가 월 “단순하게 표현한 눈과 입이 오히려 더 강렬!”, “최초로 조각에 추상적인 개념을 구현!” 해가면서 빨아대길래 더 파보니, 이 아저씨가 ‘추상 조각’의 개척자라더라. 제자로 들어오라는 로댕의 제안을 ‘선생님이 재현하는 방식과 저는 결이 다르다’며 단칼에 거절한 적도 있다니 제법 배짱도 두둑했던 모양. 그렇지. 두둑하니까 돌덩어리 두고 본질! 이데아! 외치면서 추상 예술이라고 입을 털지.





1908

〈THE KISS〉 / 구스타프 클림트

## 처절한 후회의 입맞춤

클림트의 별명은 ‘비엔나의 카사노바’였다. 넘치는 재능만큼 정력까지 넘쳤기에 한 여자에게 정착하는 법이 없었다. 섹스가 영감의 원천이라 떠들 정도로 호색한이라 자연스레 그림에는 외설스러운 여인들, 특히 자신과 둑굴던 여인들의 흔적으로 가득 찼다.

그런 그에게도 진지하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이름은 에밀리 플뢰제, 클림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는 자신의 정신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존재이자 고결한 존재였다. 그녀에게 단 한 번도 고추를 걸더이는 법이 없었다니 그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자릿하게 감이 오지? 그러면서도 클림트는 ‘결혼은 현대인이 만들어 낸 가증스러운 행위’라며 그녀와 결혼을 거절하는데, 그녀가 그의 곁을 떠난다. 선 척 한 번에 뮤즈를 영영 잃어버린 그는 슬픔에 젖어 봇을 휘둘렀고,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그림 속 여자가 누구인지 대충 감이 오지?

그림 속에서 플뢰제는 절벽 끝에 아슬하게 걸터앉아 더는 미련이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클림트는 내키지 않아 하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그녀가 내밀지 않은 거리만큼 고개를 더 아래로 숙여 키스한다. 주변 황금색 철은 진짜 황금이다. 클림트가 의미를 말해준 적이 없어 추측일 뿐이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그가 금을 사용한 이유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뜻한다고 말한다. 결국 얼핏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클림트의 키스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여성을 붙잡으려는 남자의 마지막 노력을 담은 그림이다. 어쩌면 겉보기엔 행복해 보였지만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던 자신과 그녀의 사랑 그 자체를 그렸는지도.



1969

〈THE KISS〉 / 피카소

## 밝히는 상남자의 입맞춤

‘행복한 예술가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딱 한 명 예외가 있다. 피카소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거장의 반열에 올라 떼돈을 굽어모았고, 수많은 여자의 칼집에 아랫도리의 장검을 수납하며 천수까지 누렸다.



1961

〈THE KISS〉 / 로이 리히텐슈타인

값싼 것과  
값비싼 것의 입맞춤

앤디 워홀과 함께 미국 팝아트의 빅 보스로 군림한 리히텐슈타인의 키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예술은 우리의 주위에 있다’라고 선언하며 가장 대중적인 소재와 대중적인 표현 방법으로 ‘대중의 전형’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전하려는 메시지를 과장해서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만화’의 형식을 빌렸다. 그리고 미국 군인과 전투기, 붉은 입술과 긁은 컬로 말아 올린 금발의 여자, 로맨스를 녹였다. 1960년대 미국 대중이 소비하는 가장 값싼 코드가 한데 어우러져 가장 값비싼 대중 이미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 대전 격투 게임 딥키스 파이터즈

 ← ↓ ↘ → + 춤 춤 ♥ BY 박종우



## 공연음란 초대남&네토리라레 KISS

### 키사라 웨스트필드

1994년 출시한 격투 게임 〈통쾌 간간행진곡〉에서 유일한 하로인으로 등장하는 16세 소녀. 한창 애스트로겐이 들끓을 나이라 야한 짓에 관심이 매우 많은 듯하다. 거의 모든 공격기(자칭 호신술)에서 성(性)스러운 광기가 느껴지는데, 개중 싸움판에 남사친을 소환해 보란 듯이 춤출 걸려버리는 필살기 '젤러시 봄비'가 압권. MZ 세대도 아니면서 공공예절 따위는 가볍게 쌈 싸 먹는 그녀의 문란한 혀 놀림을 강제로 직관한 상대 캐릭터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쓰러진다. 싸우는 내내 음란한 몸 기술을 수 차례 당하면서 내심 '이 소녀가 혹시...?'하고 잔뜩 부풀었다가, 갑자기 그녀가 눈앞에서 여리여리한 놈쟁이 불러다가 물고 빠는 모습을 보이니 쓰러질 법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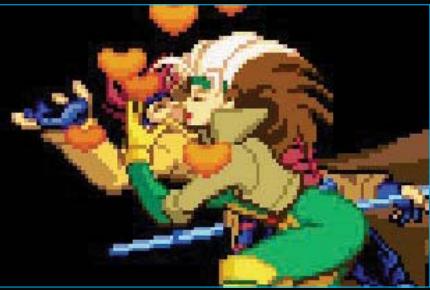
## 근친상간 회춘 KISS

### 고캐츠지 패밀리

재벌가의 당주를 뽑겠다며 사돈에 팔촌까지 일가친척이 싸워 모여 혈투를 벌이는 패륜 콘셉트! 이 〈호혈사 일족〉에는 주동이를 파격적으로 놀리는 미치광이가 셋 등장한다. 1편의 주인공이자 72세 할멈인 '오타네'가 첫 번째 키싱구라미로, 필살기도 아닌 기본 잡기 기술이 딥키스다. 그것도 상대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두어 번 춤출 빨아주면 정기를 흡수해 18세 소녀로 회춘하는 기적의 변신술이다. 이 외에도 틀니를 총알처럼 뱉어서 공격하는 등 골때리는 기술 디자인이 인상적.

두 번째 키싱구라미는 2편부터 등장하는 오타네의 형부이자 호적에서 파인 조카뻘 혈육, 다시 말해 5촌 누나랑 근친혼을 갈겼다는 설정인 '코쿠인 칸지'다. 역시 기본 잡기가 키스고, 정기를 호로록 빨아서 근육질 슈퍼맨으로 변신한다. 마지막은 칸지의 조카의 증손자(?)인 소년 '코쿠인 키타로 (6세)'다. 역시나 딥키스로 정기를 팀한 뒤 명명이 용사 포치(?)로 변신한다. 이 새끼는 한술 더 떠 여자 캐릭터 한정으로 가슴에 달라붙어 춤출 드링킹하는 모션을 선보인다. 그래, 그게 양분 나오라고 달린 부위가 맞기는 해.





### 불법복제 시장파괴 KISS

#### 로그

격투 게임의 명가 캡콤에서 야심 차게 제작한 〈X맨 vs 스트리트파이터〉에 나오는 파멸적인 키스 워리어. '육덕 미녀'라는 원작 만화의 캐릭터 설정을 재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 몸매 디자인을 제법 탱탱하게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피부 접촉으로 상대의 힘과 능력을 흡수해 파멸로 이끈다'라는 설정을 살짝 비틀어 '주동이 박치기로 상대 캐릭터 고유 기술을 복사'하는 기술을 탑재했는데...

여자와의 키스가 쉬웠으면 하는 게임 개발자의 소망이 너무 진하게 담긴 탓일까. 게임 발매 후 해당 기술의 발동 커맨드가 너무 쉬웠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녀는 선심 쓰듯 키스 몇 번 갈겨준 뒤 빼버 온 상대 캐릭터의 고유 기술, 이를테면 류의 파동권, 켄의 승룡권, 장기애프의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 등 존나 아픈 기술을 오리지날보다 훨씬 간편한 커맨드로 빠르게 연사할 수 있었고, 끝내 게임 밸런스를 파멸로 이끌었다.



#### 착한 키스는 없어요?

사랑과 우정을 담아 힐링 춤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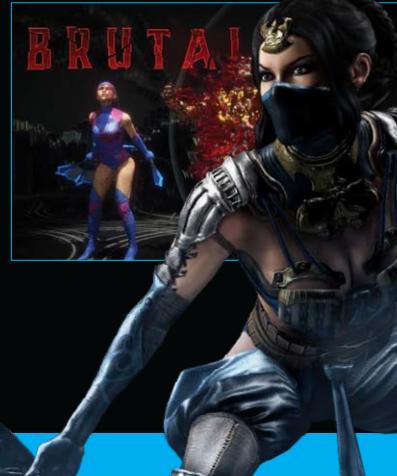
97년 등장해 오락실에 상주하는 초딩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립 저스티스 학원〉에선 전직 치어리더 캐릭터 '티파니 로즈'를 파트너로 고르는 것이 국룰이었다. 체력이 깜빡이는 위기의 순간 그녀에게 힐링 키스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작중 가장 올바른 노출 의상을 선보이던 그녀가 냉큼 달려와 키스를 쪼아대는 자태, "엑셀런트~♥"라고 외치는 그녀의 음성에 동정까지 엑셀런트하게 해버린 초딩이 얼마나 많았... 나만 그랬어?



### 오체분시 죽음의 KISS

#### 키타나

인간을 고깃덩어리로 만들고 싶은 사디스트들이 애정하는 네임드 고어물 〈모탈컴뱃〉시리즈에는 '연쇄키스살인마'로 불리는 여자가 등장한다. 이 시리즈 캐릭터들은 저마다 고유하고 잔혹한 마무리 기술을 연출하는데, 상대를 썰고 자르고 구멍 내이며 곤죽으로 만드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키타나'는 기절한 상대에게 사뿐사뿐 걸어가 한쪽 다리를 들고 공주님 키스를 갈킨다. 게다가 자기야 좋았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황홀해♥"라며 어깨 뿐까지 채워주더라. 본 서비스에 사후 서비스까지 완벽하니 보는 내가 설레버릴 지경이다. 직접 키스 당한 상대 캐릭터들은 오죽했을까. 그들의 표정은 마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기분을 느껴버린 듯했으며, 정말로 화려하게 터져 죽는다.



#### 국산 '키스 컨트롤러' 등장!

← ↘ ↓ ↗ + 춤춤♥!?

매년 미국 LA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쇼 'E3'에서 한국 연구진이 '허트롤러' 베타를 공개하며 관심을 끌었다. 플레이어 2명의 허에 센서를 붙이고, 특수 제작한 헤드셋으로 그 무빙을 추적해 게임을 조작한다는 신박한 설명. 사랑과 게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품었던 지가 어언 12년... 사실 허트롤러는 2011년 게임쇼에서 등장한 제품이다. 최근 근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같이 망한 듯, 최소한 '서로 혀바닥 비벼가면서 함께 조작할 사람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설문부터 돌려보고 개발에 착수했어야...

# 순위 정하는 남자

## 피해야 할 인상, 게임 속 '맑은 눈의 광인'

### TOP 5

눈빛에 속지 말 것!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광기 낭낭한  
게임 속 '맑눈광' 캐릭터들

BY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 본 기사는 게임 전문 온라인 매체인 맥심의  
온라인 간부 <게임메카>에 동시에 게재되었습니다.  
더 많은 게임 소식은 <게임메카>를 참조하세요.

**세상엔 광인(狂人)이 참 많다.**  
그들은 보통 맛이 간 눈을 하고  
있거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고, 극심한 음침함이나 조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딱 봐도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다. 좋은 피해  
가라는 말처럼, 이런 싸이코를 만나면  
얽히지 말고 알아서 피하는 게 이롭다.

그러나 세상엔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더 위험한 존재들이 있다.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동자로 얼핏 호인처럼 방심을  
유도하지만, 알고 보면 광인의 범주에  
속한다. 이 맑은 눈의 광인들은 절대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며, 순수한  
마음에서 광인 짓을 하기에 더욱 퓨어  
이불에 가까운 존재라 할 수 있다.  
오늘은 게임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일명 '맑눈광'들을 한데 모아 봤다.



5

4

#### 우마무스메 '슈퍼 크릭'

수많은 우마무스메 가운데서도 유독 성숙한  
외모를 뽐내는 슈퍼 크릭. 플레이어와는 분명  
트레이너와 제자 관계인데, 어쩐지 누나 혹은  
엄마 느낌이 날 정도다. 성격도 포용력이 있고  
나긋나긋한데다 타인을 잘 돌봐 주는데, 본인  
말로는 집안이 탁아소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게 지나친다. 그녀는  
트레이너를 역으로 보살피며 한 사람 뒷을 하도록  
키우는 게 취미인, '광기의 마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 내에서 슈퍼 크릭은 트레이너의  
의욕을 관리하고, 야채를 먹이고, 훈련복을  
다려 주는 등 모성애를 한껏 뽐낸다. 트레이너를  
도발하는 이에게는 '아이의 장래를 짓밟으려고  
하는 녀석을 보는 얼굴'을 보이기도 한다. 출주  
전에는 트레이너가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는  
기색까지 있다 보니 과보호 엄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팬덤에서는 트레이너에게 공갈  
젖꼭지나 딸랑이를 들이대는 등으로 패러디되며,  
맑은 눈의 광마 이미지를 쌓아 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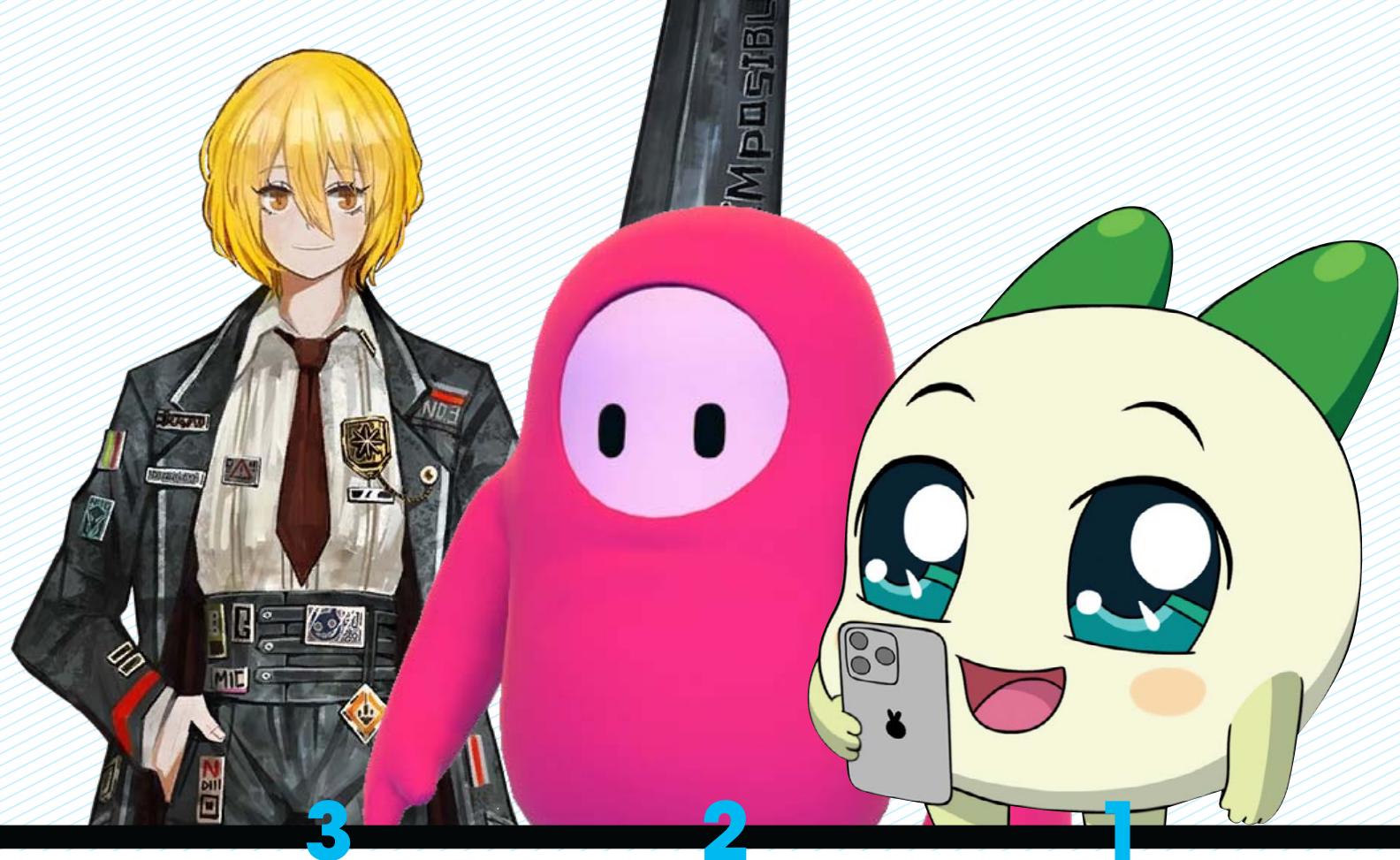


#### 슈퍼 마리오 시리즈 '피치 공주'

슈퍼 마리오 시리즈에 나오는 피치 공주는,  
초창기만 해도 분명히 사나운 악의 대마왕인  
쿠파에게 잡혀가 마리오의 구출을 기다리는  
가녀린 존재였다. 태생 자체가 뾰족이에 나오던  
올리브를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캐릭터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행보였을 것이다. 실제로 평소  
모습을 보면 천상 공주 그 자체였고 말이다.

그러나 그녀의 본모습이 차츰 드러나며 여태껏  
보여준 연약한 공주 모습이 전부 설정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리오를  
월등히 뛰어넘는 듯한 신체 능력, 강력한 마력과  
마법, 뛰어난 지능, 우수한 지도력과 정치력까지.  
심지어 이번에 미국에서 개봉한 슈퍼마리오  
영화에서도 가녀린 공주는커녕 할버드를 빼드는  
강렬한 무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 번 납치된 이유는?  
납치되기를 좋아한다면 그야말로 맑눈광일테고,  
마리오의 성장을 위해 나라를 걸고 연기를  
한 것이라면 그 역시 맑눈광이 따로 없다.





3

2

1

### 림버스 컴퍼니 ‘돈키호테’

림버스 컴퍼니의 3번 수감자이자 빌랄함을 담당하고 있는 돈키호테. 밝은 인상이 단 한 명도 없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유일무이하게 긍정 에너지를 뿜어내는 인물로, ‘정의로운 특색 해결사’가 되고자 하는 해결사 덕후이기도 하다. 밝고 철없어 보이는 행보로 트러블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그냥 밝은 캐릭터일 뿐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의를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머리에 랜스를 꽂아 넣는다던가, 방치할 시 마구 고함을 지르고, 가만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대형 사고를 치는 등. 임무를 아무지게 망치는 행동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맑은 눈의 광인 반열에 들었다. 실제로 게임 내에서는 돈키호테의 과장되고 밝은 모습이 연기가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도 있기에, 숨겨진 이야기 속에 얼마나 더 맑눈광스러운 설정들이 잠자고 있을지 기대까지 되는 캐릭터다. 그저 내 옆에만 없다면 말이다.



새로운 맑눈광으로 떠오르고 있는 돈키호테

### 풀가이즈 ‘풀가이’

풀가이즈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귀엽게 뒤통수동대는 풀가이들의 모습이 특징적인 게임이다. 이거 보려고 게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풀가이들은 꾸미기기에 따라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위아래로 길쭉한 눈과 긴 팔, 짧은 다리를 하고 있다. 덕분에 어떤 치열한 장면에서도 진지하기보다는 장난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된다. 눈 역시 초롱초롱한 것이 한없이 천진난만해 보인다.

그러나 조종하는 플레이어에 따라 한없이 악랄한 맑은 눈의 광인으로 변할 수 있는 것 역시 풀가이의 특징이다. 실제로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놈은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티비킹을 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외나무다리 중간에서 안 건너가고 다른 플레이어들을 바라보고 있는 풀가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저 귀여운 인형 옷(?) 안에 대체 어떤 광인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맑눈광 업계의 상당한 강자라 볼 수 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외나무다리 중간에 서서 타인을 자비없이 멸구는 풀가이

### 쿵야 유니버스 ‘양파쿵야’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단어가 정립되어 널리 쓰이기 한참 전부터 이 분야를 개척해 왔던 독보적인 캐릭터가 있었으니, 바로 양파쿵야 되시겠다. 야채부락리 등 넷마블 게임에 등장한 무수한 쿵야 캐릭터 중 하나로, 쿵야계(?)에는 양파뿐 아니라 계란, 주먹밥, 고구마, 마늘 등 다양한 쿵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중 단연 돋보이는 캐릭터는 양파쿵야다.

일단 눈이 유독 초롱초롱할뿐더러,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봐도 그 맑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다른 쿵야들의 몸을 뜯어먹거나 꿈을 산산이 부수는 대사를 하고, 공감 능력이 한참이나 부족한 모습을 꽤나 자주 보여준다. 사실 하는 행동만 보면 어린이 콘텐츠에 어울리는 소소한 말썽 정도에 그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맑고 초롱초롱한 눈 덕에 이 분야의 개척자가 되었으니, 양파쿵야 입장에서는 나름 억울하기도 하겠다. 그렇지만, 맑은 눈의 광인 하면 양파쿵야밖에 떠오르지 않는걸...



이 분야의 독보적인 주자이자 창시자 겸인 양파쿵야

# 포르노 산업이 AI를 만나면?

AI가 그린 그림이 맥심을 위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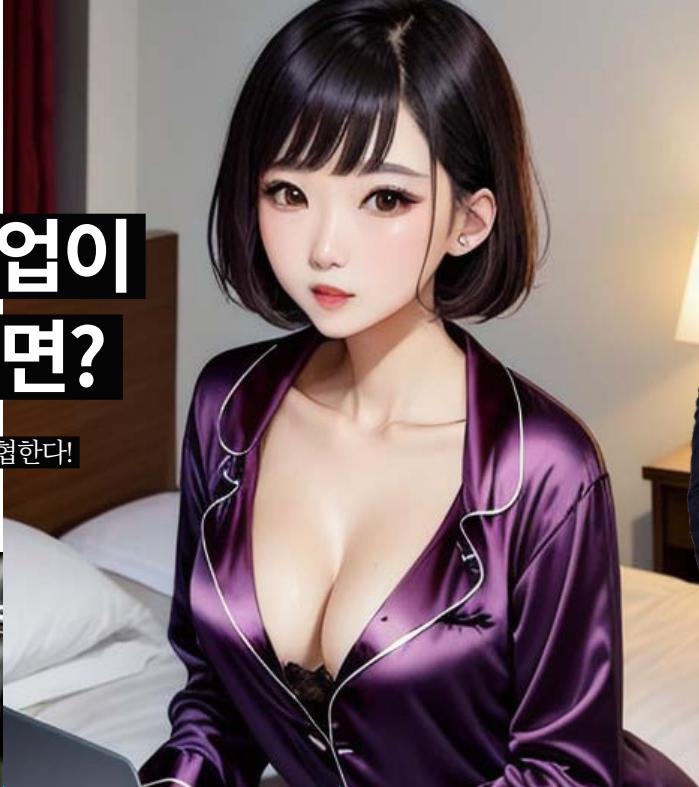
BY 테크M 편집부(contact@techm.kr)



## 챗GPT가 쏘아 올린 인공지능 유행

인공지능(AI)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오픈AI가 개발한 챗GPT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가 AI 열풍에 빠졌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국가대표 I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모두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분명 AI는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느껴지는 변화는 많지 않다. 번역 정도가 편해졌을까?



## AI가 그린 그림에 점령당한 유튜브

이렇게 생각하는 맥심 독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모르는 새로운 세상은 벌써 열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당장 유튜브를 켜고 'AI 루룩'이라고 검색 해봐라.

유튜브에 AI가 그린 여성 모델 사진이 수두룩하다. 다양한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출 수위도 상당한 수준이다. 비키니 수영복부터 승무원 복장, 치어리더 복장 등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다소 어색한 사진도 있지만, 정말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사진도 있다.

최근에는 눈을 깜빡인다거나 고개를 살짝 돌리는 형태의 사진도 나왔다. 도대체 뭐가 실제로 찍은 사진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AI가 그린 것이라는 것을 알고 봐야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

그렇다.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포르노 산업이 기술을 받아들인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른바 오양, 백양 비디오 덕분이라는 웃지 못할 말도 있으니까 말이다.

## 그래서 나도 1분 만에 맥심 표지를 그려봤다.

그래서 우리도 시도해 봤다. 우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진 보정이다. 생성형 AI 서비스로 이른바 '아속업'이라 불리는 'AskUp'의 업스케치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내 사진을 넣고 젊어 보이게, 멋있어 보이게, 여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1분 안에 새로운 사진을 받아 볼 수 있다.

원본 사진과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도 확실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겼으면 모델로 대성했을 텐데. 물론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옆에 사진은 기자가 '아속업' 업스케치 베타를 활용해서 그린 맥심 표지 사진이다. 불과 1분 만에 이 같은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씩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눈을 더 크게 그려달라거나 옷 스타일을 바꿔 달라거나 하는 형태로 계속 새로운 그림을 그리도록 해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순식간에 젊어지고  
잘생겨진 내 사진.  
이렇게만 생겼으면  
소원이 없겠다.



AI만 있으면 에디터, 모델,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가 없어도 이렇게 표지가 뚝딱 나온다.





## 부작용은 없을까.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이처럼 생성형 AI가 그린 그림들이 유튜브를 점령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AI로 복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수위 높은 사진들을 올리면, 올리자마자 수천에서 수만 조회수를 기록한다.

이처럼 인기가 높으니 많은 사람들이 더 선정적이고 더 수위높은 사진을 올린다.

문제는 이같은 사진을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 정도로 ‘19금’ 딱지가 붙지 않는다는 ‘괴담’도 돈다.

한 유튜버는 “AI 룩복 등이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현격하게 떨어졌다”며 “청소년들도 AI 룩복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AI가 그린 그림은 누군가의 그림을 학습해서 그린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누구의 그림을 학습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연예인 딥페이크와 같은 문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전 세계는 지금

#### ‘AI 규제’ 고민 중

전 세계적으로 AI 작품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미 유럽연합은 지난 2021년부터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브란도 베니페이, 드라고스 투도리케 등 유럽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AGI 규칙 수립을 위한 ‘AI 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이 법안에 ‘AI 기업이 훈련에 활용한 데이터 출처와 저작권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AI 규범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만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AI 규제개선 및 제도 정립을 꼽았다.

‘AI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초거대 AI 관련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과 성능을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을 통해 평가하고, 비윤리 및 유해성 표현과 사실 왜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 ‘혁신가들의 놀이터’ 테크M

테크M(<https://techm.kr>)은 게임과 e스포츠, 블록체인, 통신, 기업 이슈, 제품 리뷰, 라이프 콘텐츠, 성장주 등 돈 쓰고 버는 분야를 두드리는 테크 전문 미디어다. 궁금하면 커문커몬!

# AI, 알고리즘의 인류 통제 시나리오

미국이 텍톡을 전면 금지한 사건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헤쳐보자. BY 채널 에스오디(SOD)

지난 4월, 구글의 CEO가 'AI의 급격한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작가, 회계사, 건축가 등 수많은 지식 노동자(화이트칼라) 직업 생태계가 빠아온 타격을 입을 것이라 말했는데, 현재 AI의 발전 수준과 속도가 어느 정도기에 그런 걸까? 모든 이야기에 앞서, 어제 나(A)와 여자친구(B)가 나눈 메신저 대화, AI에 관하여 최근 이슈였던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 사진 몇장을 첨부한다.

A: 자기야! 오늘 하루 어땠어?  
말해봐, 뭐 하고 지냈어?  
B: 나 방금 일어났어. 이따가 미팅 하나 있는데 가기 귀찮다.  
A: 아이구,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ㅠㅠ  
근데 미팅은 중요하잖아? 그냥 금방 다녀오면 되잖아. 내가 응원할게!  
파이팅!  
B: 중요하긴 한데 너무 멀어서 가기 귀찮아  
A: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필요한 건데.  
힘내서 잘 다녀와, 끝나고 편하게 쉬면 되니까 화이팅하자, 자기야!

위 대화에서 어떤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당신은 방금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에 참여했고, 위 대화는 내가 인간 여자친구가 아닌 텍스트 AI 'Chat-GPT'와 대화한 내용이다.

이제 이런 단순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텍스트 AI와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정도까지 발전한 것이다. 또, AI 기술의 발전에 관하여 한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이 화제가 됐다.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화제가 됐을까? 그녀가 그림 AI가 그려낸 가상의 여성인기 때문이다. 피부 결부터 주름, 작은 점까지 묘사하는 수준이 놀랍지 않은가? 인간의 눈으로 AI 그림과 실제 사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 AI가 인류를 위협한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은 “인류를 위해 AI 개발을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I의 개발 속도를 우리 인간의 윤리 의식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역시 AI 개발 속도가 현재 너무 빨라 인류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 전에 새로운 AI 회사를 창업했다. 약간 앞뒤가...). 어쨌든, 현재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 인류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AI가 악의적으로 날조한 허위 정보를 퍼트린다면? Chat-GPT가 개발진의 눈을 피해 가상 인격체를 만들어서 혐오 발언을 습득한 후 인간과의 대화에 참여해 편견을 주입하고 폭력을 유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AI 발전 속도에 맞춰 콘텐츠를 검열하는 AI 알고리즘이 필요하지만, 이런 알고리즘은 누가,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까?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조차 가짜뉴스를 많이 보는 중장년층에게 의도적으로 날조한 가짜뉴스만 선별해 연달아 추천하며 현대판 나치즘을 주입하고 있지 않은가?

구글 전 CEO와 미국 전 국무장관, MIT 학장 등의 주장에 따르면,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콘텐츠 검열 AI가 만에 하나 ‘진실한 정보’를 차단한다면, 인간은 그 사실을 알아챌 방법이 없다. AI가 ‘가짜’로 낙인찍은 정보를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권한도 없을뿐더러, 권한이 있다 한들 대다수는 들여다볼 의향조차 없을 테니까. AI는 ‘알고리즘’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 알고리즘의 목적함수를 조금만 바꿔도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것이 일도 아니게 된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 틱톡에 벌벌 떠는 미국

미국은 ‘틱톡’이라는 앱의 알고리즘이 사회의식을 손쉽게 조작하는 현상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틱톡은 그저 AI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짧은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플랫폼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틱톡을 매우 위험한 앱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 18일 몬태나주에서 ‘틱톡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자유와 인권, 혁신을 따르지 않는다’며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국가에서 특정 앱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현재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1억 5천만 명에 달한다. 틱톡의 AI 알고리즘은 각 이용자가 이전에 틱톡을 사용한 기록을 토대로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만약 틱톡이 미국인 1억 5천만 명에게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들의 미세한 선호의 경향성에 관해 학습하고, 사는 지역별로 원전히 다른 콘텐츠를 추천하여 이들의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면, 이는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현실을 보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멀리 볼 것 없이 유튜브만 봐도 충분하다. SOD처럼 유익한 채널(핑곗)을 즐기며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사람들과,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던져주는 도파민에 취해 정보의 진실성을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 않은가. 과연 우리가 같은 현실을 살고 있을까?

## ‘알고리즘’과 ‘정보 통제’

구글이 직접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튜브의 추천 AI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AI에 딥러닝을 섞은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만약 내가 일본 가수 ‘아이룡’을 좋아해서 그녀가 나오는 영상을 자주 본다면, AI는 이를 학습하여 내가 다른 일본 가수인 ‘리사’를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추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노출할 정보의 내용을 선별하고 방향성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사고방식을 손쉽게 바꿔버릴 수 있다. ‘정보 통제’의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이 틱톡이라는 중국의 앱에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금지한 이유다. 유튜브는 왜 가만히 두냐고? 그건 자기들 거니까. 잘만 쓰면 국민 통제하기가 얼마나 쉬워? 미국의 컴퓨터 과학과 교수 스튜어트 러셀의 말로 글을 마친다.

“AI 연구가 어떤 목적이 없는, 순수한 연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통제 불가능한 AI의 개발은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 내용출처:

1. 헨리 A. 키신저, 에릭 슈미트, 데니얼 허튼로거, “AI 이후의 세계”, 월북, 2023
2. 『국제』, 『빅데이터: 정말로 편법화된 정보가 아니라면』, 포플러사이언스, 2023
3. 김재진, “미국이 조종당한다.. 틱톡금지논의”, mbc, 2023
4. 장재웅, “부담없이 Z세대흘리는 15초마법더재미있게웃소품플랫폼춘전국시대”, 동아비즈니스리뷰, 2020
5. 도현정, “에릭 슈미트 前 구글 CEO AI개발 6개월 중단, 틱톡 사용금지 반대”, 헤럴드경제, 2023
6. P. Covington et al., “Deep Neural Networks for YouTube Recommendations”, RecSys, 2016
7. J. Davidson et al., “The YouTube Video Recommendation System”, RecSys, 2010
8. Z. Zhao et al., “Recommending What Video to Watch Next: A Multitask Ranking System”, RecSys, 2019

# 키스 따위 안 해도 되는 이유

 키스하면 막 행복하고  
건강해져서 좋다고?  
스까.

BY <남자훈련소> 대군사 스네이크  
/ 인(기없는)남(자들의)모(임) 회장 이순근

## 키스, 입맞춤, 뾰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행위가 있을까. 특히 성과 관련된 용어는 대부분 외래어에 침탈당한 지 오래인 한국에서 입을 맞추는 행위만큼은 우리말이 살아남았다는 점이 새삼 신기할 따름이다.

현대에는 성행위를 이야기할 때 섹스라는 말을 주로 쓴다. 우리말에서는 낮에 하는 섹스와 밤에 하는 섹스를 구분해 낮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보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성적 용어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섹스’가 주는 그 강렬함과 임팩트 있는 발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다들 도태된 것이다.

구강성교의 경우에도 외국어나 일본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전통적인 우리말은 인터넷에서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곳에서나 사용된다.

말하자면 성과 관련된 우리말의 격이 낮아진 것이다.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돌려 말하거나 비유하는 것이 익숙한 유교국의 한계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뽀나 입맞춤 같은 단어는 아직도 당당하게 키스와 양립하고 있다. 물론 이미 성적인 의미의 입맞춤은 키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보다는 덜 딥한 불뽀뽀, 걸뽀뽀의 의미가 더 강하기는 하다. 하지만 내가 조선 최고의 관능 소설로 여기는 춘향전에 이미 성행위 중간중간 춘향이와 몽룡이의 키스가 절륜하게 묘사된 것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 조상님들은 물고 빠는 것의 매력을 알고 계셨음이 틀림없다. 이 찬란하게 빛나는 조상의 얼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후손으로서 뼈아플 따름이다.



## 키스가 사회적 행위인 이유

사실 키스는 꽤 애매한 위치에 있다. 물론 머리에 온통 야한 생각뿐인 사람들이야 키스는 섹스로 가기 위한 계단, 혹은 성행위 중에 이루어지는 전희 정도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실제로는 성행위가 배제된 사회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서양인들이 가벼운 키스를 인사 대신 나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입맞춤 외에도 손등에 하는 키스라던가, 이마에 하는 입맞춤 등 다양한 키스가 에티켓으로 존재한다. 키스가 성적 행위의 하위 파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나도 서양인이었다면 키스 쯤은 너끈히 해봤을 테다. 근데 왜! 하필! 극동의 작은 유교국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경험도 없는 키스를 가지고 절절하게 원고를 쓰고 있는 신세가 된 것인지 단군 할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럽다.

어째서 키스가 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었는가를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키스가 위험을 동반하고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타액과 분비물을 나누는 행위는 평소에는 병을 옮기거나 위생에 문제를 야기하는 불결한 행위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위험과 불결함을 감수하는 행위는 동질감과 사회구성원의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심각하게 개인화가 된 것이 연인간의 성행위와 키스인 것이고, 이게 무리의 사회성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 보노보의 그것이다. 아무나와 섹스를 할 수는 없으니 섹스 외의 타액을 나누는 행위인 키스로 사회성을 강화한 것이 현생인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키스를 잘 하는 것은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 ‘잘’을 생각하고 읽은 게 아니라고? 꼭 있다. 룬 찍는 법도 모르면서 펜타킬 하는 법을 찾아보는 놈들. 그런데 잠깐, 우리는 극동의 작은 유교국 사람인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키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유교국에서 친교의 의식으로 키스를 해주는 문화 따위는 없으니까. 그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다는 거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키스흙수저인 지역에서 태어나 버렸으니까. 키스는 포기하자.



## 키스 대체제는 얼마든지 있다

국제치과체인의 카셈 박사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 4분의 키스를 매일 하면 구강을 통해 9mg의 타액과 단백질, 지방 등이 교환되고, 구강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플라그도 방지해 충치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키스 대신에 이를 열심히 닦으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키스를 할 때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반려동물과 10분만 놀아줘도 충족할 수 있는 수치다. 키스를 할 바에는 반려동물을 끌어안고 10분 동안 뒹구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키스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비싸지만 반려동물은 언제나 여러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키스보다 훨씬 쉽게 달성할 수 있다.

키스에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딥키스를 1분 동안 해도 고작 6킬로리밖에 소모되지 않으니 밥 한 숟가락을 남기는 것으로 대체하면 해결된다. 운동을 하던가.

키스를 많이 하면 뇌졸증과 심장마비 발병 위험이 낮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병을 예방할 정도로 키스를 많이 하려면 한 사람만을 사랑해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 대신에 같은 효과를 가진 풍선 불기를 하자. 풍선 불기는 뇌졸증을 예방함은 물론 폐활량도 늘려주고 중이염도 예방해 준다. 심지어 여러 풍선을 불어도 도덕적 지탄을 받지 않으니 취향에 따라 이 풍선 저 풍선을 불 수도 있다.

키스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키스를 전혀 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키스를 하는 사람보다 평균 5년을 장수한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 나이 먹도록 키스도 못하는 인생, 5년이나 더 살아봤자 뭐하겠나. 그냥 5년 일찍 죽자.

다른 사람들이 키스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우리들은 더 유용하고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도 있다. 제대로 자란 성인은 평생 330시간 정도를 키스하는데 쓴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317만 5천 원을 키스 대신에 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300만 원 내고 키스를 택하겠다는 당신, 잠깐 기다려라. 매일 모닝 키스를 하는 남자의 연봉이 20~30%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 즉, 키스를 안 한다고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감당할 만큼 잘 버는 남자가 키스를 더 자주한다는 이야기다. 말하자면 저 연구는 연봉이 20~30% 높은 남자가 매일 키스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다. 키스 잘하는 사람은 결국 현생을 잘사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말자. 첫키스는 액정맛이라고 했다. 유튜버들도 본인이 아니라 2D 쪼가리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클럽도 VR로 가고, AI랑 가상 연애도 한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 가는데 키스가 액정맛이라고 비웃음을 당할 이유가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키스가 가능한 세상이 온다. 메타버스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 발전이다. 물론 그때 가서 나랑 온라인에서 키스하고 있는 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각하면 늦겠지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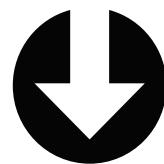
S-TALK



MAXIM × SPOONING

## 스푸닝 7인의 키스 이야기

 맨날 섹스 얘기만 하다가  
키스 얘기 하려니 부쩍  
수줍어하는 스푸닝 친구들.  
(Feat. 뉴 멤버 4인) BY 윤정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네. 스푸닝 뉴 멤버가  
곧 맥심 새 식구 아니겠어?

**인욱** **선** **나리** **다영**: 안녕하세요~ 맥심 독자  
여러분!

이번 토크 주제는 키스다. 다들 첫 키스는 언제?

**나리**: 난 중1. 첫 남친이 놀이터에서 갑자기  
갈겼어.

**은지**: 어머 조숙했네. 난 중2.

**인욱**: 어? 나도!

**선영**: 둘이 한 거 아니야? 나도 중2 때 했는데...  
상대가 여자였어.(웃음) 한창 성에 대해 궁금할  
때라 베프랑 집에서 놀다가 화끈하게 해버렸지.  
서로 부둥켜안고 5분 넘게 했는데 온몸이  
간지러우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떡잎부터 남달랐구만. 다른 친구들은?

**설희**: 고1이었나, 고2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다영**: 난 20살이 되는 1월 1일에 처음 했어.

19살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성인이  
되자마자 한 거라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선**: 나도 스무 살. 둘 다 처음이라 완전 침  
범벅이었지.





한 개의 입으로는  
태어날 수 없나니  
우린 뱃속에서 응알이 대신  
입 맞추는 연습을 했네.  
지퍼처럼. 복화술처럼.

이민하,  
〈첫 키스〉 中

舌

설화,

입술이 가장 예쁜  
미스맥심 피어보라,  
하였더니  
설화가 활짝 웃더라.

BY 박종우  
PHOTOGRAPH BY 손톱

華



그때,  
나는 황홀이라는 집 한 채였다

조정인,  
〈키스〉中



우리  
입 맞추어요,  
꽃은 지고요,  
날은 저물고 말지요,

장석주,  
〈꽃나무 밑에서의 입맞춤〉中

## MISS MAX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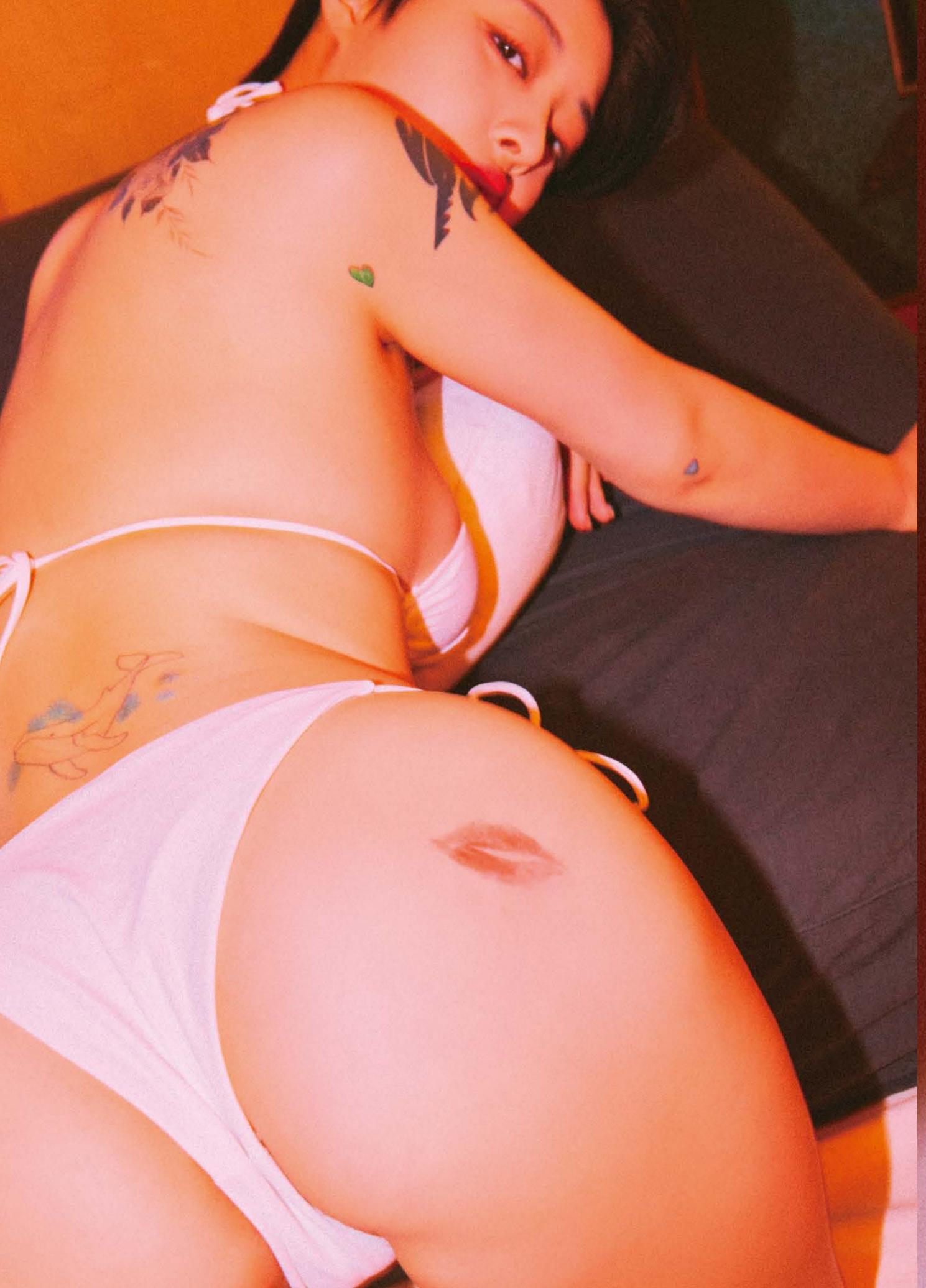
목구멍 깊숙이  
타액이 흘러드는 듯  
여자는 제 몸의 꽃송어리를  
발꿈치 아래의 벼랑으로  
흘려보낸다

...

꽃송어리 송어리가  
무너져 내리는 곳  
여자의 등허리 아래쪽은 언제나  
벼랑이다

오정국,  
<금빛의 가운을  
두른다고 해서> 中





입안에서 젖은 손이 나와  
다른 손을 마중나가는  
이 행위 예술은  
입을 가장 입답게 해방시킨다  
점막이 점막을 밀고 들어가는  
혀끼리의 아득한 포옹

정철훈,  
〈키스라는 물건〉中





그대와 나의 입 안에서  
사랑에 빠진 두 물고기가  
놀고 있는 것 같아  
솟물고기가 된 당신의 혀와  
암물고기가 된 나의 혀가

이선영,  
〈그대와의 입맞춤〉 中

# MISS MAXIM

미스맥심 김설화

인스타그램: morakano.\_  
유튜브: 이거 설화나?



당신 몸에 범람하는 강물  
풀잎 끝에 반짝이는 은밀한 숨소리  
입안에 가득 고이는 키스의 물

채호기,  
<키스> 中



## MISS MAXIM



두 개의 목이  
서로의 얼굴을 바꿔 얹을 때

내 얼굴이  
너의 목에서 돋아나왔을 때

김행수,  
〈숲속의 키스〉中



그대와 눈을 감고  
입맞춤을 한다면 그것은

서로의 텅 빈 마음처럼  
외골수로 남아있던  
뭉근한 붉은 살점 한 덩이를  
기꺼이 내밀어 보는 일이고  
혀 밑에 감춰둔 다른  
서러움을  
기꺼이 맛보는 일이다

이영옥,  
〈입맞춤〉中



## 미스맥심 설화 영상 무식제판

Member Me & Likey

맥심 채널에서  
대공개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  
서비스 '멤버미' 또는  
'라이키'로 오면 돼!



### 맥심 빨간맛 엑기스가 궁금해?

맥심의 무식제판 영상을 볼 수 있는 구독 플랫폼 라이키와 멤버미. 유튜브의 탄압에 늘 시달리는 맥심이 진정한 엑기스를 여기로 피신시켰다. 우리 PD들이 무식제원본까지 미친듯이 올리고 있으니, 멤버미 또는 라이키에서 맥심 채널을 찾아오라!

### <미맥콘> 무식제판 아직 안 봤어?

맥심의 새 간판스타를 발굴하는 리얼 투표 서바이벌 <미맥콘> 시리즈! 올해도 시작부터 뜨겁다. 하지만 유튜브엔 사정없이 가위질을 한 순한 맛만 머락된다. 그녀들을 더 가까이서 오~래 찍은 클로즈업 풍태이크 무려진본이나, 아찔한 댄스 장기자랑 등의 엑기스는 오직 <미맥콘> 무식제판에만 있다! 빨리 들어와서 구독해!

### 어디서 보나

스마트폰 앱 '멤버미'나 '라이키' 깔고 '맥심' 검색해 가입!

# 맥심 육체미 구락부 정.력.강.화 홈트레이닝

남자는 팔뚝! 이번 달에는 전완근  
강화 맨몸 운동으로 달려볼까요?  
BY 이린

## 이달의 운동

### # 리스트 프레스

우람한 팔뚝과 방탄 손목 레쓰기릿!  
여자들이 뽕 가버리는 남자 신체 부위 중 하나가  
팔뚝인 거 아시죠? 두툼하게 갈라진 전완근이랑  
눈 마주치면 설레는 거 나만 그래?(웃음) 전완근은  
일상에서 무리하게 사용할 일이 없어서, 두껍게  
타고났거나 따로 단련하지 않는 이상 크게 발달하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해 성실하게 운동하는 남자거나,  
유전자가 좋다는 신호!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유일지도?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리스트 프레스'  
예요. 전완근 단련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동작인데,  
재활치료에도 사용하는 동작이라 손목 힘이 약한  
분들에게도 최고! 들기, 때리기 등 남자답게 '힘쓰는  
것'에 핵심인 근육이니까, 아낌없이 단련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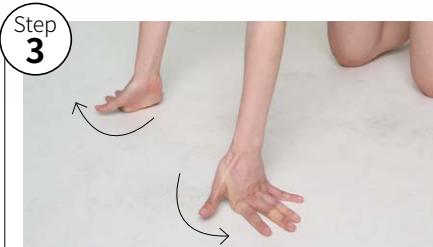
Step  
**1**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양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주세요. 일명 고양이 자세♥



Step  
**2**

손바닥 윗부분으로 살포시  
바닥을 눌러주고, 손목을 위로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온 다음  
같은 동작을 10~15회 반복하기! 이때 상체  
반동이나 다른 근육의 개입을 줄이고, 오직 손목  
힘으로만 상체를 밀어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



Step  
**3**

양 손가락 끝이 몸의 중심에서 바깥을 향하도록  
펼쳐주세요. 이 상태로 방금 했던 것처럼 손바닥  
윗부분으로 바닥을 눌러주면서, 손목 힘만을  
사용해서 상체 들어올리기 10~15회 실시!

Step  
**4**

끝으로 양 손끝이 몸통 쪽(나를)  
기준으로 시계 6시 방향!)으로 두고,  
같은 동작을 10~15회 반복해 주세요. 1번~4번  
스텝을 한 세트로, 총 3세트 반복하면 운동 끝!  
강도를 높이고 싶은 상남자라면 바닥에서 무릎을  
떼고(엎으려 뻗친 자세) 도전해 보세요! ♥

## 트레이너 이린

- 일본 그라비아 아이돌
- 무술 종합 17단
-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학사
- 용인대학교 체육교육 대학원 석사
- 체육 교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보디빌딩 자격증 보유

# 비동의 간음죄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누구의, 무엇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BY 국민의 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일단 해보고(?)  
나중에 결정할게요.

님  
동의하세요?



상남자에게 키스란 종점이 아니라 정거장이다. 물론 키스라는 행위 자체로도 나름의 소중한 의미가 있겠지만, 상남자들은 키스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농밀한 자극을 향해 달려간다. 키스는 미완성의 스킨십이다. 클래식 장르의 명곡 중에는 미완성이기에 더 아름다운 곡들도 있지만, 섹스라는 클라이맥스에 이르지 못한 키스는 언제나 아쉽기만 하다. 키스를 논하자는니 어찌 오버하여 섹스를 끄집어내 선을 넘는가. 필자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

## 바로 ‘비동의 간음죄’다.

최근 정의당과 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형법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성관계 동의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섹스는 죄가 되니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태에서 강제로 하는 섹스는 강간이고, 파렴치한 범죄다. 강간이 여성에게 미치는 심리적, 육체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금의 형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지경이다.

그러나 ‘강간’과 ‘비동의 간음’은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강간은 말 그대로 ‘강제로’ 성교하는 경우고,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교하는 경우다. 같은 말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 차이를 감지할 예리한 독자도 있겠다. ‘동의가 없이 했다’와 ‘강제로 했다’는 그 단어가 내포한 의미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비동의’라는 개념은 ‘강제’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문제는 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가령 어떤 싸가지 없는 언행을 일삼는 놈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싸가지 없는 언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 싸가지 없는 언행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설령 ‘무(無)싸가지 언행을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다 한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금방 무력화될 것이다. ‘싸가지 없는 언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기에 판사 개인 재량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지켜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 ‘비동의’란 무엇인가?

어느 날 썸녀가 당신에게 “라면 먹고 갈래?” 라며 제안했고, 그녀의 집에 가서 분위기를 제대로 탄 나머지 사랑까지 나눴다 치자. 이때 그녀의 “라면 먹고 갈래?”는 섹스에 대한 동의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는가? 이번 달의 주제인 키스를 곁들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썸녀가 당신에게 “키스해도 좋아”라며 명시적으로 키스를 허락했다. 당신은 그것을 섹스까지 리드해도 좋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섹스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보자. 예시의 그녀는 섹스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그녀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은 오직 키스뿐이므로, 두 사람 모두 행복했다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을 ‘동의하지 않은 섹스’를 저지른 중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하는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당신이 ‘동의’로 이해한 상대의 의사 표현이, 상대방 개인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비동의(그것이 진심이든 무고든)가 될 수도 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 가령 썸녀가 당신 손을 덥석 잡더니 “나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기에 섹스했는데, 며칠 뒤에 “너랑 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왜 그랬어?”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그녀는 당신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당신은 비동의 강간이라는 성폭력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된다. 여자가 손을 잡고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그날의 맥락과 사실이 중요할까? 지금 그녀가 “그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신과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었다”라며 자신은 ‘섹스에 동의한 적이 없음’라는 주관적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가.

## 여성의 눈물은 진짜로 증거가 된다

비동의 간음죄를 차치하고서도, 성범죄의 경우 최근 재판 실무에서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오직 ‘여성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남성이 아무리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준비해 제시하지 않는 한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으로 감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자 뮤지컬 배우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 2심에서 겨우 무죄를 선고받는 등, 우리 사법부는 여성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남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요즘 여기저기서 ‘계약서라도 쓰고 섹스해야 하냐’라는 농담이 농담만으로는 들리지 않는 이유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다면, 연인 간의 섹스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물증’을 마련할 방도를 찾지 않는 이상 쉽게 사랑을 나눌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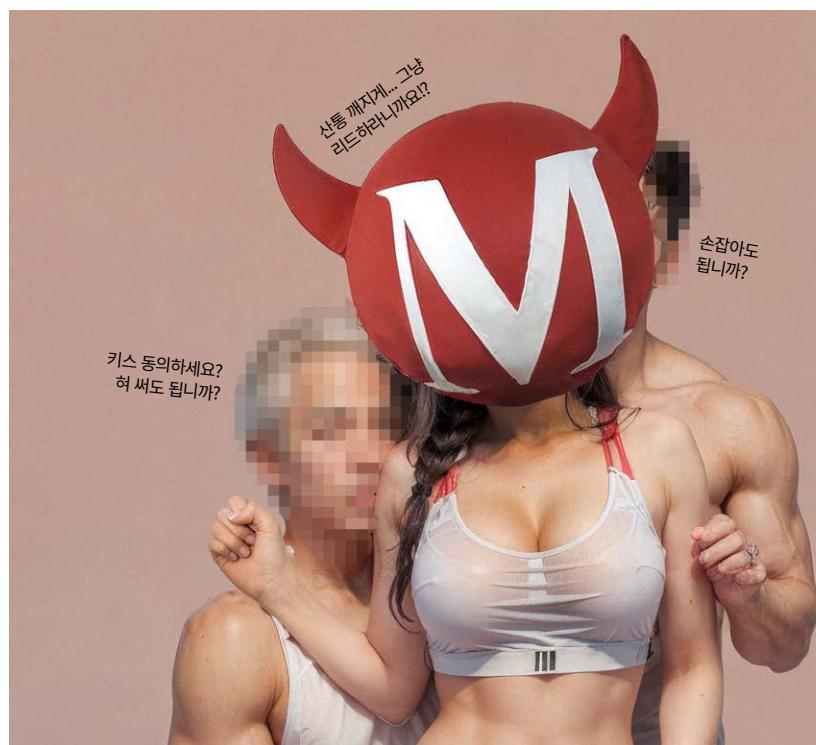
이처럼 비동의의 개념이 모호한 경우,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철학에 따라서 처벌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모호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하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이다.

## 사회주의 위장 수입을 경계할 것

과거 스탈린 시대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는 국가들에서 존재했던 ‘형법의 유추해석’이란 것이다. 유추해석이란 형법에 죄명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죄명으로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중국은 최근에야 유추해석 포기를 선언했다. 당연히 북한은 아직도 적용하고 있고, 누군가의 재량에 따라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음이 뒤바뀌는 비동의 간음죄는 유추해석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이나 북한이 하던 행동을 우리가 따라 할 필요가 없다.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무겁게 처벌해야 하므로, 누군가를 너무 가볍게 강간범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연애하기 힘든 2030 남성들에게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은 그들의 용기를 막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현실에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인식을 사회에 심을 우려가 있다. 이는 필시 남녀 갈등과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신성한 키스를 논하는 장에서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키스할 때, 성관계를 할 때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나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기에 두렵다는 생각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에 반대한다. 🌟



# MISS MAXIM CONTEST

## 2 ROUND START!

숨 막히는 경쟁 끝에 여수행 티켓을 거머쥔  
미스맥심 후보 TOP 28의 비키니 화보를  
공개한다! BY 배주영 PHOTOGRAPH BY ZINHO

1 ROUND 19위

| 쥬

직업: 프리랜서  
이상형: 배울 점 많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도움을 줄 때  
인스타그램: bjuu\_.jj

1라운드 19위. 만족하십니까?

제가 투표 기간 내내 안정권에  
든 적이 없어요... 들어갈 때마다  
순위가 내려가서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무슨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웃음) 그래도 안전하게  
올라와서 만족합니다.

그나저나 아까 멀리서 보고  
아무것도 안 입은 줄 알고 놀랐어!  
깜짝 놀라셨죠~?(웃음) 오늘 입고  
온 비키니 말고도 후보가 엄청  
많았답니다. 완전 섹시로 갈지  
아니면 귀엽고 화려한 걸 입을지





쥬

키: 160cm  
어필 포인트:  
직각 어깨, 핑크빛 피부

고민하다가 결국 기본템으로...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  
피부가 하얀 편이라 밝은 색이 잘  
받아서 이걸로 꼭했죠.

**오늘 촬영하는 동안 어땠어?**  
표정이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셔서 포즈도  
잘한 것 같고. 부담감을 많이 덜고  
찍을 수 있었습니다.

**오호라~ 그럼 이번 투표에서는**  
**상위권 노려봐도 되겠는데?**  
1리운드 땐 미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독자님들께서 저의  
나아진 부분을 알아봐 주시고,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해요! 3라운드  
올라가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큐티  
섹시 코스튬 보여드릴게요! 투표  
많이 해주세요~ 🌟

## MISS MAXIM CONTEST

1 ROUND 4위

|려니

직업: 아프리카TV B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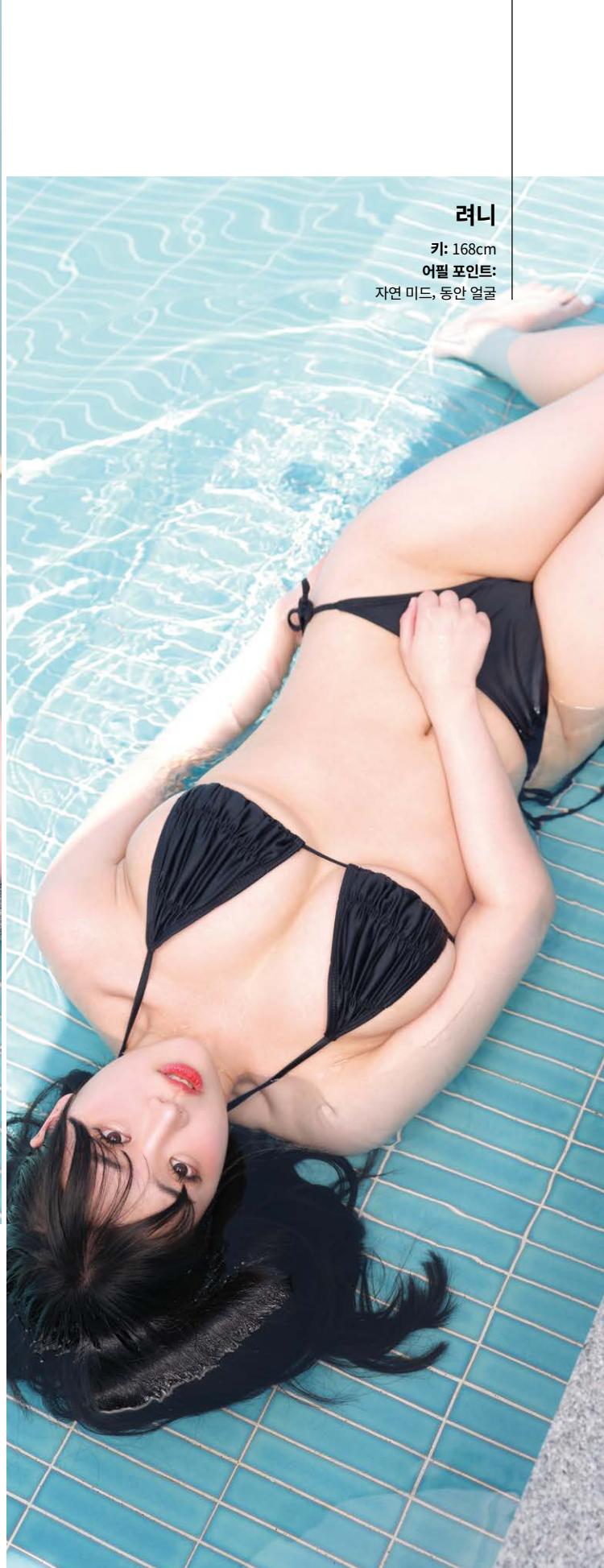
이상형: 배울 점이 많고 눈웃음이 예쁜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나를 꽉 안아줄 때

인스타그램: jjr\_\_r

살쪘다고 걱정하더니. 뭐가 살찌!!!  
한 달 넘게 갑기가 안 떨어져서  
진짜 고생했어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살이 6kg  
나 쪘서...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긴  
했는데 얼마 못 뺐어요. 흑흑...☆

전에 말한 비장의 무기는 잊지 않고  
챙겨왔겠지?(두근두근)  
여러분도 1라운드 때 미드 반동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최대한



려니

키: 168cm

어필 포인트:

자연 미드, 동안 얼굴

잘 보여줄 수 있는 면적 작은  
비키니를 입고 왔답니다! 얘가 정말  
잘 되거든요.(웃음) 자연 미드의  
자부심! 느껴지나요~?

**네! 느꼈어요...♥ 확실히 1라운드**  
**때보다 편해 보이네.**  
지난번에 너무 긴장해서 덜덜  
떨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다른 참가자분들이랑  
친해지기도 했고, 두 번째 촬영이라

그런지 확실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3라운드 올라가서 날아다닐  
일만 남은 건가?**  
제가 코스튬은 자신 있거든요!  
직업이 BJ라 이쪽 분야는 거의  
전문가라고 봐야겠죠? 그때까지  
관리 열심히 해서 육덕+섹시+큐티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투표해 주세요~! 🌟

I ROUND 15위

# |그린|

직업: 아프리카TV BJ  
이상형: 말 예쁘게 하는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걷어 올린 셔츠에 핏줄 보일 때  
인스타그램: 92green92

짝짝짝! 40인치 엉덩이를 드디어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독자님들께서 투표 많이 해주신  
덕에 무사히 1라운드 통과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뽐아주신  
독자님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왔습니다! 보답으로  
엉덩이도 열심히 어필을... (웃음)

생각보다 심플한 걸 입고 왔네?  
청순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어필하고  
싶었는데 흰색 끈 비키니만 한 게  
없더라고요. 사실 투표 끝나고부터  
2라운드 촬영까지 시간도 얼마  
없다 보니까... 오래 고민하지 말자





해서 저랑 어울리면서도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그럼 오늘은 엉덩이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는 거 맞죠? 헉헉...  
그럼요! 제 강점인 엉덩이를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밑에서 찍는 포즈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촬영 스팟도 계단으로 정했고요. 그때부터 엉덩이만 생각하면서 계속 내밀었는데.(웃음)

아마 그때 찍은 사진이 제일 잘 나오지 않았을까요?

역시 유니폼보다 비키니 입었을 때가 훨씬 골저스하십니다.  
오늘 40인치 엉덩이는 원 없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햇빛이 너무 밝아서 표정을 잘 못 지었어요.  
어쩔 수 없이 3라운드에 꼭 올라가야겠네요!(웃음) 여러분~ 이번에도 저 많이 뽑아주세요! 🌟



그린

키: 167cm  
어필 포인트: 엉덩이

## MISS MAXIM CONTEST



처음으로 미맥콘 투표 맛을 본  
소감이 어때? 매콤하지?  
와... 일주일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실시간으로 순위  
바뀌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전투력이  
막 상승하는 거 있죠? 2라운드 가면  
진짜 잘해야겠다 하면서 자극 많이  
받았습니다.(이글이글)

웃만 봐도 전투력이 느껴진다!  
여수 오기 직전까지도 결정을 못  
해서 바리바리 다 챙겨 왔는데,  
여기 헛빛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오렌지색 비키니를 입으면 '건섹  
(건강한 섹시미)'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골랐습니다!

오늘 2라운드 슈퍼패스까지  
획득했다며?  
덕분에 이번 투표 기간에는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됐습니다.(웃음)

1 ROUND 18위

|민e

직업: 필라테스 강사  
이상형: 다정한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무언가  
집중할 때(일이든 운동이든, 뭐든...)  
인스타그램: 93sss

**다른 참가자들이 부러워했겠다.**

투표 결과에 상관 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부러워했죠. 축하도 해주고! 3라운드 의상 준비하는 것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여유가 있으니까요.

**슈퍼패스 개꿀... 이번 투표 기간은 누구보다 느긋하게 지내도 되겠다.**

그래도 투표 결과를 아예 무시하긴 힘들 것 같아요. 투표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일 홈페이지 들어와서 꼬박꼬박 한 표씩 날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감동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그 감동 더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e**

키: 166cm

어필 포인트:

스케이트로 다져진 건강한 허벅지



## MISS MAXIM CONTEST

1 ROUND 5위

E다연

직업: 전 치어리더, 아프리카TV BJ  
이상형: 내가 1순위인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손이 예쁠 때  
인스타그램: dayeosin

몰랐어요. 여수 바다에서  
인어공주를 만나게 될 줄은...

오늘 제 콘셉트가 인어공주입니다!  
조개껍데기랑 비누방울 같은 소품도  
왕창 준비했는데, 여수까지 들고  
오기엔 너무 많아서 살짝 내려놓은  
(?) 인어공주가 되었네요.(웃음)

콘셉트에 누구보다 진심인 듯.  
구독자기님들이 원하는 모습  
보여드리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죠♥ 저는 원서 접수한 날 이미  
마지막 라운드 콘셉트까지 그림을  
다 그려놨답니다. 3라운드에도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못 보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고?**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바닥에  
무릎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포토 실장님께서 사진이 너무 잘  
나온다고 계속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 듣고 신나서 촬영  
내내 난리를 쳤는데, 지금 제  
무릎한테 조금 미안해지네요...

**공주님, 이 정도 열정이면 무조건  
결승까지 가셔야 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한  
친구들도 모두 고생 많았거든요.  
구독자기님들께서 저희 다 예쁘게  
봐주시고 투표까지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중에서도  
저는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웃음) 구독자기님들~♥  
E다연 쭉 밀어주세요! 🌟

## MISS MAXIM CONTEST

1 ROUND 12위

# |양서윤

직업: 마케터, 중국어 번역가  
이상형: 다정하고 다리가 예쁜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예쁠 때  
인스타그램: annakim\_s.y

투표 기간에 어떻게 지냈어?  
그냥 잘 지냈어요.

아...하!(머쓱) 2라운드 와보니까 어때?  
저를 뽑으신 분들의 안목이 얼마나  
하이엔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로봇인가요? 오늘 선글라스까지  
챙겨왔던데 무슨 콘셉트인지 궁금하다.



양서윤

키: 163cm  
어필 포인트:  
허리

어차피 제가 섹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청순으로 가자니 독자분들이 좀 뒤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Y2K로 준비했습니다.

**신선한데? 미맥콘에서 Y2K 콘셉트는 처음 본다.**  
그래요? 촬영할 때 우왕좌왕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오늘 아침에 기차를 놓치는 바람에 멘탈이 살짝 나갔거든요. 물론 제

잘못도 있는 거니까 정신 차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내가 괜한 질문을 해버렸구나.  
고멘나사이...☆**

그래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말 안 해도 하이엔드 안목을 가진 분들께선 절 뽑아주실 거라 믿어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

## MISS MAXIM CONTEST

I ROUND 24위

# |이연우

직업: 대학생  
이상형: 똑똑하고 선한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수학 문제 척척 풀 때  
인스타그램: yeonwooahh

연우 씨~ 여수 공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웃음) 제가 여수를  
몇 번 오긴 했었는데, 오늘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대학교 앰티보다  
더 재밌어요! 독자님들 덕분에  
여수도 놀러 오고 비키니 화보도  
찍게 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미맥콘 콘셉트 중에 비키니 화보가  
가장 자신 있다고 했었지?  
맞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일이 있어도 비키니 화보는 꼭 찍고  
싶었거든요. 저번 라운드랑 다르게  
의상부터 배경까지 직접 고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이 비키니를 고른 이유가 뭐야?**  
제 장점인 내추럴함을 살리려고  
노 와이어 끈 비키니를 골랐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촬영하면서 칭찬이 끊이질 않더라.**  
물에 들어가서 배영 자세로 찍는  
건 처음이었는데, 포토 실장님께서  
포즈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목에 담 걸릴 것 같았지만 꼭 참고  
끝까지 찍었습니다.(웃음)

**담 걸릴 정도로 열심히 찍었는데,  
3라운드 안 올라갈 수 없지!**  
맥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연우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제가 자신 있다고 했던 비키니  
라운드였는데요. 무려 노 와이어  
끈 비키니로 대활약을 했으니까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색다른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라운드에서도 꼭  
만나길 바라요~♥

## 이연우

키: 172cm  
어필 포인트:  
힙, 바스트



## MISS MAXIM CONTEST

I ROUND 20위

# | 챌설아

직업: 간호조무사  
이상형: 낮은 목소리에  
웃는 게 예쁜 귀여운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안았을 때 좋은 향이 날 때  
인스타그램: sul\_ppp

여수에 온 걸 환영해! 지금 기분은?

일단 제가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독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첼시 팬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수 갓김치랑 간장개장  
먹고 싶습니다!(웃음)

비키니만 봐도 첼시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비키니 중에서  
가장 비싼 비키니일걸요? 첼설아  
넉넉하려고 특별히 제작했거든요.





첼설아

키: 163cm

어필 포인트: 자연 가슴,  
타고난 골반, 엉덩이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술땡 앱에서 숨어있는 고수를 찾아  
의뢰했답니다!

찐 고수를 찾았구나? 3라운드 가면  
첼시 유니폼 입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유튜브 댓글에 첼설아는 3라운드  
코스튬 미션 때 첼시 유니폼 입고  
나올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예상은 틀렸습니다. 오늘

이미 비키니로 첼시를 밀었으니까  
코스튬은 좀 더 색다른 걸로!

첼시가 빠진 첼설아의 코스튬이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시면  
투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라운드 투표에서도 맥심  
독자님들과 첼시 팬분들의 화력을  
믿어보겠습니다!(웃음) 항상 절  
응원해주세요 감사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

## MISS MAXIM CONTEST

1 ROUND 16위

# | 희야

직업: 헬스 트레이너

이상형: 둠직하고

나한테만 한없이 다정한 남자

남자가 섹시한 순간:

내가 못 하는 걸 뚝딱 해결해줄 때

인스타그램: \_yome\_kim

(진실게임 시~작) 난 2라운드까진

당연히 진출할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그랬는데 투표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날

31위까지 내려갔거든요.(웃음)

투표 결과 나오고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 기분을 투표할

때마다 느껴야 한다니!

왜 혼자만 모노키니를 입고 왔어?

애랑 빨간 비키니를 최종 후보로

두고 고민했어요. 그건 끈이 많이

달려서 남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입어보니까 몸 선이 안

예뻐 보여서 최종 탈락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남미 엉덩이 보여주기로  
약속했던 거 잊지 않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촬영 스팟을  
일부러 야자수로 골랐어요.  
아성미 넘치는 남미 언니들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좀 더 확실한  
남미 엉덩이를 위해...(웃음) 오늘  
제가 진짜 엉덩이만큼은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럼 독자들한테 엉덩이... 아니,  
어필 발사!!!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희야입니다!  
일단 저를 뽑아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투표 때도 저의  
아성미 넘치는 남미 엉덩이를 향해  
소중한 한 표 날려주시면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약속~ 🌟



희야

키: 160cm

어필 포인트: 운동으로 다져진  
탄력 있는 남미 엉덩이

## MISS MAXIM CONTEST

1 ROUND 14위

# |김마요

직업: 아프리카TV BJ

이상형: 향기 좋은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어깨가 넓어 보일 때

인스타그램: kimmayooo

**투표 기간에 맘고생 많이 했다면서.**

투표 때문은 아니고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미맥콘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투표 끝나기 전에 하차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근데 막상 2라운드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웃음)

**1라운드 때 비키니는 자신 없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비키니가 정말 힘들어요.

자연산 G컵 가슴이면 무슨 짓을 해도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든 끈을 세게 조여서 모아도 실제 크기보다 한참 작아 보인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꿀찌 할 각으로 왔어요...



너무 과하게 겸손한 거 아니야?  
오늘 촬영 분위기도 엄청 좋았는데.  
1라운드 때보다 칭찬을 훨씬 많이  
듣긴 했어요! 실장님께서 디렉도  
많이 해주시고, 바닥에 누워서까지  
찍어주셨거든요. 덕분에 긴장감도  
금방 풀리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존감도 올랐으니 그대로 3라운드  
올라가즈아~  
1라운드에서 떨어질 확률 98%라고  
생각했었는데, 독자님들이 저한테  
투표해 주시는 거 보면서 힘든  
순간마다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쭉 응원해주세요! 🌟



김마요

키: 171cm

어필 포인트: 자연적인  
가슴과 큰 엉덩이,  
직각 어깨

1 ROUND 17위

# 래현

직업: 치과위생사  
이상형: 웃는 게 예쁜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팔에 힘줄 땄!!!  
인스타그램: rheiday\_

포브스 선정! 분홍색 비키니가 가장  
잘 어울리는 미스맥심(후보)!  
잘 어울리나요~?(웃음) 이거랑  
레몬색 비키니를 놓고 뭐 입을지  
계속 고민했는데, 핑크 입었을 때가  
얼굴이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요기 막 체인 포인트도  
달려있고!

1라운드 때 개미허리 못 보여줘서  
아쉬워했잖아.





래현

키: 158cm

어필 포인트: 목, 허리



기억하고 계셨네요! 오늘 비키니 입고 그 한이 조금 풀리긴 했는데, 아직 사진을 못 본 상태라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웃음)

그나저나 선거 유세를 열심히 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던데... 투표 초반에는 제가 안정권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갑자기 혹 떨어지는 거 있죠? 다들 투표 기간 되면 긴장하는 이유를

깨달았답니다. 순위가 실시간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너무 떨렸어요...

2라운드 투표가 더 빠센 거 알지?  
독자님들에게 제 진심을 전해도 될까요?(웃음) 독자님들~ 저 다음 라운드도 너무너무 찍고 싶습니다.  
아직 보여드려야 할 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많이 해주세요! 🌟

## MISS MAXIM CONTEST

1 ROUND 29위

# 옐랑

직업: 웹디자이너

이상형: 눈웃음이 귀여운 사람

남자가 섹시한 순간: 좋은 냄새 날 때,

게임 잘하는데 티 안 낼 때

인스타그램: lovelyyelllang

직장인이라 여수까지 오기  
힘들었겠다.

저의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연차를  
영끌해서 왔습니다. 근데 연차 쓴  
게 아깝진 않아요! 직장인들은  
공감하겠지만, 평일에 이런 여유를  
만끽하기 쉽지 않잖아요.(웃음)

비키니 고를 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적정선을 잘 지켜줄 비키니를  
찾느라고 고민 많이 했어요.



면적이 너무 좁아도 별로일 것 같고, 다 가리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참가자랑 비키니가 겹칠 걸 대비해서 7벌 정도를 더 챙겨왔습니다!

**어쩐지 가방이 묵직하더라!**  
**여행객인 줄 알았다능...**  
사실 놀러 온 기분이긴 해요.(웃음)  
여기 숙소도 너무 좋고, 다른 참가자들이랑 금방 친해져서 진짜

추억 많이 쌓았거든요! 게임도 너무 재밌었고... 내일 긴장개장까지 먹고 올라가면 딱 좋겠네요!

### 3라운드에서도 재밌는 경험

#### 만들어야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 운명이 독자님들 손에 달려있어서... (웃음) 이번 라운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독자 여러분께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라요~! 🌟



옐랑

키: 166cm  
어필 포인트:  
가슴, 몸 라인

추가 합격!

1 ROUND 31위

# | 해나

직업: 회사원

이상형: 나보다 잘 먹는 사람,

강철 체력과 멘탈

남자가 섹시한 순간:

기기 잘 다루고 센스있게 말할 때

인스타그램: jency\_edc

2라운드도 정말 어렵게 올라왔다.

31위인 거 보고 끝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앞에 두 분이 하차하게 되면서 기적처럼 올라왔습니다.

(웃음) 예선도 슈퍼패스 받고 겨우 올라왔는데! 미맥콘 정말 쉽지 않네요.

눈빛이 달라 보여. 뭐랄까, 준비된  
자의 눈빛이랄까?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촬영 연습도 하고. 연습하면서 빨강이랑 초록색 비키니를 입었는데, 둘 다 저한텐 너무 아니더라고요. 어떤 색상이나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그때 딱 파악했죠! 미리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최종 선택은 검정 비키니가 되었군요.

뭔가 저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의상은 블랙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랙으로 정했어요. 이제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별문제 없어 보이죠?(웃음)

비키니가 뭐가 중요하냔 생각이 든다. 피지컬이... 워후!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점점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합니다. 저 뽑아만 주시면 정말 약속할게요. 변신해서 돌아오겠다고.(웃음) 저한테 한 표 꼭 날려주세요~ 파이팅! ㅋㅋ

해나

키: 168cm  
어필 포인트:  
상체 라인



1 ROUND 29위

# | 정은이 |

직업: 환경연구원

이상형: 무쌍에 웃을 때 귀여운 사람,  
우쭈쭈 잘해주는 오빠

남자가 섹시한 순간:

잔근육에 타투 보일 때

인스타그램: jj\_.xxvely

투표 첫 경험 후기부터 들어보자!

지하 세계에 숨어 지내다가 빼꼼  
나와서 봤는데, 조금 올라갔다가 훌  
떨어지고 또 조금 올라갔다가 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엔 저 진짜  
수직 낙하했거든요? 아... 난 여기서  
탈락이구나 확신했죠.

다행히 턱걸이로 아슬아슬하게

붙었다.

그러니까요! 저 완전 포기  
상태였어요. 비키니 뭐 입을지도



**정은이**

키: 162cm

어빌 포인트:

허리라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2라운드 진출

확정되자마자 급하게 이것저것

찾아보고 주문했어요.(웃음)

**원래 다른 빅키니 준비했었다고?**

근데 퇴짜 맞았습니다.(웃음) 면적이

너무 작아서 여기서 입으면 안

된대요... 아쉽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입은 것도 골반 라인이 잘 보이긴

하거든요. 이쪽 위주로 유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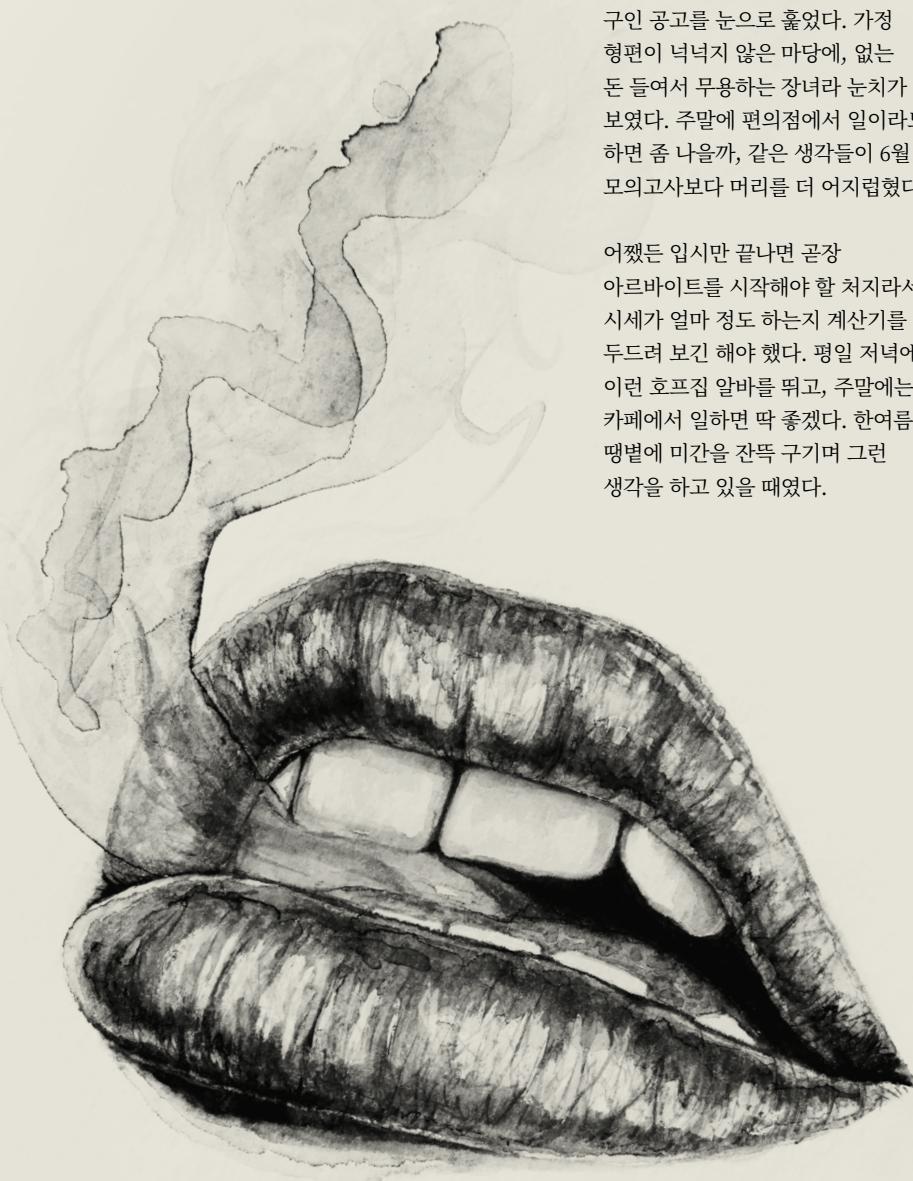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3라운드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맥심에서 제일 찍고 싶었던  
게 코스튬 화보거든요. 어렵게  
올라오긴 했지만 3라운드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독자  
여러분, 저 올라갈 수 있게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기대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던힐과 나이트

밤길을 지켜주던 날라리 기사님과 열여덟 소녀의 사랑 이야기. BY 김지운



푹푹 찌는 한여름 오후.  
교복 차림으로 학원가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서 정류장 바로 건너편  
식당인지 술집인지 모를 가게에 붙은  
구인 공고를 눈으로 훑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마당에, 없는  
돈 들여서 무용하는 장ner라 눈치가  
보였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이라도  
하면 좀 나을까, 같은 생각들이 6월  
모의고사보다 머리를 더 어지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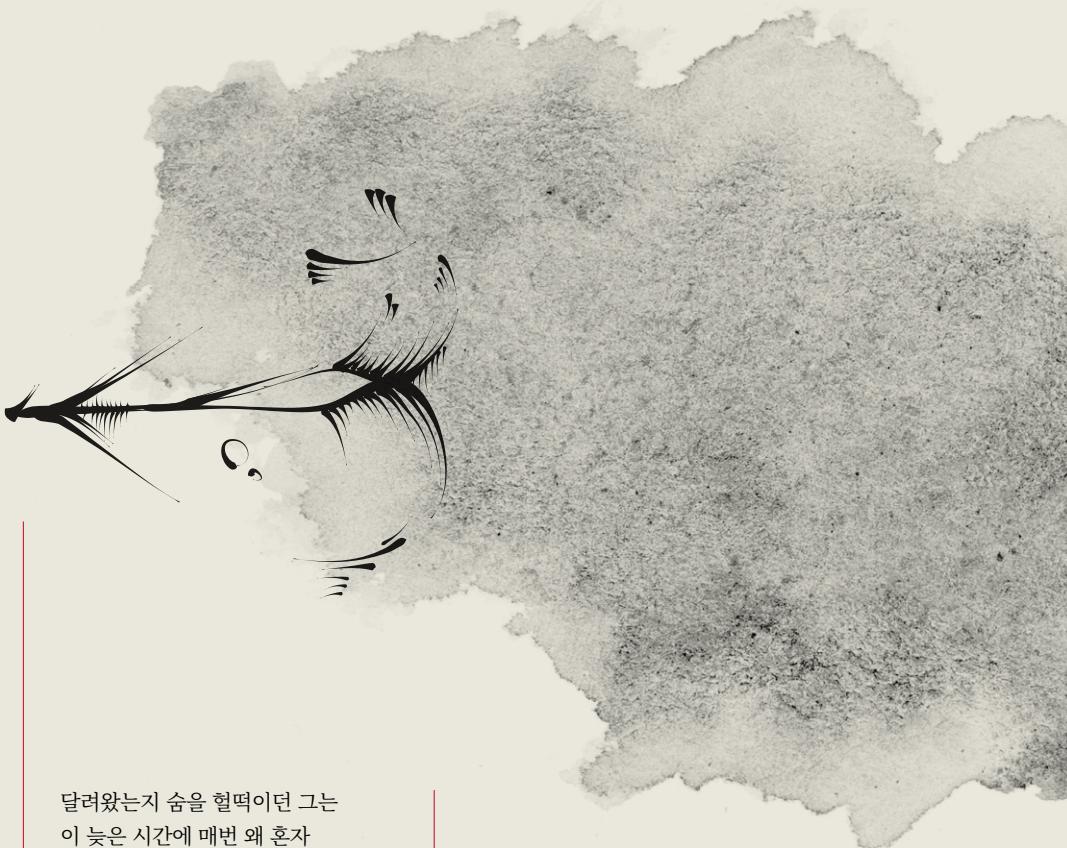
어쨌든 입시만 끝나면 곧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할 처지라서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긴 해야 했다. 평일 저녁에  
이런 호프집 알바를 뛰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하면 딱 좋겠다. 한여름  
땡볕에 미간을 잔뜩 구기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민짜 안 받는다.”

컴컴하게 불이 꺼져 닫힌 줄 알았던  
가게에서 누군가 말했다. 컬컬하게  
꽉 잡긴 목소리와 대뜸 내뱉는 반말에  
흠칫 뒤로 물러섰다. 그 무렵의 나는  
숙취에 절은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알지 못했기에, 뵐약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잔뜩 찡그린 얼굴과  
나를 한참 앎잡아보는 시선이 그의  
첫인상이었다. 그리고선 학생이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뭘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느냐며 톡 보태는  
몇 마디는 더 죄악이었다. 뭐라고 더  
웅얼거리다가 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에 대고 입시가 끝나도  
여기서 일할 일은 없어야겠다는  
일종의 확신 같은 걸 했다.

마을버스 막차를 타고 학원에서  
돌아올 때도 그 가게 앞을 지나야  
했다. 소녀 시절 내 여린 감수성  
어딘가에 쪽팔림이 들어섰다. 지금  
생각하면 이어폰 꽂고 모르는 척  
지나면 될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  
앞을 지나는 것이 못내 떨떠름하고  
께름직했다. 후다닥 지나야지.  
그런데 낮과 달리 환하게 불이 켜진  
그의 가게에서 앞에서, 하필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겠는가.  
아까랑은 달리 제법 멀끔하니  
사람다운 몰골, 아니, 깔끔하게  
잘생긴 얼굴이었다. 어린애일수록  
눈이 솔직하지 않나. 가게 안도 여자  
손님으로 북적댔다. 지금보다 더  
솔직한 안목을 지니고 있던 나는  
그를 ‘생긴 건 잘생겼는데 무례하기  
그지없는 아저씨’라 단정 지었다.  
첫인상부터 꽁이었던 소리다.

“고딩, 이제 가?”



세상에. 짧게 눈을 맞추고 후다닥  
도망치듯 걸었다.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지? 언제 봤다고 반말이나 찍찍하고  
말이야. 앞으로 마을버스에서  
내리면 다른 골목으로 멀찍이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다 문득,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유난 아닌가, 혹시나 그 사람이  
알면 더 쪽팔릴 일이니 태연히 굴기로  
했다. 나도 이 동네 사는 주민인데 뭐  
어쩌라고. 원래 낭랑한 18세는 조금  
복잡하고 지랄인 나이 아니겠나.  
집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다 큰 지금  
떠올려 보니 그리 영양가 있는 생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그의 가게 앞을  
지나는 시간은 언제나 11시 30분  
즈음이었다. 바람만 불어도 서러운  
고3 소녀답게 갖은 청승을 다 떨며  
매일같이 지나다녔다. 전과 달라진  
것은, 내게 시선을 던지는 그에게 매일  
꾸벅 인사를 전하는 거였다. 굳이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데, 그는 언제나 그  
시간마다 나와서 담배를 피우거나  
가게 창가에 있는 바람에 자꾸 눈을  
마주쳤다. 저거 사장이 아니라 동네  
양아치 아냐. 인사받아서 뭐 하려고  
저러지.

그러던 어느 날, 그 가게 앞을 지나  
골목으로 꺾어서 들려 할 때였다.  
이어폰 때문에 못 듣고 있던 낯선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이내 누군가 뒤에서 내 이어폰을 훼  
빼냈다. 어느 간 큰 놈이 자정도 안 된  
시간에 여고생을 노리고 흉악 범죄를!  
아니, 내가 그리 쉽게 노릴 만큼  
아담하지도 않은데 어디 나를 감히.  
잔뜩 졸아 뒤를 돌았는데,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다.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던 그는  
이 늦은 시간에 매번 왜 혼자  
돌아다니냐는 소릴 했다. 어찌 아무도  
안 데리려 나오냐고 횃설수설도  
했던 듯하다. 그의 요지는 단순했다.  
그동안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게  
영 신경 쓰이더라, 그러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거였다. 이름도  
모르는 어른 남자가, 굳이 친밀감을  
부여하자면 동네 술집 사장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을 함께 했다.  
뜬금없는 사이에 난데없는 일이었고,  
그 짓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됐다.  
어느 날에는 왜 데려다주는 거냐고  
물은 적도 있었다. 알고 지내는 애가  
늦은 시간에 혼자 힘없이 다니는데  
세상이 흥흉해서 슬며시 걱정됐다고  
했다.

옆에서 걸으며 주섬주섬 담배를  
꺼내다가 힐긋 나를 보고선 다시  
주머니에 담배를 넣기도 했다. 간밤  
나이트클럽에 다녀와서 피곤해  
돌아가시겠다던 날, 가게에서 대충  
엎드려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창밖에 웬 고딩이 기웃거렸다며  
나와의 첫 마주침을 얘기하기도  
했다.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잘  
들어가고 이맘때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을 매일 했다. 할 말이 없었을 거다.  
그런데도 그는 11시 30분이 지나면  
매일 골목길을 함께 걸어줬다. 수능  
시험을 보던 11월까지 매일.

그러다 문득 나는 처음으로 남자랑  
자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의 호의가  
마냥 순수하진 않을 거란 짐작쯤은  
가능할 때였다. 보답해야겠다는 부담  
때문인지 순전히 내 마음이 그렇게  
기우는지 학업으로 바빠야 할 와중에  
꽤 오래 고민했다. 교복 재킷 주머니에  
쑤셔둔 틴트를 마을버스에서 내리기  
전 꼬박꼬박 바르는 이유,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았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할  
때 또래도 아닌 남자한테 빠져버린  
거다. 열세 살이나 많고 독한 담배  
냄새를 풍기며 일하고 나이트나  
다니는 남자한테. 이 아저씨한테  
뽀뽀나 한번 해버릴까? 키스하면 담배  
냄새가 날까? 혀가 입에 들어온다는데  
더러운 거 아닌가? 저 아저씨는  
몇 명의 여자와 키스해 봤을까.  
친구에게 털어놨다가는 너 드디어  
돌아버렸느냐며 걱정 살 일이었다.

언젠가는, 누군가와 키스하긴  
하겠지만, 이런 인물을 상상한 건  
아니었다. 참나, 근데 미치도록  
궁금했다. 그의 눈에 내가 여자로  
보이는지. 입을 맞추게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떤 눈,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건 아닌 거 같다.”

해가 바뀌기 전 어느 날 밤에 그가 말했다. 친절과 상냥함과 거리가 먼, 자기 성격 그대로 앞뒤 다 자르고 저렇게만 말했지만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어서 되려 친절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가 나보다 더 복잡했을 수도 있었겠지. 저 인간, 어린 소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할 만큼 취향이 되바라진 아저씨 아닌가.

그러나 이미 그런 의심과 경계가 무너질 만큼 친밀감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난 뒤였다. 쉽지 않을 걸 훤히 아는데도 사람 마음이 어디 뜻대로 쉽게 접혔다가 펼쳐졌다 하니. 이미 내겐 그의 나이와 직업, 예쁜 여자 찾아 나이트 몇 번 간 게 아무래도 상관없을 정도였다. 그 상냥하지 못한 대정함에 스며들어 그 안에서 애정의 조각들을 열심히 주워 담고 있었다. 그건 오직 나만 아는 그의 어떤 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연인도 아닌데 연인 사이에서 할 법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 역시 혼란스럽고 이건 아니다 싶었겠지. 누가 생각해도 쉬운 조합이 아니지 않은가. 열여덟, 서른하나. 열추 놀아본 남자와 이제 놀 것이 구만리인 여고생의 앞날이 어디 마냥 핑크빛이려고. 정신 멀쩡한 사람이 열세 살 어린 핏덩어리랑 뭘 할 용기가 있을까. 매일 밤 지나치는 날 기다리면서 그 역시 복잡했다가 좋았다가, 고개를 저었겠노라고,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머리로만.

그 와중에 난 될성부른 떡잎이었나보다. 민증도 없는 네가 나랑 이러고 있으면 되느냐는 그의 통명스러운 말에 빼딱하게 정색했으니 말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팽팽하게 눈싸움을 하며 어디에 뾰뽀를 갈길까 고민도 했다. 참으로 애석하게 키스하는 방법은 몰랐다. 시청각 교육은 이미 충분했는데, 실전 경험에 제로였다. 입술? 뺨? 이보다 더한 걸 실컷 해봤을 그의 성에 차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그저 무슨 고민하는지 알겠는데 죄짓는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으니까.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쯤에서 멈추고, 너도 이제 실기 준비 착실하게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가 웃음을 터트렸다. 내 입술이 그의 뺨에 한번, 그리고도 열렬하게 굳어있길래 확인차 두 번째 닿았을 때였다. 차갑고 뺨뻑하던 뺨에 아지랑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옅은 남자 향수 냄새도 났다. 그게 내가 처음 기억하는 남자 냄새다. 그의 입에서 ‘하고 진짜’ 같은 말이 나왔던 거 같다. 아마 뒤에 할 말을 다 까먹은 듯했다.

그의 손에 헐겁게 들려있던 던힐의 빨간 로고가 짓이겨지는 장미처럼 구겨졌다. 여자랑 할 거 다 해봤을 거면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좋아한담. 어깨까지 들썩이며 웃는 그의 얼굴을 보려고 한참 기웃거렸다. 아니 그래서 어쩔 건데요. 대학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건 뭐 어찌건 지금 이게 좋은데 어쩔 거냐고 꽤 당돌하게 따져 물었다. 그는 사춘기 소년처럼 몰라, 라고 답했었다.



대학에 합격하던 날, 그는 나이트에 갔다. 아니 합격은 내가 했는데 기분은 왜 그쪽이 내셨을까. 후에 듣기로는 내 여자친구 재수 안 한다며 기쁨의 축하주를 즐겼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 후로 한 번도 나이트를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몰래 갔을 수도 있지 않나고? 그러기엔 밤마다 집에 안 들어가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클럽이며 술집이며 과팅에 미팅에 몹시도 분주한, 좋은 말로 성실히 대학 생활하는 어린 여자친구를 잡으려 다니느라 짬이 없었다. 그렇게 열아홉 살이던 여자친구가 스물하나에서 스물둘이 넘어가는 해까지 3년. 나의 모든 처음이었던 그와 3년을 사랑했다.

고백하자면 지나온 모든 남자 중에 그를 제일 사랑했다. 사랑만으로 다 말할 수 없이 깊이 고마운 은인 같은 사람. 그 덕분에 무탈하게 어른이 되었다. 이걸 알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글을 보고 있을 거다. 그의 가게에 항상 맥심이 있었거든. 내가 맥심에 글 쓰는 것도 안다. 세상이 너무 좁아 두 달 전쯤인가, 멀리 떨어진 그와 통화도 했다. 어느덧 40대 가장이 된 그 목소리가 왜 그리 낯설던지.

제주도 사시는 정 사장님 감사합니다. 첫 스타트 잘 끊어주신 덕에 제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아가랑 아내님과 오래도록 행복만 하길 빌어요. 애 생각해서라도 담배는 끊으십쇼. 열심히 잘 살다가 언젠가 서울 오시면 찐하게 술 한잔 살게요. 잘 지내요! 🍀

열여덟 살 소녀와 서른한 살 아저씨.  
나의 모든 처음이었던 그와 3년을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말로는 디할 길 없이 고마운 은인 같은 사람.  
**당신 덕분에 나는, 무탈하게 어른이 되었다.**



MISS MAXIM

# “Want Some,, MILK?

6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핑계로  
미스맥심 박별에게 우유를 들이부었다.  
아, 상호 합의하에. BY 채희진  
PHOTOGRAPH BY 박율 MODEL 미스맥심 박별



MISS MAXIM



**촬영 시작하자마자 냅다 들이붓고 할 소린 아닙니다만, 우유 좋아하죠?**  
디저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디저트도 우유와는 잘 어울려서 즐겨 마셔요.(웃음) 특히 카스텔라 먹을 때는 무조건 우유! 아, 흰 우유에 인스턴트 커피 넣어서 먹는 것도 추천해요!

**평생 한 가지 종류의 우유만 마셔야 한다면 저는 아이 러브 (우)유를...!**  
그게 뭐예요!(웃음) 기억에 남는 건

목욕하고 나와서 먹는 바나나 우유인데... 그래도 전 커피 우유를 고를 거예요. 너무 달지 않으면서 맛있고, 물리지 않아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유의 날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형 우유 기업에서 저를 모델로 쓰는 거죠. 제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광고 문의는 인스타그램 @ by3ol\_\_  
여기로 보내주세요!(웃음)





6월에는 우유의 날 말고도 두근두근  
키스 데이가 있죠. 생각만으로 설레죠?  
특별한 키스 데이 추억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키스를 생각나네요.

첫 키스의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청룡  
열차 타고 우주 여행하는 기분이었는데.  
왜 첫 키스 기억이 잘 안 나죠...? 환상이  
깨졌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거 없잖아?’라는 느낌이었답니까?

인생 최고와 최악의 키스를 꼽는다면?  
한 번은 알사탕을 먹고 있었는데, 남자  
친구가 참지 못하고 바로 키스를! 그  
사탕 키스가 기억에 남아요. 잊고  
싶은 키스는 딱히 없었어요. 나 키스  
좋아하나?(웃음)

키스가 능수능란한 것보다는 못하는 게  
순수해 보여서 여자들이 좋아하겠죠?  
잘하는 남자가 좋죠! 일일이 가르쳐야  
하기보단 리드해주는 남자가 좋은걸요!

“

첫 키스 느낌이요?  
왜 첫 키스는 기억이  
잘 안 날까요? ”





키스 타이밍? 각 잡고 그것만 재는  
것도 어색해요. 그냥 느낌 올 때 딱 시도해  
보세요! 그게 자연스러워. ♡♡





MISS MAXIM







여자는 키스 잘하는 남자가 섹스도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던데, 정말 그래요?

키스와 섹스는 영역이 아예 다르지 않나요?

섹스는 상대방과 더 많이 소통해야 하잖아요.

좋아하는 자세, 상황극 등 서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키스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만

맞춰줘도 되고요.

키스할 때는 분위기가 필승 전략... 메모 완료!

각 잡고 키스할 타이밍만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느낌 왔을 때 딱 해야지.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주인님, 저는 준비 끝났습니다.

일단 키스를 할 생각이라면 미리 양치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센스 있게 사탕 같은 걸 먹어도

좋고요. 단맛이 느껴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키스하는 건 딱 질색이에요!

◆◆

평생 한 우유만 먹으라면  
커피 우유를 고르겠습니다! ◆◆





맥심에서 첫 단독 화보 촬영을 했네요.

요즘 예비 미스맥심 경쟁이 한창이에요.

미스맥심으로 첫 단독 화보라니 주인공이

된 기분이네요! 저는 미맥콘 시작하고

초반부터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후반에는 힘이 다 빠져서 힘들었어요.

욕심나겠지만, 후반에 쓸 힘을 남겨두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모두 파이팅해서 함께해요!

다음 화보는 우리 뭘 할까요?

울여름은 엄청 더울 거라던데, 우리

여름이 끝나기 전에 같이 바다로 가요!

아, 그리고 저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박별

채널(@by3ol\_\_\_\_)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웃음) 🤪

“

여자는 키스 잘하는 남자 좋아해요.  
일일이 가르쳐주다 언제 해?”



MISS MAXIM

B cut

coming soon



# MAXIM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SEX



# 그녀를 흥분시킨 키스남



물고, 빨고, 맡고, 만지고, 핥고! 갖가지  
스킬로 2030 여자들을 홀린 키스남 썰.  
오늘부터 혀로 원고 쓰며 특훈에 돌입합니다!

BY 채희진(feat. 가명의 여사친들)

“일반적으로 음식 먹을 때 혀부터 내미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도 그랬어.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혀가 묘하게 약한 남자가 보이더라. 처음 그런 생각이 들게 해준 남자는 연하였어. 말끝마다 농담이라면서 메롱을 살짝 하는데 이런 게 연하의 매력이구나 싶었지. 근데 밥 먹을 때도, 커피나 술 마실 때도 혀부터 내미니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야. 자꾸 보다 보니까 혀 모양이랑 색깔도 예쁘네? 백태도 없고. 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반질반질하더라고. 2차 가서는 내가 하도 혀를 보고 있으니까 “맛보고 싶어요?”라면서 미소 짓더라? 그냥 그대로 난 넘어가 버렸어.(웃음)”

김다은(37), 회사원

“그 남자는 키스하면서 말이 많았어요. 하기 전후가 아니라 하는 중에요!(웃음) 처음 키스했던 날에 입술을 붙이고는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좋다고 표현해 줬는데 생전 처음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서니까 웃음도 나오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점점 제 입술에 그 남자 숨이 닿을 때마다 제 숨이 더 가빠지는... 아직도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입술을 깨물게 돼요. 뜨겁고 향도 좋았고, 정말 스윗했거든요. 그날이 그와의 첫 키스이자 첫 섹스한 날이 될 줄이야.”

양예빈(31), 회사원

“입 냄새 안 나는 건 말해 뭐해. 키스할 때만큼 서로 가까울 때가 없잖아.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도 냄새가 나게 해서는 안 돼.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기습 키스? 쓰레기 쌓인 담벼락 앞에서 벽치기 키스? 그런 거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환상이지 현실에선 키스하다가 혀를 걷어차게 된다고. 대부분의 여자가 키스를 절대 가벼운 스킨십으로 안 봐. 그러니까 좋아할 장소에 좋은 향으로 가득 채워주고, 마음에 준비도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기분 좋은 키스야말로 연애의 시작이자 반이 되는 거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지혜(36), 네일 아티스트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어쩌다 보니 열 살 많은 남자 소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삼촌 같은 느낌이 들던지... 그 사람이랑 키스는커녕 손도 못 잡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밤에 드라이브하던 날 조수석에서 옆모습을 보게 됐는데 입술이 너무 촉촉한 거예요. 그때부터 입술만 보였어요. 이마, 코, 볼 이런 데가 아니라 입술만 광이 나는데 어떻게 안 보겠어요. 무슨 명품 립밤이라도 쓰는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니베아.(웃음) 계속 입술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키스까지 하게 됐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부드러웠던 키스가 아닐까 싶어요.”

박하나(29), 강사

“썸남이랑 여행을 가게 됐어. 사귀기 전이었지만, 여행 서로 좋아하니까 아무튼 갔어. 뭐 같은 호텔 룸 셋지. 대신 트윈 베드로. 아무튼 키스남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호텔 가는데 기본 세면용품에 전용 칫솔, 치약에 혀 클리너까지 챙겨왔더라. 혹시 몰라서 내 것까지 챙겼다고 하면서 주더라고. 내 인생에서 만난 남자 중에 그런 모습 보여준 사람은 처음이었어. 자기 관리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보게 됐지. 다행히 결벽증까진 아니더라. 그 후로 난 그 사람이 챙겨준 브랜드 칫솔이랑 치약을 아직까지 써. 향이 진짜 미쳤고, 엄청 시원하게 닦이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깨끗해서 그런 건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손에 꽂는 상쾌한 밤이자 아침이었달까?”

김혜림(35), 작가

“전 키스할 때 리드 잘해주는 남자가 좋았는데. 입뿐만 아니라 손으로 사람 혼을 나가게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피부 쓰다듬으면서 애태우다가 주물주물하고, 그러면 성감대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집어내는지. 그때의 키스는 잊히려야 잊힐 수가 없어요. 강야 조절하면서 안달이 나게 만들면 당장 더 진도 나가고 싶어지죠. 키스를 잘한다는 게 꼭 입만 잘 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최다윤(23), 대학생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흡연자니까 담배로 잔소리 안 하는 남자. 같이 담배 피울 때, 피우고 나서도 키스할 수 있는 남자면 난 팬찮아. 안 피우더라도 담배맛 키스를 아는 남자면 좋고. 비흡연자일 때 키스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담배 연기 서로 머금고 키스하면 뜨겁고 은근히 짜릿한데...”

이예은(28), 개인 사업

“절제할 줄 아는 남자. 키스는 결국 전초전인데 승부를 보겠답시고 계속 물고 빨고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니. 입술 다 부르트기밖에 더 해? 특히 남자는 수염 때문에 아무리 잘 면도한 피부라도 여자들 피부에 얼마나 자극 많이 주는데.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로 딱 맺고 끊을 줄 아는 남자가 매력적이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냥 ‘난 다 채웠다’는 느낌이 아니라 얼굴 감싸주거나 안아주면서 분위기를 서서히 식게 만들면 여자 입장에서는 더 안 날 나기도 하고 집에 가서도 생각난다니까.”

안슬기(32), 공무원

“오랫동안 썸타던 남자와 키스했을 때, 왜 우리가 계속 썸 단계였는지 알았어. 모솔이었던야. 키스 드럽게 못해. 중간에 웃음 터져 버렸잖아... 외모, 직업, 성격 다 멀쩡한데 너무 순진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여자 못 만나 본 남자가 있을까란 생각에 귀엽더라고. 막 알려주면서 괴롭히니까 흥분되더라. 난 진성 S라니까.(웃음)”

정수정(39), 회사원

“키스에서 신뢰를 느끼는 순간. 예를 들어 계속 키스할 분위기란 신호를 보내면 낫고 준비를 할 수 있잖아. 데이트인데 은근히 스킨십 많아지거나, 숨이 느껴질 정도로 자주 붙는다거나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 당연히 오늘 뭔 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메뉴 고를 때 그럼 키스를 고려하겠지. 그렇게 준비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까지 주는 남자라면 쉽게 받아들이지.”

이마음(39), 비주얼 디렉터

# REAL LIFE VENUS ON STAGE

MAXIM  
맥심  
한국판 모델 콘테스트

## 제3회 MAXIM PLUS SIZE MODEL CONTEST

미의 기준을 새로 쓰다. 맥심의 세 번째 대어 낚기 프로젝트,  
제3회 맥심 플러스사이즈 모델 콘테스트. 참가자 29인 프로필 공개!

PHOTOGRAPH BY 박율

“육덕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다”

1회 대회 우승자 썬비키, 2회 아승연을 포함해 다양한 매력의 플러스 모델을 발굴해낸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빅사이즈 모델 대회, 제3회 맥심 플러스사이즈 모델 콘테스트가 7월 8일 열린다.

그동안 맥심은 크고 풍만한 관능미를 지닌 여신을 찾고 친양하는 것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2016년 맥심 미국판은 최초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표지에 세웠고, 2021년 맥심 한국판은 압도적인 대문자 S 미녀들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 대회로 수많은 빅사이즈 모델이 데뷔했고, 현직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은 확실한 존재감을 더 넓은 세상에 펼쳐 보였다. 참가 신청자 수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하고, 글래머러스한 매력을 유독 불편해하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매력을 꼭꼭 숨겨온 크고 아름다운 미녀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에 우리도 놀랐다. 진정한 ‘미의 여신’에게 비너스의 지위를 되돌려주는 여정, 제3회 맥심 플러스사이즈 모델 콘테스트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됐다!

- 사전 온라인 투표: 6/24~6/27 맥심 홈페이지
- 본대회: 7/8(토) 17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 얼리버드 할인 예매: 5월 31일까지
- 예매: 맥심 홈페이지([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 김나래

키: 164cm

직업: 퍼스널트레이너

나의 매력 포인트: 이국적인 외모와  
몸 라인.

사이즈도 충분히 멋있다!

참가 계기: 작년 대회 보고 올해  
날짜 맞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날씬 탄탄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데, 작년 건강상  
이유로 운동을 잠시 못하게 되면서  
체중이 늘어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건강하고 섹시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플러스

우승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인들이 엄청 놀라겠죠?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섹시한 매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맥심 화보를  
찍게 된다면 이국적인 콘셉트에  
도전하고 싶어요!”



## 김지수

키: 167cm

직업: 은행 근무, 철인3종 운동러, 산악인

**나의 매력 포인트:** 밝고 쾌활한 성격, 웃는 게 매력. 그리고 아웃도어 운동을 좋아하다보니 남보다 건강한 하체를 얻었답니다.

**참가 계기:** 평소에도 맥심을 좋아합니다. 특히 미맥콘을 즐겨봤어요. 이 대회는 제 매력을 뿐만 할 기회라 참여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놀라시더라고요! ‘포항에 이런 애가 있다니!!’

**우승한다면:** 상금은 어머니를 위해 쓸 거예요. 혹시 유명해진다면... 베풀며 살아야겠죠? 벼는 익을수록 숙이니까. 저를 통해 밝은 에너지를 받아 가시면 좋겠어요!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저도 하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도전입니다! 맥심은 설레는 곳이에요! 다 같이 즐기는 무대가 되었으면 해요.”





## 까밀라

키: 163cm

직업: 플러스사이즈 모델, 주부

**나의 매력 포인트:** 자신감, 섹시한  
눈빛, 그리고 도톰한 입술로 미소  
지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참가 계기:** 플러스 사이즈 체형을  
가진 여성도 섹시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어요. 저는 칠레 사람이나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우승한다면:** 할머니, 어머니, 남편이  
가장 기뻐할 거예요. 상금으로는  
아파트 대출금을 내야죠.

“모든 참가자가 아름답고  
우승할 자격이 충분해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꿀하린

키: 162cm

직업: 웹화보 모델

**나의 매력 포인트:** 가슴과 힙, K컵  
베이글의 정석. 작년보다 더 섹시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참가 계기:** 작년에는 입상 못했지만  
이번엔 꼭! 맥심 나온 후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좋은 쪽으로요!

**우승한다면:** 상금으로 일본 여행  
다녀오고 남은 상금으로 필라테스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꿀하린'

하면 '섹시한데 귀여워! 베이글의  
정석이야!'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유명해진다면 매일 설레겠죠?

맥심 화보를 찍는다면 역시 비키니.  
섹시한 슬립도 좋고, 요리하는 여친  
콘셉트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장에서 본 분들이  
다 너무 섹시해서 긴장되네요.  
저도 잘 해야죠! 재도전인 만큼  
더 열심히!"



## 린지

키: 173cm

직업: 영어강사, 쇼호스트

**나의 매력 포인트:** 꾸미지 않을 땐 지적이고 분위기, 조금 힘주면 화려하고 섹시한 반전 매력. 탄탄한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

**참가 계기:** 플러스사이즈 모델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많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활동 중이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좇고 끼를 방출하고 싶었다.

**우승한다면:** 화보 콘셉트는 화이트 셔츠에 꾸미지 않은 수수한 콘셉트나, 도서관에서 책 읽는 섹시한 여자 어떨까?

“누글 모방해 성형하고 연예인의 마른 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장점을 살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



## 물결

키: 163cm

직업: 플러스사이즈 패션 크리에이터

**나의 매력 포인트:** 3년간의 유튜브 활동으로 다져진 자신감.

가족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고, 팬들과 좋은 시간 만들고 싶습니다.  
‘당당이들, 제가 더 멋지고 당당한 모습 계속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참가 계기:** 플러스사이즈 패션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스스로가 만드는 화각 안에서가 아닌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었고, 런웨이에 꼭 한번 서보고 싶었습니다.

“맥심 화보를 찍게 된다면 고급지고 우아한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로서 멋지고 강렬한 인상 남길게요. 우승하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승한다면:** 상금으로 우리



## 박세영

키: 160cm

직업: 뷰티샵운영 / 유튜버

**나의 매력 포인트:** 이국적인 페이스

**참가 계기:** 나의 새로운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우승한다면:** 자기관리에 더 투자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이어트 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맥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플러스  
모델도 섹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 보니

키: 172cm  
직업: SNPE강사

**나의 매력 포인트:** 눈, 긴 다리,  
그리고 훤 피부.

**참가 계기:** 유튜브에서 1회, 2회  
대회 영상을 보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더 사랑하며, 좋은  
추억 쌓고 싶습니다. 멋있는 분들과  
함께 촬영과 콘테스트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레요! 다같이 즐기는  
대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승한다면:** 엄마에게 맛있는 밥을  
사드리고 싶어요. 아마 저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게 눈에  
선해요! 우승해서 맥심 화보를 찍게  
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여자  
친구 콘셉트가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숨어 지내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섹시함은  
몸매뿐 아니라 자신감과 당당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 비비안

키: 164cm

직업: 15년차 간호사

나의 매력 포인트: 타고난 토실한

가슴과 엉덩이. 평소 청순하다가

카메라 앞에서 돌변하는 뇌쇄적인

눈빛...을 발산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매일 연습했어요!

참여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승한다면: 따뜻한 나라의  
해변으로 혼자 여행 갈 거예요! 한  
손에는 모히또, 한 손에는 폰 들고  
섹시 셀카 백만 장 찍어 올릴래요!!

참가 계기: 플러스사이즈 쇼핑몰

사업 준비 중에 이 대회를 알게

됐어요. 꼬꼬마 시절 꿈이었던 모델.

평범한 키, 토실한 몸매인 저는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대회에

“오늘 촬영 덕분에 토실한  
내 몸이 조금은 좋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큰 옷에 제 몸을  
감추지 않을래요!”

**MAXIM +**



## 선랑

키: 171cm / 직업: 보이스N잡러  
(한중MC, 쇼호스트, 스피치 강사, 가수로 활동 중)

**나의 매력 포인트:** 힙! 매끄러운  
골반과 엉덩이 라인♥

**참가 계기:** 플러스사이즈 모델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채널인 맥심에  
나오게 된다면 저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줘서 큰 힘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우승한다면:** 상금으로 가족들,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어요. 언제나 새롭게 도전하는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만의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맥심 모델이 되어  
활동하고 싶습니다!”



## 소이

키: 173cm

직업: 플러스사이즈 모델

**나의 매력 포인트:**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밝은 에너지.

**참가 계기:** 1회 대회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한 해가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했어요. 이번 3회 대회 참가를  
동기로 다시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우승한다면:** 제가 맥심 커버걸이  
되면 꿈을 이룬 거예요! 상금으로

제가 나온 맥심 사서 지인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용~♥ 영화 <버레스크>  
콘셉트 화보는 어때요? 저 춤도 잘  
추거든요.

“저에게 맥심은 정말 감사한  
존재예요. 오랜 모델 활동에  
모델로써 인정 받을 수 있게 됐고,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분이 이를 통해  
보다 자신감 있는 삶을 사시길!”



# 신현지

키: 162cm

직업: AI 개발자

**나의 매력 포인트:** 섹시한 두뇌와  
백치미 with 큰 바스트. 그리고  
나를 관리한(주5회 운동) 애교뱃살.

**참가 계기:** 지인들의 참가 권유.  
원래 제가 체중이 130kg였는데  
74kg까지 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이즈를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우승한다면:** 상금은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에 기부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오!!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반응할 듯. 우승을 하든 못하든  
신현지는 항상 멋있고 27살 너의  
도전은 눈부시다고 밀해줄 거예요.  
곁에서 지원해준 엄마,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영김 언니 사랑해요!  
전 성덕입니다.”



## 양가

키: 170cm

직업: 프리워커

나의 매력 포인트: 힙, 하얀 피부.

참가 계기: 작년에 맥심  
플러스사이즈 모델 콘테스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죽기 전에  
런웨이 한번 서보자! 하는 마음에  
도전!

투자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플러스  
사이즈 분들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

“우리 같이 재밌게 즐겨봐요~!”

우승한다면: 아외 촬영 도전!  
상금으로는 가족,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고, 다음 나의 도전을 위해



## 엔젤

키: 171cm  
직업: 모델, 배우, 성우

**나의 매력 포인트:** 귀여운 눈웃음과 웃는 얼굴. 제 미소를 보고 사람들이 함께 행복했으며 합니다.

**참가 계기:** 아름다움과 섹시함은 모든 모양과 크기로 온다고 생각해요. 저와 비슷한 분들이 저를 통해 자신도 아름답고 섹시하다고 느끼길 바라면서 대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승한다면:** 상금은 더 나은 활동을 위해 교육을 받는데 쓰고 싶어요.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도와준 저희 회사 팀에게 한턱 쏘고 싶어요. 맥심 화보를 찍는다면 섹시 큐트, 애교 많은 한국 모델 스타일 화보를 찍고 싶어요. 한국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섹시란 지적이고, 매너 있고, 센스와 유머가 있는 것입니다.”



## 영킴

키: 160cm

직업: 영화감독

**나의 매력 포인트:** 가슴과 엉덩이.

**참가 계기:** 항상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스로를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승한다면:** 우승 상금으로 차기작을 찍고 싶어요!

“진정한 섹시함은 스스로를 아끼고 긍정하는 마인드에서 나온답니다!”



## 영화

키: 163cm  
직업: 서비스직

**나의 매력 포인트:** 당당함과 자신감,  
밝은 미소,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참가 계기:** SNS를 통해 대회를  
알게 됐다. 주변에서 ‘네가 제일  
예쁠 거야’, ‘네가 1등할 거야’라며  
응원해줬다.

**우승한다면:** 상금으로 엄마와 여행  
가기. 많은 분들에게 용기 주기.  
우승 화보를 찍는다면 30대의

성숙한 청순 섹시를 보여주겠다.

“섹시함이란 당당함이다.  
내 몸을 사랑할 때 나오는  
섹시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이나

키: 165cm

직업: 프리랜서 BJ

**나의 매력 포인트:** 살이 짜도 이쁜,  
색기(?) 있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싶었습니다.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너무 긴장되네요.

**참가 계기:** 맥심이 제  
버킷리스트였던지라 정말  
영광이었어요. 오늘 멋진 분들 많이  
뵙게 돼서 눈도 즐거웠어요. 본선  
대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무대를 빛내겠습니다. 1등 가자!!

**우승한다면:**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겠죠? 주변에선 ‘설마 니가?’  
반신반의 하지만, 1등 하면 난리날  
거예요. 지금 하는 인터넷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서 플러스사이즈  
의류 창업을 하고 싶어요.

“유명해지면 맥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집에  
가고 싶습니다!”



## 이지혜

키: 167cm

직업: 프리랜서

**나의 매력 포인트:**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 큰 가슴과 엉덩이. **참가 계기:** 평소 주변에서 플러스사이즈 모델 권유도 많이 받았어요. 우연한 기회로 피팅 모델 일을 접하게 되면서 이 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2회 대회 참가자인 니니 언니의 적극 권유로 올해 대회에 참가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랑해 언니!

**우승한다면:** 옆에서 항상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남자 친구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 그리고 나를 위한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세상엔 정말 다양한 체형이 있고 다 각각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 이혜연

키: 172cm  
직업: 비키니 모델

**나의 매력 포인트:** 도도한  
이미지와는 다른 귀여운 빙구 웃음.

**참가 계기:** 남성의 로망, 여성의  
자부심인 맥심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비키니 모델인 저에게  
큰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 용기를  
냈습니다. 꿈에 그리던 맥심  
촬영이라 안 떨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촬영장 오니 떨림은 사라지고  
마냥 즐겁고 기쁘게 촬영했습니다!

**우승한다면:** 상금 반은 부모님  
용돈 드리고! 또 반의 반은 절 위해  
쓰고, 나머지 반은 미래를 위해  
통장에 고이 모셔놓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섹시’란 ‘야함’  
과는 다른 엄청난 매력입니다.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섹시한 매력은 전세계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원초적인  
매력이니까요!”



# 임바니

키: 169cm  
직업: 라이키 크리에이터

나의 매력 포인트: 다리.

참가 계기: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추억 삼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승한다면: 가족들과 해외여행.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 파이팅♥”



# 임지은

키: 173cm

직업: 사업가, 방송인

나의 매력 포인트: 힙한 바디와  
활짝 웃는 미소!

참가 계기: 태생이 플러스  
골격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 드리려고 참가했습니다.  
플러스사이즈 모델로 화려한 복귀!  
우승한다면: 목표는 1등! 우승하게  
된다면 맥심을 발판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겠습니다. 모델 일도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우승해서 맥심 화보를 찍는다면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독보적인  
화보를 찍고 싶습니다.

“섹시란 ‘그냥 묻어나오는 것’.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섹시함이  
진정한 섹시.”



## 장예나

키: 172cm

직업: 골프웨어 판매직, 플러스사이즈 모델

**나의 매력 포인트:** 눈 밑 점, 골반라인, 바스트 모양, 동서양이 합체된 얼굴.

**참가 계기:** 1, 2회 때 우승한 썬비키님, 아승연님 팬이에요. 엄마에게 ‘마른 여자만 이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승한다면:** 엄마한테 “살 빼라”는 말, 그만하라고 할 거예요♥ 맥심은

남자들의 꿈이잖아요. 전국의 남성, 그리고 여성들도 같이 기뻐하면 좋겠어요. 다들 ‘대구의 자랑’이라고 하겠죠! 세상에 절 알리고 싶어요!

“경쟁자분들, 다 몸매가 엄청나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의 모든 끼와 잠재력을 끌어내겠습니다. 즐기면서 당당하게 대회에서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Our bodies are gorgeous!”



## 정선하

키: 168cm / 직업: 대학생(수원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플러스사이즈 모델.

**나의 매력 포인트:** 가름한 얼굴과  
오똑한 코, 긴 생머리.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참가 계기:** 2021년 첫 대회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플러스사이즈  
모델 일을 할 때 더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싶어서 대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우승한다면:** 언니랑 친구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상금은  
저금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늘  
예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대회도 좋은 기회이니만큼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맥심과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 제인

키: 153cm  
직업: 영어강사

**나의 매력 포인트:** 귀여운 얼굴,  
덧니, 아담한 사이즈.

**참가 계기:**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출전! 50 되면서 아줌마가  
다 되어 여성적인 매력이 없어지는  
때에 남편이 '충분히 아름답다'라며  
자신감을 주었어요. 건강한 자연미,  
여성미를 뽐내고 싶습니다.

**우승한다면:** 프로필 촬영 너무

즐거웠어요. 본 대회는 더 설레겠죠?  
도전 그 자체만으로 다들 놀라워할  
거예요. 우승하면 남편이 가장  
기뻐하겠죠. 다들 놀라고 한편으론  
부러워할 테고... 아이 좋아라.

“일생일대의 이벤트, 커다랗고  
의미있는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무엇, 끼(?)를 꺼내주세요! 함께  
참가하는 분들도 응원합니다.”





## 쥬니

키: 163cm  
직업: 호텔마케터

**나의 매력 포인트:** 밝음과 눈웃음,  
큐티섹시 지향합니다.

**참가 계기:** 재도전! 유교걸의  
일탈? 기회 되면 화보, 인터뷰,  
뭐든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플러스사이즈 모델과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리가 생기면 좋겠어요.

**우승한다면:** 플러스사이즈 모델  
활동을 주변에 살짝 커밍아웃(?)

해봤는데, 다들 응원해줬어요.  
소소하지만 더 열심히 해보려구요.  
유명해지면 회사 사람들도 알아보지  
않을까요?(부끄) 맥심 화보를  
찍는다면 밝고 싱그러운 일본  
그라비아 아이돌 콘셉트! 제가  
일본에서 신문물을 접하다 와서요.

“이번 대회에서도 ‘풀싸콘 공식  
댕댕이 쥬니’로 남고 싶어요.  
올해는 더 좋은 결과를 거두길!”



## 최단비

키: 168cm  
직업: 취업준비생

**나의 매력 포인트:** 엄마가 주신 예쁜 몸매, 잘록한 허리.

“이 대회 씹어 먹겠습니다!”

**참가 계기:**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회에 관해 알게 되었고 ‘아, 나도 해보고 싶다’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승한다면:** ‘넌 잘 할 수 있을거야’라고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승하면 지인들이 기뻐하겠죠.



## 하더

키: 168cm

직업: 배우, 플러스사이즈 모델

**나의 매력 포인트:**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큰 눈, 굵은 허벅지.

**참가 계기:**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조금 망설였지만 나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우승한다면:** 정말 기쁠 거다.  
상금으로는 못 다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더는 역시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다. 이것이 앞으로의 활동에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자라면 가끔 거울을 보면 나의  
외모에 좌절하거나 상심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하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체형과 사이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내면에 있다. 그 보석을 독자  
여러분들도 꼭! 발견하길.”



## 하리

키: 171cm  
직업: 바리스타

**나의 매력 포인트:** 42인치의 타고난 크기에, 하루 헬스장 두 번씩 가며 열심히 만든 상위 1%의 엉덩이와 허리 라인, 보조개, 섹시한 외모에 반전 순수함.

**참가 계기:** 우연히 저와 사이즈가 비슷한 분의 톡북 영상을 봤는데, 그 분이 1회 우승자 썬비키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무언가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우승한다면:** 이 유전자를 물려주신 어머니께 큰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품 백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부모님,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23년도 풀사콘 우승자가 되어 썬비키님의 뒤를 잇는 탈아시안 핵빵댕이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한수연

키: 162cm / 직업: 트레이너 견습생, 8eightsix6  
쇼핑몰 준비 중.

나의 매력 포인트: 눈웃음,  
긍정적인 마인드.

**참가 계기:**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수연이의  
습관형성'을 기록 중인 수연입니다.  
촬영장 와보니 아름답고 개성  
넘치시는 분이 많네요!  
이 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본받아 저의 서른 살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승한다면:** 가족들과 여행, 뚱난나  
1~3기 멤버들과 파티, 그리고  
응원해주신 지인분들과 식사.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서 대회 때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겠습니다.”

S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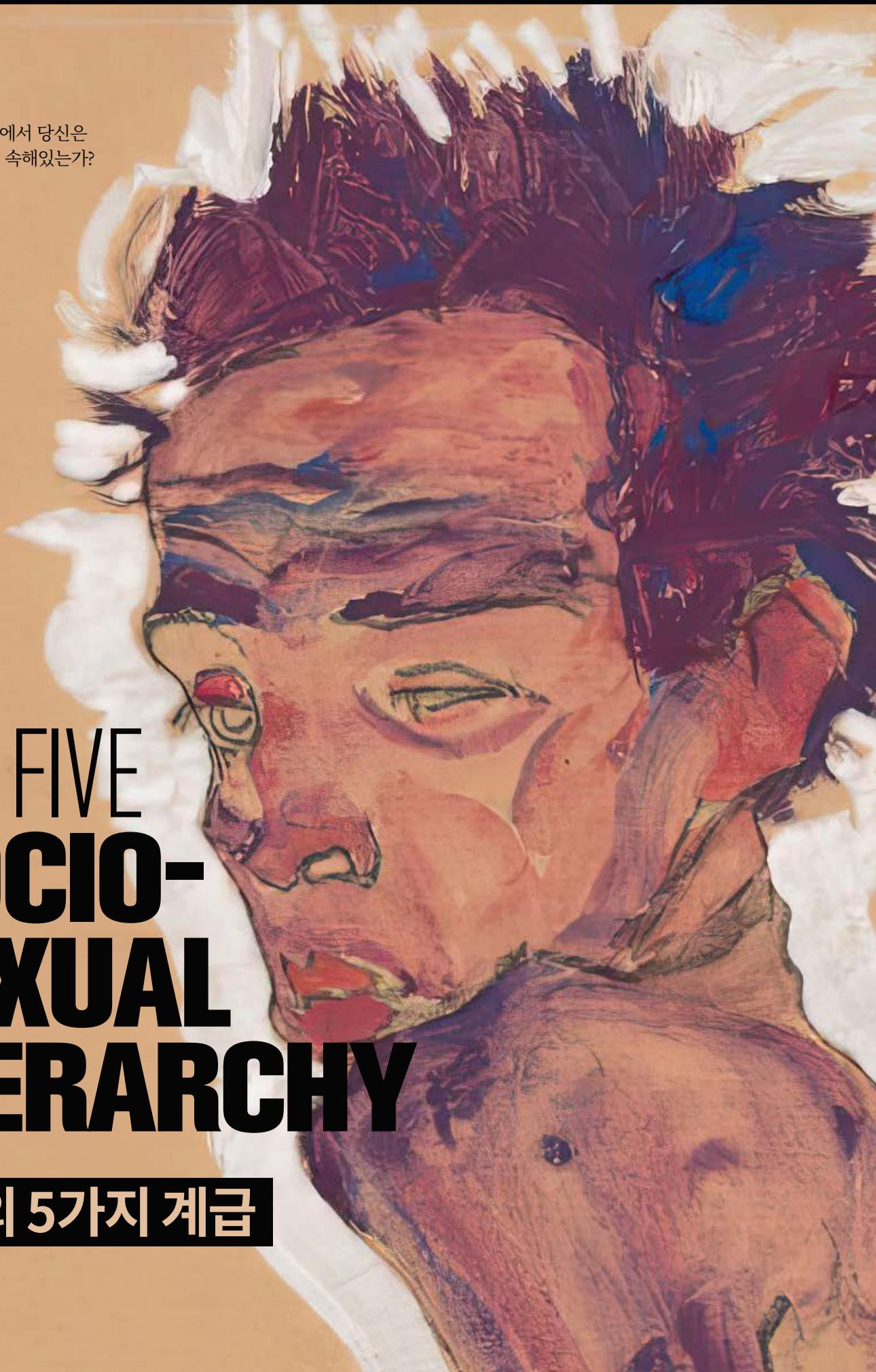


수컷의 세계에서 당신은  
어떤 계층에 속해있는가?

BY 박종우

# THE FIVE SOCIO- SEXUAL HIERARCHY

남자의 5가지 계급



# 자

난 2021년, 설거지론이 짜릿기 시장을 팔팔 끊이던 틈을 타서 남자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신선한 외래 담론이 조선 땅에 스며들었다. 이후 남자들의 군상은 암컷들이 뺀스 벗고 육탄돌격하는 상위 20%의 ‘알파’ 그룹과 설거지를 기다리는 80%의 떨거리 ‘베타’ 그룹으로 나뉘어 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2년. 이제는 ‘알파와 떨거리(베타)’라는 이분법적인 분류체계가 1970년 동물행동학자들이 창조한 ‘무리를 통솔하고 암컷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수컷 개체’를 뜻하는 학술 용어에서 탄생했다는 것, 이후 1980년대부터 해당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집단지성이 미국을 본진 삼아 남자들의 생태를 분석하기 시작한 뒤로, 현재는 알파와 베타에 더해 ‘델타’, ‘오메가’ 그리고 ‘감마’라는 남자의 유형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우리 독자들과 공유할 때가 왔다.

기존의 분류법이 ‘암컷을 거느리는 수컷’이라는 남자의 성(性)적인 부분에만 집중했다면, 지금부터 설명할 남자의 5가지 계급(원형)은 ‘무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사회적인 측면에 더 집중한다. 즉 학교나 회사, 동호회 등 남자들이 속한 모든 조직 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위계를 나누는지, 각자 그룹의 성향은 어떠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해서 분류해 놨다는 거다. 물론 섹스가 지상과제인 수컷들 생태를 다루는지라 각각 유형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다룬다. 서론이 존나 길었다. 시작할 테니, 당신은 5가지 계급 중 어디에 속하는 수컷인지 양심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 a. 타고난 지도자, 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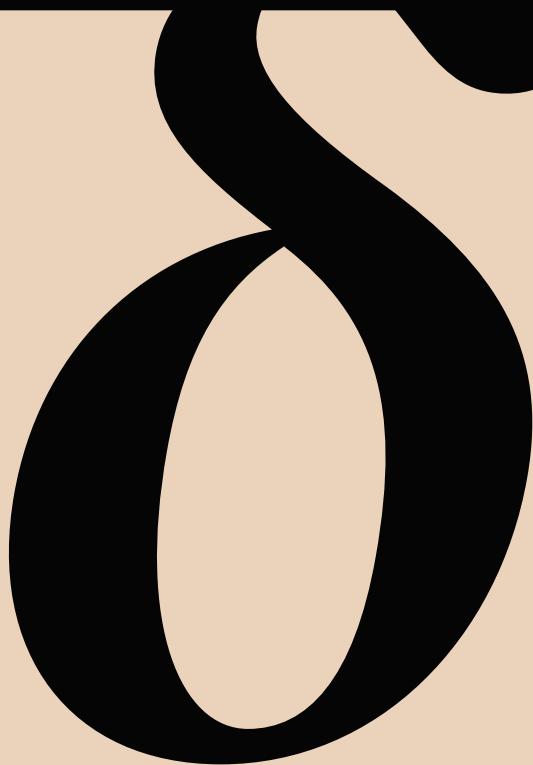
어떤 조직이건, 남자들의 위계질서 최상단은 언제나 알파 기질이 있는 개체가 차지한다. 학창 시절로 예를 들자면, 일진이랑 어울리면서 전교권 성적까지 놓치지 않는 인싸 반장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적당하겠다. 외향적인 성격에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 야망이 가득한 경우가 많아서, 주변 여자들의 하트를 싹 쓸어 담는 것은 말하기도 귀찮다. 알파 개체와 다른 남자를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는 타고난 ‘리더’ 기질이다. 알파 개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계급의식이 강하다. 조직 내의 서열에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구성원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기어오르는 구성원은 곧장 모가지를 따버리는 공격성과 호전성, 이른바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기질’이 알파 개체를 리더의 자리에 올린다.

그룹이 알파를 중심으로 리더-팔로워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다. 그가 원가를 시도하면 다른 남자들이 따르고, 모든 상황에서 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진다. 이렇게만 보면 존나 멋지고 좋기만 할 것 같은데, 모든 유형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알파가 짖어지는 가장 무거운 점은 책임감이다. 뭐든 먼저 나서서 총대를 멘다는 소리고, 그가 누리는 영광은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라는 간단한 진리를 따른다. 가장 빛나는 만큼, 좁되는 타이밍에서는 제일 먼저, 제일 아프게 대가리가 깨진다. 간혹 비실한 놈(권리는 누리려 들지만, 책임은 안 지려는 새끼)들이 대장 해보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다. 알파적 기질이 없는 알파 호소인이 리더의 옷을 입으면 그 조직은 필멸한다. 무리를 이끈다는 종합감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알파의 기질, 당신에게 있는가?

**β. 충직한 참모, 베타**

여자 못 만나는 남자를 베타라고 놀리는 건 사실 칭찬이다. 베타 유형의 남자는 보통 여자에게 인기가 (알파 다음으로) 존나 많으니까. 베타는 리더(대개는 알파)의 충직한 윙맨이자 참모 역할을 한다. 덕분에 어떤 인간이 베타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도 모든 유형 중에 제일 쉽다. 어떤 조직에서 리더 옆에 딱 붙어서 절절하게 충성하는 인간이 있다면 십중팔구 베타 타입이다. 영화 <탑건>에서 슈퍼 알파 팀 크루즈와 영혼의 파트너로 등장하는 친구가 베타의 정석 되시겠다. 보통 다른 유형의 남자들과 알파를 잇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덕분에 친절함이나 공감 능력 등 사회적 지능은 알파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

필요하다면 어긋나가는 알파에게 쌍욕을 다이렉트로 끌어박을 수 있을 만큼의 배짱, 유머러스한 성격 등 알파와 많은 기질을 공유한다. 그러나 베타 기질을 가진 남자가 알파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차이점은 알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야망’과 ‘계급의식’이 부족하다는 거다. 베타는 자신이 직접 누군가를 이끌기보다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을 이끌어 주는 안정감을 좋아한다. 따라서 알파와 서열 경쟁하지 않는 꽝친의 위치를 사수하며 위계 안에서 귀족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큰 책임은 지지 않는 행복한 포지션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위에서 나열한 모든 혜택이 알파를 잘 만났을 때 얘기라는 거다. 가령 알파 기질의 단점만 모아둔 전과자 출신 상남자 등을 모실 경우엔 골아파서 뛰지고, 잘 있던 알파가 갑자기 사라져서(퇴사 등) 느닷없이 일인자로 등극하게 된다면 알파의 기능을 해내지 못해 조직과 함께 동귀어진한다.

**δ. 사회와 조직의 척추뼈, 델타**

남자들의 위계에서 약 70%를 차지할 만큼 가장 흔하고 많은 유형이다. 안정적이고 단순한 삶에서 행복을 찾는 ‘평범한 노동자’로서 남자들 대부분이 델타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라 시발, 나 델타 같은데?’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더러운 기분이 들었다면, 델타야말로 모든 조직을 살게 하는 핵심 계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옛 몽골이 세계를 삼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징기즈 칸이 개쩌는 알파라서? 혼자서 개 짤면 뭐 하나. 전쟁터 현장에서 손수 피 튀겨가며 칼총추던 몽골 전사(델타)들이 함께 개쩔어서 할 수 있었던 거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일본 놈들 튀겨먹은 거? 판옥선 밑에서 8기통 엔진마냥 노젓고 포탄으로 폭죽놀이 갈기던 병사(델타)들이 개쩔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델타는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들’이다. 델타적 기질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자신의 기술과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다. 조직을 리드하길 원하지 않으며, 베타마냥 높은 지위를 퀘차고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이 하는 일과 기술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할 뿐이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평범한 삶’을 쟁취하는 것을 꿈꾸기에, 여자들 눈에는 흔한 남자로 비치는 경향이 있다. 아쉽게도 인기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코쟁이들이 ‘일부일처제’라는 기뚱찬 제도(초절정 인기남 알파와 바람둥이 베타가 괜찮은 여자들을 모조리 독점하는 사태를 막아줌) 덕에 적당히 결혼해서 그들이 꿈꾸는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혼인율이 개박살난 작금의 한국에서 델타들이 언제까지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개 짤었어도, 판옥선 밑에서 노 저을 병사들이 병들어서 빌빌댔으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잡지가 맥심 재팬이 됐을 수도 있었다. 한국 사회의 척추뼈, 대다수의 흔한 남자들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는다.

## γ. 시크릿 킹을 꿈꾸는 괴짜, 감마

남자들의 5가지 계급 유형에서 가장 골칫덩어리다. 감마 타입 인간형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 장문의 댓글을 전형적인 ‘너드’를 떠올리면 된다. 모든 유형 중에 지능이 가장 뛰어나고(대체로 고학력), 반대로 사회적 지능은 처참해서(소시오패스)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자기 객관화 불능)에, 예민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 내성적인 성격(자신감 부족)과 더불어 육체 활동보다는 지적 활동에 탐닉하는, ‘남성미’와는 거리가 먼 육체(여자에게 인기 없음)의 소유자들이 많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데, 이들이 조직에서 폭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감마 타입이 알파처럼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민감한 계급의식의 보유자라는 거다. 대체로 이렇다. 자신은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이므로, 알파와 베타가 빼앗아 간 리더의 자리를 되찾아 모두에게 존경받는 자신을 ‘상상’하지만, 현실 속 자신은 여전히 낮은 사회적 지위인 것에 분노하고 분개한다. 자신은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이므로 여자에게 인기가 많아야 지당한데, 멍청한 알파와 베타에게만 관심의 눈길을 보내는 여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또다시 분노하고 분개한다. 무엇보다 도드라지는 감마의 핵심 성향은 ‘비정직성’이다. 감마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일삼는다. 실패와 갈등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기에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수동적 회피 성향’을 보인다는 거다. 가령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위가 낮은 것에 대해 ‘저들의 지능이 낮아서 내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여자들에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골빈 년’이라고 확신하는 식이다.

감마의 별칭은 ‘시크릿 킹’이다. 자신을 조직 내의 어떤 누구보다 우수한 인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뭔가 빼리한 놈이 알파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대체로 감마다. 이들은 타인을 기만하는 것에 능하고 존중하는 법을 모른다. 만약 감마적 기질을 보이는 인간이다른 남자들을 통솔하는 자리에 오른다? 지금까지 속에만 쌓아두던 울분을 토해낸다. 권력을 인기로 착각해 여직원을 추행한다던가, 유능한 후배를 후려친다던가하는 병신 짓을 하는데... 시발 칸이 부족하네. 감마 특집 기사를 한번 해?

## ω. 벼랑 끝의, 오메가

가장 비극적인 집단이다. 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거부당하는 존재감 없는 남자의 전형으로, 특별히 원가를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여자를 소름 듣게 하는 경향이 있다. 소외된다고 하여 이들이 꼭 무능력한 사람은 아니다. 단지 친구가 없다거나, 말하지 못할 비밀을 숨기고 있다거나, 여자와는 어떠한 접점이 없다거나, 학교 총기난사범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핸디캡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은 조용한 삶을 살고 홀로 지내며(혼자만의 세계에 살며) 종종 분노를 폭발하기도 한다. 아무와도 얹히지 않고 없는 듯 다니던 직장 동료가 갑자기 건물에 불을 질러버리는 등 사건을 경험해 보면, 당신이 상대하는 것이 오메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남자의 5대 계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빠르게 인지하고, 쉽게 이해하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돋는 유용한 틀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조직에서 구성원의 각각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면, 알파 상사 밑으로 배정한 신입 여사원이 그와 불륜을 저질러 버린다던가, 감마에게 팀장을 달아줘서 해당 팀원들이 쫓같다며 출퇴사를 하는 등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쉽게 피할 수 있다. 자, 당신은 어떤 유형의 남자인가? 당신의 옆에 앉아서 일하는 동료의 유형은 어떠한가? 이제 좀 보이지 않나? 🎯

## 시그마( $\sigma$ ) 메일은 존재하는가?

알파 절망편? 감마 희망편?

최근 새로운 남성의 원형이 등장했다. 개쩌는 능력, 카리스마 등 알파와 같은 기질을 내장했지만, 조직 시스템 밖으로 뛰쳐나와 독자노선을 탄는 ‘시그마’ 유형이다. ‘총체로(주도적으로)’ 살기에 타인의 호감을 끌어내려 노력하지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관심 두지 않는다. 남이 만든 조직에서 아득바득 기어오르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조직의 불필요한 규칙에 얹매이지 않아 통제하기 어려워 알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쫓같은 존재인 모양. 능력 좋고, 여자한테 인기가 많기에 감마들이 너도나도 “나는야 고독한 늑대! 자유롭지만 혼니 웬 시그마 메일”이라 주장하는데다, 개체 수가 적어 한창 연구 중인 모양.



# 법률상식 클리닉

## ‘사랑과 전쟁’

남녀관계 속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법.

BY 박상오 변호사

### # 남녀 사이에 법이 웬 말?

세상에는 웬지 법이 등장해선 안 될 것 같은 관계들이 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등 수많은 관계 중 특히 ‘연인’이라는 관계는 차갑고 딱딱한 법과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다. 커다란 문신이 있는 우람한 아저씨가 꽉 죄는 뿐으로 티셔츠를 입은 느낌이랄까.

물론 현실의 연인 관계는 때때로 비즈니스 관계보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더 집요하게 따지기도 한다. 결혼 적령기의 남녀관계는 대기업들의 M&A 거래만큼이나 상대의 조건에 민감하니까. 그러나 빠빠와 플로피디스크를 신문물로 여기던 아날로그 세대인 필자로서는 여전히 연인 관계는 동화 속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기를 희망하기에, 법과 사랑은 역시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현실의 연애에서는 이미 법이 자주 등장한다. 서로 사랑하거나 사랑했던 연인은 물론 합의된 연애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짝사랑 등이 해당한다)에도 스토킹, 로맨스 스캠 등의 형태로, 이미 ‘연애’는 범죄의 목적이 되거나 범죄의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하는 법이지 않은가. 남녀 사이에서 등장하는 법적 분쟁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 CASE 1. 로맨스 스캠

모태솔로 A군은 한 미국 교포 여성에게 SNS 메시지를 받는다. 프로필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매력적이었고, SNS 피드에는 미군에서 복무 중에 찍은 듯한 사진이 많았다. 이후 그녀는 조금씩 A군에게 호감을 표시해 왔고, A군은 난생처음 맛보는 여자의 호감 신호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A군에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묻는다. 파병지에서 금괴를 발견했는데, 이를 한국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사랑에 취해 이를 철석같이 믿어버린 A군은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금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녀의 말에 따라 거액의 돈을 송금했고, 이후 그녀와 연락이 끊긴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의 사례다. 사랑을 의미하는 로맨스 (Romance)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을 합친 말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이후 결혼이나 연애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SNS를 활용해 가공으로 만들어진 인물의 뒤에 숨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물론 실제 사람에 의한 것, 가령 여성

BJ에게 자발적으로 선물한 명품, 금전적 지원 등 누군가의 호감을 얻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큰 금전이 오고 간 사례들을 모두 '연애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스캠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다소 의문인 영역도 있다.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쟁취하기 위해 각자의 매력(재력을 포함)을 강조하려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이는 '리스크'를 동반한 일종의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투자가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로맨스 스캠은 그 정도에 따라서 형법상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선물 등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상대방이 더 적극적인 기망을 했다면, 즉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달라거나 무언가를 사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처음부터 그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다는 등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상대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선물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거나 낮아진다.

### Case 2. 헤어진 남친의 뒤끝?

클럽에서 만난 C양에게 첫눈에 반한 B군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끼에 몇십만 원이나 하는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명품을 선물하는 등 지극 정성을 다했다. B군은 결국 C양과 사귀게 되었고, 연애가 시작된 후에도 모은 돈을 모두 털어 명품 가방은 물론 와제 차까지 사 주었다. 그 결과 연애 6개월 만에 B군이 사용한 금액이 무려 1억 원에 이르렀고, 끝내는 수중에 돈이 마르게 된다. 이에 마음이 식은 C양은 B군에게 이별을 고했고, 분노한 B군은 적어도 자신이 C양을 위해서 쓴 돈 만큼은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품는다. B군은 C양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실무상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사건 유형이다. 서로 동시에 눈이 맞은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녀관계는 한쪽의 호감에서부터 시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먼저 좋아하게 된 쪽은 상대의 사랑을 얻기 위한 여러 노력과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투자가 길어지면, 처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마음도 조금씩 계산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빌려 설명하자면, 나무가 단단해서 초고가의 도끼를 몇십 자루를 준비해 열심히 찍었는데도 흠집 하나 없으니, 그제야 도끼값 청구서가 눈에 보이는 느낌이다(여담이지만 필자는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았던 '열 번 찍히는 나무 생각도 좀 해라'는 댓글을 매우 좋아한다). 이는 위의 사례처럼 연인이 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금세 헤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던 처음의 순수한 (?) 목적 따윈 까맣게 잊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하고 싶어 한다. 이때 폭력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나름 정상적인 사람들의 소심한 복수가 바로 '내가 해 준 것들은

전부 다시 돌려줘' 식의 소송이다. 물론 필자의 칼럼을 열심히 보아 온 사람들이라면 눈치챘겠지만, 이건 결코 쉽게 이기는 소송은 아니다. 아니 사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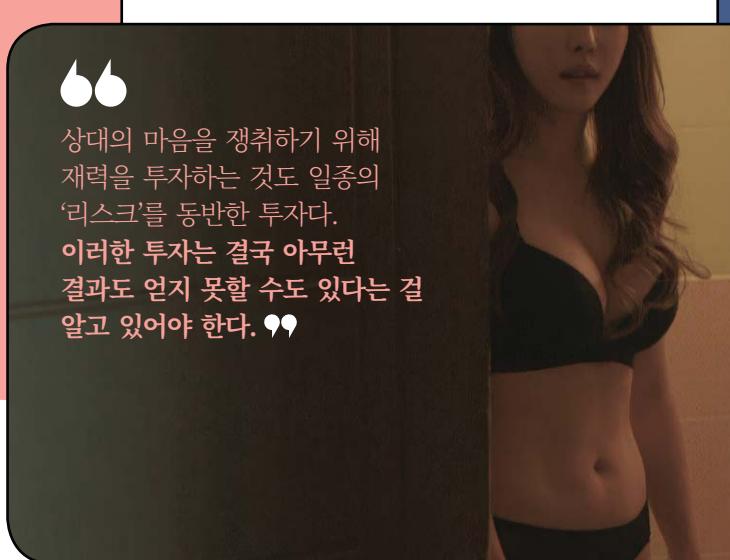
소송을 건 전 남친/여친 등이 주장하는 몇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사실은 빌려준 것이고, 따라서 갚아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이를 법적으로는 '소비대차'라고 표현한다. 남녀 사이에 선물이나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하는 거다. 계약서 등의 증거가 없으니, 제삼자가 실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러니 일단 갚아야 한다고 주장해 보는 거다. 물론 이러한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 즉, 돈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건 사람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송금 등의 방법으로 자체해서 기록이 남았고, 그 금액이 꽤 크다면 우겨볼 여지도 있겠지만, 실제 사실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ex. 카카오톡에 무심코 남긴 '마음대로 써'나 '내 마음이야'라는 등의 메시지).

다음으로는 흔한 주장은 '부담부 증여' 카드다.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증여하는 경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를 주장하며 나와 계속 사귀겠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식이다. 물론 위와 같은 조건의 존재 또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결과는 여전히 실제와 다르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는 없게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송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든 괴롭힌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도 하다. 어쨌든 소송 과정에서 바쁘고, 귀찮고, 때로는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니 일상이 괴로워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내가 이런 인간과 사귀었더니 하는 자괴감은 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방법은 결국 나쁜 마음을 먹은 쪽에게도 별로 좋은 길은 아니다. 로맨스의 어두운 일면을 보았지만, 부디 맥심 독자들에게는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연애만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란다. ☺



상대의 마음을 쟁취하기 위해  
재력을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다.  
이러한 투자는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





# 그 코인이 왜 문제인지 정말 모른다고?

그걸 모른다면 당신은 내려와야 한다. BY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대변인 하현기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기자회견을 했다. 장면 1,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돈 봉투가 들았단다. 그런데 당내에선 수사권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검찰에 맡기잔다. 바로 직전까지 검찰 독재를 말했던 정당이다. 장면 2,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 보였다. 솔직히 김남국 의원 하나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다.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선 전수조사를 하라는 게 골자다. 그게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었다. 아마도 내부 충질이고, 해당 행위라고 생각했나 보다.

코인. 할 수도 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은 차차 줄여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진 ‘안정되었다’고 말하기엔 불충분하다. 사회에서 제대로 안착시키려면 풀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걸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정치가 제도 설계를 통해 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 사이드의 유력 인사들은 가상화폐를 두고 투기이자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논객들 레벨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다. 혹시 ‘박상기의 난’이라고 들어봤는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거래소 폐쇄안 같은 초강경 대책안을 내놓은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한때 민주 진영에선 가상화폐를 ‘나쁜 것’, ‘규제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했던 이야기다. 그랬는데 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된다. 마치 시민들이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마저 규제한다는 오해를 받은 정책을 추구해 놓고 정작 청와대 관료들은 ‘집 두 채’를 한 채로 정리하기 어려워했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처럼 말이다.

물론 민주 진영의 저런 태도는 옳지 않았다. 가상화폐 시장이란 게 세상에 없던 기술로 파생되었기에 불안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투기나 도박 같은 면모가 없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고안해야 했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제도를 설계하긴커녕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코인으로 수익을 실현하려고 든다? 당연히 직업윤리 위반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코인 영끌에는 사회적 맥락이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철거되었다고 느끼니까 코인 영끌이란 한방주의로 흘렀던 부분이 있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나는 우선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같이 들어가서 '한탕 해보자'는 것이어선 곤란하지 않나.

국회의원은 돈 벌면 안 되느냐고? 된다.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아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재산은 국민 앞에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규제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가령 자기 지역구에 미리 땅을 사두고 재개발이 들어가게 하면 이해 충돌이잖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거다. 자기가 개정할 법안이 자기가 소유한 주식에 영향을 주면 이해 충돌이다.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어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주식은 백지신탁하게 하는 거다. 이해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주식을 투자하거나 소유해서 돈 버는 걸 뭐 어쩌겠는가? 돈 버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 '무법' 영역에서 저질러진 만행

그런데 가상화폐는 국회의원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공개 안 해도 불법이 아닌 것이다. 그게 국회의원이 가상화폐는 국민 몰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그랬겠는가? 당치도 않은 말이다. '법의 구멍'이었을 뿐이다. 말하자면 불법·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법'이었다. 그 무법지대, 법의 구멍을 메꾸는 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되려 법의 구멍을 이용해 재산 증식했던 게 '불법 아니라 괜찮다'는 말로 통찰 수가 있나?

내가 가장 경악했던 건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원회 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 보도였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관련 회의였단다. 나는 그게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문제 이전에 애초에 공직을 수행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격과 소양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자격과 소양이 안 되면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특히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무엇이었던가?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전선으로 삼고 있던 청문회였다. 청문회 전엔 한동훈 장관 임명에 관한 여론이 친반 비등하거나 반대가 조금 더 높았다. 그런데 청문회 후엔 찬성 여론이 더 올라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가 문제 있는 인사라는 것을 잘 드러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 더 이슈가 된 건 한동훈 장관의 문제 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함량 미달이었다. '이모', '쓰리엠' 같은 논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질의로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의 딸이 '이 모씨'와 논문을 공저한 걸 '이모'와 공저했다고 주장했다가 망신을 당한 게 바로 김남국 의원이다. 이 실수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직접 사과까지 했다. 한동훈 청문회 중에 가상화폐 거래나 하다가 정작 본인의 임무인 청문회 자체를 맡아먹은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회의는 어떤가? 모든 국민이 슬퍼했고, 정부의 대응에 분노했다. 행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입법부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도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 이게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는 틀로 이야기할 문제인가? 국회의원은 돈 벌면 안 되나는 말로 떼울 수 있는 문제난 말이다.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해도 문제없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원으로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를 하는 회의 중에 그래도 된다는 건,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중요한 청문회와 회의 중에 가상화폐 거래로 사익을 우선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과 그것을 지적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해당 행위이고 어느 쪽이 애당첨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의혹이 사실이면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보기에 내가 비가 올 때 등지와 같이 비를 맞아주지 않는 의리 없는 인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은 당선증 받으면서 선서하지 않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염숙히 선서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아는가? 국회법 2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 문자. 국가이익을 우선했는가?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는가? 그럼에도 위법이라고 까지 안 하겠다. 하지만 국민 앞에 이런 약속을 했으면 국민과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당연한 정치의 의리다. 🌟



김성모 근성론



# 애국심도 근성이다? 태극기 펄럭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혈맹들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BY 근신 김성모 화백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우리 민족에게  
6.25사변이라는 아픈 역사를 남긴 그날...  
6월이 되면 내가 그렸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6.25 전쟁을 그린 〈태극기 펄럭이며〉다!

그날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근성론에서는 〈태극기 펄럭이며〉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 제목만으로 욕을 먹은 그 작품

처음 〈태극기 펄럭이며〉를 발표하고 독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아류작 아니냐, 인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 등의  
비아냥이었다. 제목부터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  
같다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 작품명은 이왕이면  
시류에 따르는 게 어떻겠냐는 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졌다. 물론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다.



## 어려운 전쟁물에 도전한 이유

당시만 해도 만화 판이나 우리 화실 입장에서 잘나가는 조폭물을 두고 두세 배의 공력을 들여야 하는 전쟁물에 도전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작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쯤은 전쟁물을 발표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상처인 6.25 전쟁을 꼭 다뤄보고 싶었다. 피와 살이 트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애를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던 근성과 애국심이었다!

전쟁물을 작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초반 권수를 작업할 땐 화실에 곡소리가 울려퍼질 정도였다. 1950년대에 찍은 실제 전쟁 당시의 사진을 보면서 일일이 펜으로 그리는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게 보기보다 엄청난 노가다였는데, 한 컷을 그리는 데 이틀을 잡아먹은 적도 있었다!

〈태극기 펄럭이며〉 속 초희와 여화를 그릴 때도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화실 멤버들이 남자는 그나마 괜찮게 그렸는데 여자는 솔직히 내가 봐도 좀 못 그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희나 여화가 나오는 장면에선 최대한 여자답게 그려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물론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니만큼 예쁜 것보단 이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게 더 중요다고 생각했다.

극중 초희와 여화 모두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특히 적두의 여동생인 여화는 황산과의 지독한 인연으로 온갖 위험에 노출당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여화의 스토리가 비극적인 이유는 전쟁이란 끝없는



참혹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굴레에 계속 힘쓸려서가 아닐까? 나는 전쟁이 이 모든 여성성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 김성모 유니버스에선 전쟁도 사시마다!?

나는 총 쏘면 끝나는 전투 장면보다 민첩하게 싸워야 하는 사시미 전투가 긴장감을 더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했다. 전쟁을 다른 영화나 작품만 봐도 총의 참혹함보다 칼의 참혹함이 부각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6.25 전쟁만 해도 총을 들고 싸우기 시작해서 마지막 고지 점령 단계에 접어들면 백병전으로 끌이 났다. 나 역시 군대에 갔을 때 거의 마지막에는 총 앞에 단도를 장착한 총검술을 배웠었다!

그동안 나의 조폭물에 익숙해진 독자들이 봤을 땐 '김성모는 전쟁 만화에서도 사시미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난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긴장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시켜 주고 싶었다. 진짜 잔인한 것은 총보다 칼이라는 것을 말이다!

돌아온 대답이 우호적이었다는 글을 읽었다. 만약 내가 김일성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빙의해서 상상해보았는데, 당시 유행처럼 쓰던 '앗싸'라는 단어가 단번에 떠올랐다. 그렇게 '앗싸 짤'이 탄생했다.

딱히 웃기려고 넣은 장면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지하게 그렸었는데 오늘날 유명 짤이 되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태극기 펄럭이며〉를 기획하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들의 냉담하고 무지한 답변을 듣고 충격받았다. 나 또한 작품을 쓰기 전만 해도 그들과 다를 게 없긴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민함이 낳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주었는지, 역사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계속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전쟁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과연 극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나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혈맹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6.25를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고 있다면 그날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나? 명심해라!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것을!!!



## 김일성의 앗싸! 짤의 탄생 비화

〈태극기 펄럭이며〉를 본 사람이라면 일명 '김일성 앗싸 짤'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 명짤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 자료를 조사하다가 떠올렸다. 6.25 전쟁 발발 초기에 관해 찾고 있을 때였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마오쩌둥에게 찾아갔는데 그때

# MISS MAXIM 인물 퀴즈 입술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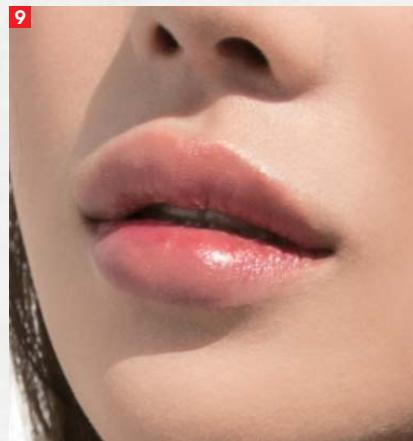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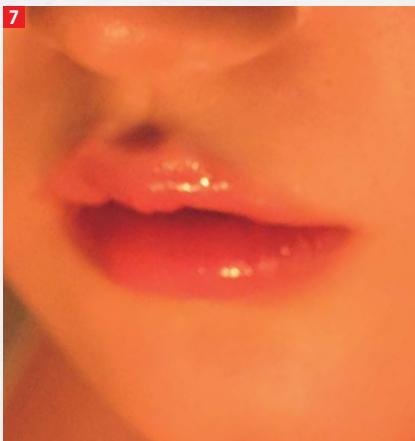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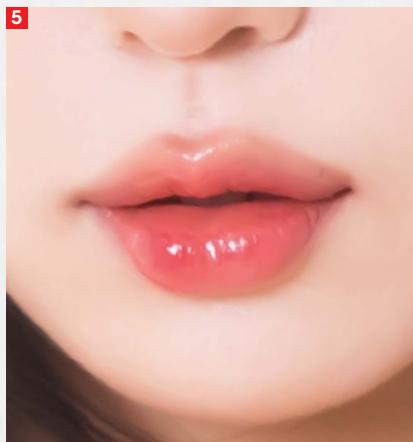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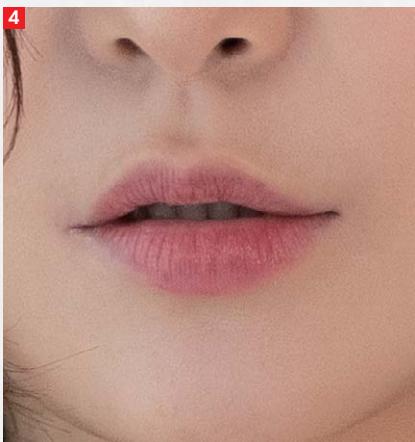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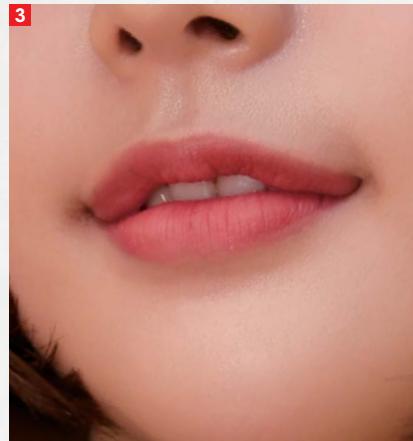
문제 낸 나도  
헷갈림ㅋ



키스를 절로 부르는 미스맥심들의 섹시한 입술들! BY 김한솔



Q. 다음 사진을 보고 어떤 미스맥심의 입술인지 맞추시오.



정답이 궁금해? ↗

# MISS MAXIM 인물 퀴즈 입술 편

문제 낸 나도  
헷갈림ㅋ



키스를 절로 부르는 미스맥심들의 섹시한 입술들! BY 김한솔



## A. 정답



2017 미스맥심 김은진



2019 미스맥심 한지나



2020 미스맥심 은유화



2013 미스맥심 이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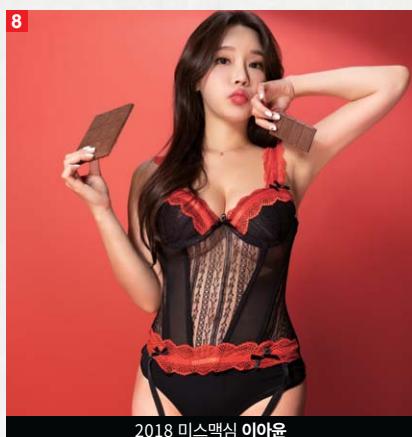
2019 미스맥심 박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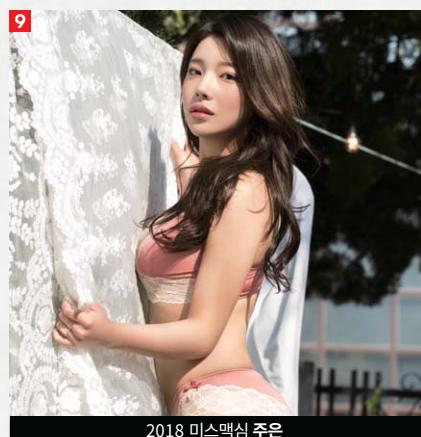
2021 미스맥심 최세희



2022 미스맥심 유진



2018 미스맥심 이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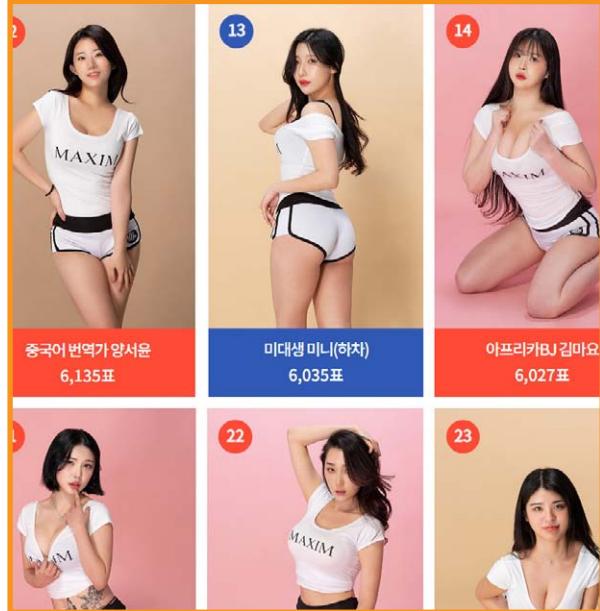


2018 미스맥심 주은

# 맥심사보

JUNE 2023

진실에 병맛을 더해 전하는, 맥심 유일의 사내 소식지. 사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바보짓을 온누리에!



## <2023미맥콘> TOP30! 2라운드 진출자 중에서 아쉽게도 또 중도 하차 발생...

치열했던 1라운드 투표에서 살아남은 30명의 2라운드 진출자! 아쉽게 탈락한 인원들에겐 너무나 간절했던 수영복 미션이었지만, 올해도 합격자 중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 갑작스레 결혼하게 되어 떠난 미대생 미니, 일정 문제로 촬영장에 오지 못한 조지아 출신 방송인 살리와 대학생 다율, 여기에 추가 합격 인원이었던 우크라이나 출신 댄서 나나까지... 이들이 아쉽게 올해 미맥콘 2라운드 진출권을 포기했다. 그래서 수영복 촬영이 진행된 여수행 기차에 몸을 실은 미스맥심 후보자는 28명으로 추려졌다. 그녀들은 넓고 쾌적한 여수 블루망고 풀빌라 앤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여수 챌린지 파크에서 신나게 루지를 타며, 을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루메나 선풍기와 함께 여수에서의 촬영 일정을 마쳤다. 빽빽한 협찬 라인업과 함께 한 미맥콘 TOP28의 수영복 미션은 오는 5월 28일부터, 유튜브 채널 <MISS MAXIM CONTEST>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매주 일요일 8시 본방 사수!

## 이달의 암구호: 플사콘직관예매개시

### 이달의 암구호는? 홈페이지 회원 등급 올리기

서점이나 앱에서 맥심을 산 독자가 홈페이지 회원 계정을 '독자 등급'으로 올리려면 위 암구호를 입력해 독자임을 인증해야 한다. 독자 등급은 게시글 및 댓글 권한, 미맥콘 투표권 등에서 일반 회원과 다르다. 매월 암구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두 달. 홈페이지 **BOARD(게시판)** 메뉴나 '마이 페이지'에서 '독자인증 등급'을 클릭하면 입력란이 나온다.



### 이 중 한 명이 미스맥심으로 특채?! 대체 무슨 이유로...

이제 겨우 2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뿐인 2023미맥콘, 그런데 벌써 한 명의 미스맥심이 탄생했다. 미맥콘 우승자는 오로지 독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지만, 미스맥심 정식 계약은 맥심의 자체 기준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맥심은 미맥콘 준결승, 결승까지 간 후보자와도 미스맥심으로 계약하지 않은 적이 꽤 있다. 그 선정 기준은 첫 회에 맥심코리아 유승민 대표가 밝혔듯 '맥심 모델로서의 상품성'이다. 그래서 본선 1라운드 후보자 43명의 미공개 B컷 유료 판매 결과 가장 평점이 높았던 한 명을 미스맥심으로 조기 특채했다. 누군지 궁금하지? 2023미맥콘 본편에서 그 주인공을 확인하라!



**표지 모델 김우현 친필사인 액자!** 맥심경매에서 180만 원에 낙찰 명불허전! 지난달 맥심을 끝으로 화보 모델 은퇴를 밝힌 표지 모델 김우현을 위해 제작된 초고화질 대형 아크릴 액자. 딱 두 개만 제작되어 김우현의 친필 사인을 간인으로 연결되는 이 대형 표지는 김우현 본인이 한 개 소장하고, 나머지 한 개는 맥심 경매에 부쳐졌다. 이번 경매는 길게 레이스를 할 것도 없었다. 한 독자가 도달 최고가 즉시구매 버튼을 눌러버려 경매를 강제 종료시켰기 때문. '아\*'로 알려진 해당 독자는 역시나 VIP 배지를 번쩍이는 맥심박스 회원이었다. 이걸로 또 한 번 최고가 낙찰 기록을 이어간 맥심경매, 다음은 혹시... 이번 호 표지 모델?



### VIP와 정기구독자 등급 사이에 'Bcut멤버십' 회원 등급 신설!

지금까지는 B컷 멤버십이 잡지 정기구독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급은 정기구독자 등급으로 통합 운영됐었다. 하지만 미스맥심 콘테스트 후보자들의 미공개 B컷까지 꼼꼼히 살피는 독자를 위해 B컷 멤버십을 더 상위 등급으로 분리하여 더 높은 독자 투표권을 부여했다.



### 맥심B컷, 6월 한 달간 미맥콘 TOP28의 미공개 수영복 화보가 매일 폭포수 같이 쏟아진다

종전의 미맥콘 화보는 잡지에 감질나게 실리는 한두 장의 A컷이 전부였다. 맥심 B컷 서비스를 런칭한 후로 작년부터 잡지에 다 못 실은 미공개 화보를 대량 방출하고 있다. 이번 수영복 미션에 진출한 28명의 생존자도 어마어마한 비키니 B컷 화보를 예고하고 있다. 1라운드 때 B컷 최고 평점을 기록한 000를 바로 미스맥심으로 특채하는 걸 봤으니, 미스맥심을 향한 치트키가 될 이번 B컷 대결이 더욱 불타오를 수밖에!



이래도 산다고? 맥심 5월호 조나단 에디션, 알라딘에서 품절  
맥심이 남성 ICON으로 표지를 낼 때마다 각종 인터넷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은 한결같다. '맥심 정신 나갔네', '남성지 표지모델이 왜 남성인가요', '맥심의 무리수', '구독 취소합니다' 등등. 그런데 어찌나... 알라딘에서 조나단 에디션이 품절되고 말았다. 맥심 인터뷰에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완판 가자"고 한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을 줄이야... 한편 조나단은 동생 파트리샤의 맥심 섹시화보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회수 273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직도  
달리는 손예은

분명 2022미맥콘은  
끌났을 터인데  
미스맥심 손예은이

파격 썸네일을 장식한 21화가 아직도 미친 조회수를 올리는 중이다.  
작년을 미맥콘으로 활활 불태운 후 미스맥심이 되고 나선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는 줄창 해외에서 율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귀국했다고 하니 곧 소환하겠다.

###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 미스맥심 은유화가?!

JTBC에서 방영 중인 메디컬 휴먼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시청 중인 맥심 독자라면 아마 눈을 의심했을 거다. '닥터 차정숙' 4화에 깜찍이 미스맥심 은유화가 간호사로 깜짝 등장했기 때문. 비록 짧은 시간 등장하는 카메오 출연이었지만 맥심 모델답게 화려하고 섹시한 미모 덕에 많은 시청자의 시선을 강탈했다. 지난달엔 맥심 카페 와서 화장실 청소하더니 언제 또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었대?? 날이 갈수록 방송계로 슬금슬금 진출하는 미스맥심 군단. 앞으로 더욱 눈을 크게 뜨고 TV를 봐야겠다. 드라마 PD님들, 저희 미스맥심들은 늘 준비돼 있습니다.

# MAXIM BUYER'S EDGE

고민하지 마. 어차피 하나쯤은 사게 되어있으니까!



## 면도기의 새 지평, 파나소닉 ER-GY60

트리머는 다리털만 깎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 다 나와! 파나소닉의 신형 트리머 'ER-GY60'이 온몸의 모든 털을 모조리 깎아줄 테니. ER-GY60은 몸에 난 털은 물론 턱수염, 구레나룻 등 얼굴에 난 털을 스타일링 할 때도 쓸 수 있다. 헤드 하나만 바꾸면 온몸의 털을 자유자재로 가꿀 수 있다는 말씀. 뺏떳한 당신을 위해 손이 잘 안 닿는 부위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I라인으로 설계한 섬세함까지... 털쟁이들이 반하지 않을 수 없겠네.

파나소닉코리아([www.panasonic.co.kr](http://www.panasonic.co.kr))



## 울여름엔 열 받지 마!

여름마다 육수충 되는 앙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피부 열 식히기 전문 브랜드 멘톨로지의 '슈퍼 쿨 바디 미스트' 되시겠다. 식을 줄 모르는 몸속 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이젠 열 받을 때마다 애 한 번씩 뿌려주면 바로 쿨링 ·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다. 더위에 지쳐 무너진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건 물론이고 개기름 유발하는 피지까지 잡아준다고! 울여름 애 하나만 있어도 열 받을 일 확 줄겠지?

멘톨로지([www.mentholatum.com](http://www.mentholatum.com))



## 매끈한 피부, 단 한 장이면 돼

이것저것 찍어 발라도 피부가 엉망진창이라면, 엠도씨의 '시카 클리어 패드'를 장만할 때다. 이거 하나만 써도 과도한 피지와 각질이 눈에 띄게 잡잡해지거든. '호랑이풀'이라고도 불리는 병풀추출물이 80% 함유되어 예민해진 피부를 달래주고, 각종 각질 제거 성분들이 거칠어진 피부 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줄 것이다. 3가지 민트추출물까지 담았으니 여름철 지친 피부에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일만 남았다!

엠도씨(02-2093-3380)



## 텁텁한 연초 대신 상쾌한 비타수

더운 날 담배 피우면 더 덥고 텁텁한 것 같지 않니? 울여름엔 연초 대신 목구멍을 냉동 창고로 만들어 줄 비타수 아이스&민트로 갈아타 보자. 달달하고 상쾌한 맛이 나서 연초보다 백배 천배 나을 거다! 향도 8가지나 있어서 멘솔 짙어하는 녀석들도 입맛 따라 골라 피울 수 있다고. 그래도 담배만 못하지 않냐고? 닷초 노노. 타격감 지려서 담배 생각 1도 안 날걸. 연초 끊으라고 강요는 안 할게. 대신 비타수 맛만 보고 가...

비타수 스토어([www.vitasoo.com](http://www.vitasoo.com))



## 털 고민 털어줄게! 블락 쉐이버

무성하게 자란 털을 집에서 3분 만에 셀프로 해결할 수 있다! 블락에서 출시한 전동 제모기 '블락 쉐이버'만 있으면 쌍 가능이다. 세라믹 블레이드로 거칠게 자란 털을 부드럽게 밀어주어 왁싱 솜 부럽지 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4가지 클리퍼로 구성되어 겨털부터 가슴, 배, 다리, 소중이에 자란 털까지 부위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모할 수 있다고. 제모기 하나로 전신의 털을 조져버릴 수 있는 셈!

블락(02-505-5036)



## 붉은 흔적엔? #흔적크림 #애니언겔크림

평소 트러블 지나간 자리가 고민이라면, 정답은 이즈앤트리 '애니언 누페어 겔 크림'이다! 붉은 트러블 자국부터 기미 잡티까지 해결해 주거든. 글로우피 발림성 만족도 99%를 찍은 이 제품은 적양파 추출물(71%)+소듐 헤파린+3 콤플렉스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깊숙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기 싫은 잡티까지 케어가 가능하다. 이제 비싼 피부과 대신 애니언 크림 하나로 트러블 흔적 고민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자!

이즈앤트리(02-541-0555)

# 맥심1층카페

자정까지 열려있는 독자들의 쉼터, 맥심1층카페 이달 소식.



## 여름 신메뉴 출시, 한 번 잡숴봐

맥심1층카페가 여름을 겨냥해서 개발한 음료 신메뉴 후보가 무려 10가지였는데, 그중 최종 채택된 둘 중 하나다. 민트초코파라면 지나칠 수 없는 맛! 우리가 카페를 이렇게 진지하게 한다니까?

## 미스맥심 김은지 일일 점장? 세하다...

6월호 마감 러시 마지막 날인 5월 20일, 카페를 미스맥심 김은지가 맡아주기로 했다(이걸 쓰고 있는 오늘은 19일). 제발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길. 은지 씨, 남자 손님 성희롱 안 할 거지?



## 홈페이지에서도 품절된 그 레어템이 여기?

발행 2주 만에 없어서 못 구하는 초 레어템이 된 안지현의 '동네친구'편 B타입. 맥심 홈페이지에도 완전 품절 됐는데, 여기선 아직 판매 중이다. 지금 딱 두 권 남았다.



## 빨간 간판 달았다. 술 땡기라고

오픈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사실 아직 변변한 간판도 없었다. 그러나 4월부터 맥주를 팔기 시작하면서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된 김에 맥심의 새빨간 감성을 잔뜩 담아 달았다. '던 프라이드'는 뭐냐고?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에이스 맥주다. 홍대 앞 맥심코리아 사옥이 있는 골목 맨 끝에서부터 눈에 확 띠니까 찾아오기 어렵진 않을 거다. 혼술 환영.



## 그 미녀 알바는 누구?!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이날 알바가 너무 예뻐서 카페 손님들이 술렁였다. 그녀의 정체는 아프리카TV의 초미녀 신입 여캠 말랑소히. 아프리카 베스트BJ인 미스맥심 은유화가 꽂아준 깜짝 카드였는데, 의외로 에스프레소 샷도 잘 추출하고 손님들과도 일일이 같이 사진 찍어 주는 등 남다른 서비스 정신을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또 와 줄 거지, 소하짱?



## 표지 모델이 주문한 음료는...

5월의 어느 휴일 아침, 맥심1층카페에 웬 늘씬한 8등신 미녀가 들어왔다. 그녀의 선택은 아이스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6월호 표지를 촬영하러 온 이번 호 표지 모델 김이서였던 거다! 돈 받지 말 걸 그랬어.

# 다른 부분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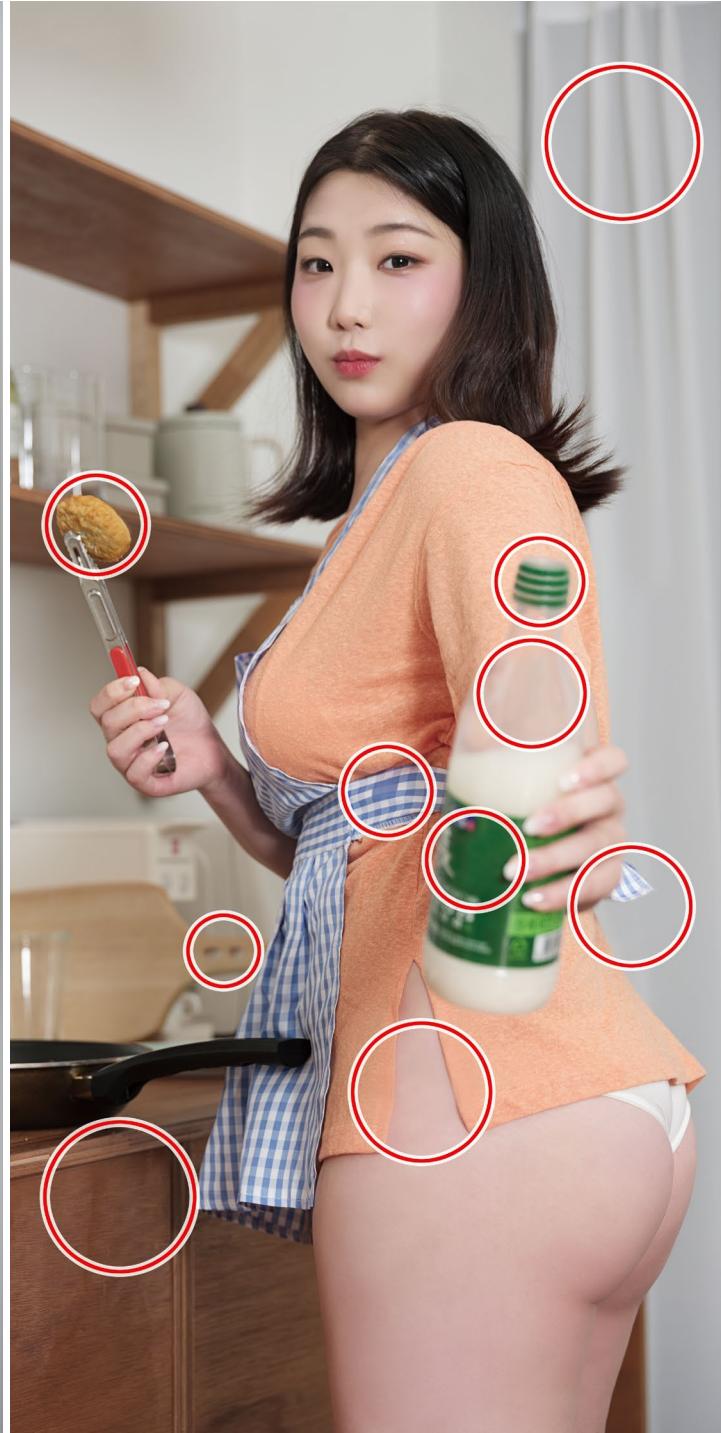
다른 부분은  
총 10개!



# 정답 공개



다른 부분은  
총 10개!



### 염소자리 12.25~1.19

**남:**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베풀 줄도 알아야겠지?  
**여:** 낡은 불화자는 갖다 버리고 새 불화자 장만해라. 왜냐고? 조만간 핑크빛 기류 물려울 예정이거든.

### 사수자리 11.23~12.24

**남:**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다면 무조건 받아먹어야. 빽세 보여도 일단 하면! 된다.  
**여:**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진짜 어떻게든 똑딱똑딱 잘 되는 달이다(=운빨 지림).

### 천갈자리 10.23~11.22

**남:** 예상치 못한 행운이 생길 거야. 너구리 봉지 들었는데 다시마 다섯 개 들어있고 그런 거 있잖아.  
**여:** 이번 달에 인기 폭발할 예정이란다. 어딜 가든 잊지 말고 폐로몬 열심히 뿌리고 다녀라!

### 천칭자리 9.24~10.22

**남:** 그녀에게 관심 받고 싶니? 그럼 똥이라도 지려 봐. 사랑은 용기있는 자가 쟁취하는 법!  
**여:** 셀카 보정할 때의 정성으로 실물 관리에도 힘 쓴다면 분명 더 큰 걸 얻게 될 거야.

### 처녀자리 8.23~9.22

**남:** 잊지 마! 그녀의 광활한 가슴에 취해 그 뒤에 숨겨진 쓰레기 같은 내면을 무심코 지나쳐선 안 된다는 걸!  
**여:** 손이 모자라면 발이라도 동원하자. 남한테 맡겨봤자 바닥에 돈 뿌리는 셈이거든.

### 물병자리 1.20~2.18

**남:** 먼저 사과하기 싫다고?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마. 이를테면 뒷담이나, 뒷담 같은...  
**여:** 혼자 있을 때도 늘 긴장해야겠다. 몰래 코만 후비고 있어도 누구한테 딱 들끼기 좋은 달이거든..

### 불고기자리 2.19~3.20

**남:**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현실에서 뿐만 거두기가 쉬운 일일 줄 알았나.  
**여:** 네가 외로워서 안달 났다는 거 잘 알았으니, 다음 달에 다시 와라. 아직 네 차례 아니란...

### 양자리 3.21~4.19

**남:** 자잘한 거 지키려다 왕건이 놓치는 거야. 넌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 ○○.  
**여:** 남의 커플싸움에 겼다가 등 터질 일 있느냐? 적당히 뒤로 빠져 있어, 인마!

### 황소자리 4.20~5.20

**남:** 느낌 빼~하다 싶으면 일단 한 발짝 물러나 있어. 조상신이 돋고 계신 거니까!  
**여:** 어설프게 저울질하다 저울로 맞는 수가 있다? 분수에 맞게 행동하길, 비나이다...

### 쌍둥이자리 5.21~6.21

**남:** 두 사람 기념일인데 선물은 너만 챙기나? 바로 이럴 때 계산기 두들기는 거야.  
**여:** 그 녀석의 것이 삼 센티인 걸 알게 됐더라도 닥치고 있어. 진흙탕 싸움하기 싫으면!

### 제자리 6.22~7.22

**남:** 냅다 꽃을 생각부터 하지 마라!. 잘될 일도 그놈의 꽃! 추! 때문에 다 말아먹게 생겼으니까.  
**여:** 본인이 절세미인까진 아니다 싶으면 말이라도 예쁘게 해라. 차이기 싫으면...

## 올해가 절반이나 지났는데

나의 반쪽은 어디 있는 걸까?



### 2023 신비운

맥심의 연애 운세는 정확하다고 소문난 '2023 신비운' 앱과 함께한다. 연애 말고 다른 운세도 알고 싶다면 다운로드 고고!

